113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7 호

4월15일

평양 로동신문사발행 1949

조선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제7호 (29)

북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기관잡지

1949년 4월15일

내 용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오늘 조선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밑에 국토완정과 인민정권기관의 강화를 위한 거족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국의 튼튼한 물질적 토대로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인민경제계획 초과달성을 기하는 투쟁에로 총진군하고 있다。

더우기 금번 조쏘량국간의 친선을 공고히하며 량국인민들의 생활상 복리에 이바지하며 나아가서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하는 쏘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간의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 협정에 의하여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함에 대한 제반 대책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쏘련과함께 성의껏 참가하겠다는 것이 확증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인민들은 다시는 전쟁의 참화속에 끌려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과 함께 영구하고 공고한 평화의 수립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오늘 월가의 독점재벌들을 앞장으로하는 영 불의 억만장자들과 그의 졸도들은 평화에대한 인민들의 열렬한 지향을 배반하면서 새 전쟁 조발에 광분하고 있다。

전쟁과정에서 더욱 치부(致富)되고 더욱 독점화된 미국재벌들은 전후에 있어서도 전쟁기간에 얻어졌던 또는 그 이상되는 고율의 리윤을 획득하기 위하여 전미국 경제 군사력을 리용하는 프로그람을 내걸었다。

독점자본가들의 무제한적 활동에 복무하는 미국 대외정책은 타국가에 대한 강도적 침공을 위하고 피충유의 군비확장과 그들의 야로한 「평화계획」실현을 가로막고 공고한 평화의 길로 매진하는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국가들

에 대한 중상적 비방과 공격준비로써 특징된다。

「세계제패」와 망상에 불타고 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의 교육을 위하여는 총국가지출의 一%도 못되는 二억五천만딸라밖에 내놓지않으면서도 군사적 목적을 위하여서는 국가예산의 七六%(「네이쏜」지)를 충당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미제국주의의 군사기지망은 오늘 전지구상에 널려져있다。북극에서 북회귀선(北回歸線)에 이르고 알류샨군도에서 발칙해와 지중해에 이르고 멕시코에서 북아프리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벌어져있다。

발광적 군비확장과함께 전쟁방화자들의 침략적 음모는 포츠담 선언 및 련합국기구헌장등 전후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있는 모든 국제공약들을 파괴하려는 배신적 행위와 병행된다。

미 영 지배층은 독일과 일본에대한 비나치스화 민주화문제를 고의적으로 태공하고있다。또한 일반적 군비의 전반적축소 및 원자무기의 살륙적 목적에의 사용금지를 거부하였으며 五대강국의 일치가결원칙을•파탄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최근에 특히 적극화되는 북대서양조약、지중해뿔럭、동남아세아뿔럭의 결성 음모는 완전히 유•엔헌장을 위반하는것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다。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은 모든 국제협조의 로선을 거부한다。그러나 쏘련정부는 경제적 제도와 사상의 차이가 있을찌라도 이들 제도의 공존(共存)이 가능하다는 것을 천명하면서 항상 국제협조의 로선을 실천하여왔으며 하고 있다。쓰딸린대원수는 킹쓰베리•스미쓰의 질문에 대하여 쏘련과 미국사이의 평화조약 체결에 관한 문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쏘련의 시종일관한 국제협조정책에도 불구하고 평화조약에 대한 미국의 거절은 국제적 평화협조를 파탄시키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탐욕적 야심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인민들은 전쟁방화자들의 이와같은 발악을 용서하지 않으며 새 전쟁의 조발을 허용하지 않는다。

「파시즘과 세계침략의 기본적 근원이 격파되고 멸망당하였음은 세계인민의 정치생활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으며 인민들속에 민주주의 운동의 광범한 성과를 초래한 것이다。전쟁의 경험을 통하여 교훈을 받은 인민대중은 국가의 운명을 협소한 종족주의적이며 탐욕적인 반인민적 목적을 추궁하는 반동적 지도자에게 위임할수 없다는 것을 리해하게 된것이다。그럼으로써 인민들은 과거와 같은 생활을 이 이상은 더 원치않으며 자기의 운명을 자기손에 쥐며 민주주의적 질서를 수립하며 또 반동력량 및 새전쟁의 방화자를 반대하여 적극적으로 싸우려고 하는것이다」。(쓰딸린)

오는 四월二十일에 파리에서 평화옹호세계대회를 개최하자는 평화옹호 국제지식인 련락위원회와 국제민주녀성련맹의 호소는 평화를 옹호하여 새전쟁을 반대하는 전세계인민들의 열렬한 호응과 지지를 받고있다。

지금 평화옹호 세계대회 준비위원회에는 매일처럼 전세계 각국의 과학자 문학가 예술인 교육자 청년 녀성 종교인단체들로부터 본대회에 참가할것을 결정하였다는 통지들이 물밀듯이 계속 도달하고 있으며 전지구는 북대서양조약을 반대하며 공고한 평화를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목소리로 진동되고있다。

불란서의 평화자유를위한 투사협회 전국위원회 및 불란서직업동맹은 전쟁을 준비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단말마적 기도를 능히 파탄시킬것이라고 언명하였으며 불란서의 녀성들은 「어머니들은 결코 쏘련과 싸우기 위하여 아들을 내놓지 않을것이다」「전쟁상인을 폭로하라」는 프랑카—드를 높이들고 나섰다。

화란 백이의 정말의 인민들은 평화와 자기국가의 독립을 확보하기위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할것이라는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으며 노르웨이 녀성들은 「우리는 아이들을 대포밥으로 만드는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북구(北歐)의 검은 구름장을 찢을듯이 외치고있다。

전쟁선동에 주도적 역할을 놀고 있는 미국내에서도 진보적 인사들과 단체들은 월가의 악한들의 새 전쟁방화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미쏘친선 전국협회에서는 북대서양조약은「당신들의 매일 매시를 전쟁의 어둠속에서 살게되는것을 의미한다」「진정한 평화를 위한 길은 미국이 쏘련과 협조하는데만 있다」라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영미 전체근로인민들은 자본주의 트러스트들만이 전쟁을 조발하고 있으며 전쟁에서 리득을 보는것이라고 갈파하면서 전쟁조발행위의 계속을 억막으며 제二차 대전시에 자기들의 동맹자이였던 쏘련과의 우호

및 평화적 관계를 계속할것을 주장하였다。

뉴욕세계평화옹호 문화인 과학자대회에서는 평화를 옹호하는 집단적인 의사는 불패의 세력이라고 지적하면서 「단결함으로써 우리들은 항구한 평화를 지구상에서 확립할수 있다」라고 전쟁을 반대하는 굳은 결의를 표시하였다。

수천만의 근로대중을 진정으로 평화에로 이끌어가고 있는 헌신적이며 현실적이고 고상한 투사인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쏘련에 대한 침공을 조직하려는 국제반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리라는것을 성명하였다。

「불란서인민들은 결코 쏘베트동맹을 반대하여 싸우지않을것이며 만약 이러한 기도가 이 이상 로골화되는 경우에는 전인민을 폭동에 불러 일으키겠다」고 강경한 결의를 표명한 불란서 공산당을 비롯하여 이태리 영국 미국 화란 백이의 정말 서반아 독일 일본 비률빈 호주 멕시코등 각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발표한 성명서들은 국제반동을 반대하는 친우들의 대렬이 어떻게 강화되었는가를 증명하여주는 것이다。

이렇듯 흉악한 전쟁방화자들의 발악이 로골화하면 할수록 전체 인류는 민족 및 인종여하와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여하를 불문하고 전쟁위험을 반대하여 점점 더 단결되고 있으며 평화옹호를 위한 투쟁은 더욱 치렬화하여가고 있다。

이 사실은 평화에 대한 전인류의 견결한 지향을 증시하는 것으로써 평화를 교란하는 국제반동세력의 무상에 일대 철퇴를 가하는것으로 된다。

위대한 쏘련은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고수하는 초소에 튼튼히 서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은 쏘련인민들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생활속에 고동하고 있는 평화의 맥박을 누구나 느끼고 있다。 쏘련의 一九四九년도의 거대한 국가지출예산의 약四〇%는 인민경제발전과 복구에 투자되며 三〇%는 문화시책에 지불되고 있다。 이와같이 미래에 대한 창조적 계획으로 가득찬 사회주의 국가만이 평화를 고수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외정책에 있어서 쏘련은 일체의 제국주의적 침략세력과 그 졸도들을 반대하여 모든 국가의 주권과 동등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

쏘련은 평화건설을 하려는 모든 국가들과 협조하는 로선을 고수하고 있으며 인민들간의 분렬을 조장하는 온갖 계획과 책모를 반대하여 전후 평화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꾸준히 투쟁하고 있다。

장성하고 있는 력량과 국제적 위신을 가진 쏘베트국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쟁방화자들의 「세계제패」실현을 가로막는 깨뜨릴수 없는 장벽으로 되어 있다。 사회주의국가 쏘베트동맹은 전체 평화애호인민들의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북돋아주는 성새이며 원천으로 되고 있다。 세계인민들은 쏘련과의 튼튼한 친선만이 자기들 자신과 전체 인류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여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쏘련을 선두로 하는 국제민주력량의 거대한 장성과 평화를 애호하는 사회적 세력이 날로 단결되고 조직적으로 강화되어가고 있는 사실은 새로운 류혈적인 모험을 준비하고 있는 인류의 원수들의 립장을 점점더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

「제인민들의 기억에는 얼마전 전쟁의 공포가 너무도 생생하게 남아있으며 평화의 편에 서고있는 사회적 력량은 너무도 위대하기때문에」(쓰딸린) 새전쟁방화자들의 전쟁도발행위는 실패하고야 말것이다。

김일성수상이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강에는 「대외정책에 있어서는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우리민족이 전세계 자유애호민족들의 대렬에서 동등한 한 성원으로되며 또한 우리민족의 평등적 지위와 자유를 존중하는 여러 자유애호민주국가와 민족들과의 견실한 친선을 맺도록 도모하게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일본을 제국주의적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는것은 우선 우리민족의 독립을 위협하는것이므로 일본을 다시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재생시키려고 시도하는 제국주의국가들은 전부 다 우리민족의 원수로 인정할것입니다。

공화국정부는 일본을 비군국화하며 민주화함에 대한 포츠담회의의 결정을 실현할것을 강요할것입니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우리공화국의 철저한 평화애호정책을 천명하였으며 인민의 안전과 복지를 침해하는 전쟁상인들을 끝까지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명시하였다。

조선민족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일본제국주의를 또다시 군국주의로 재생시키기에 광분하고 있으며 적

접 우리 공화국 남반부에 뻔뻔스럽게 계속 주둔하고 있는 미제국주의군대의 야수적 식민지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통일독립과 민족적 자주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조선인민들은 평화옹호 세계대회를 소집할데 관한 호소를 누구보다도 더욱 감명 깊게 환영하였으며 열렬히 지지 호응하고 나섰다。

三월二十四일 전체 조선인민들의 환호속에 평양시에서 개최되었던 평화옹호 전국련합대회는 평화옹호 세계대회를 지지하는 선언서와 평화옹호 국제문화인 련락위원회에 보내는 대회참가준비를 갖추고있다는 멧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현 단계에 있어서 이 대회가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한 것이다。 조선인민들은 이 대회를 통하여 평화를 애호하는 전체 조선인민들의 견결한 지향을 전세계에 시위하였으며 우리공화국 인민들은 전세계 자유애호진영의 동등한 일원으로 세계 평화를 옹호하는 영예로운 투쟁에 참가할 결의를 표현하였다。 이는 국제 반동과, 그의 졸도 리승만도배들에 대한 또 하나의 커다란 타격으로된다。

오늘 국제 국내 반동의 조량이 적라라(赤裸々)하여가는 조건하에서 우리공화국 인민들에게 맡겨진 과업 즉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등 국제 팟쇼도당들에 복무하는 반동 매국노들을 철저히 분쇄 소탕하며 미제국주의 침략군대를 철퇴시키고 국토를 완정하는 투쟁은 곧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으로 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투쟁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공화국 전체 인민들은 민주적 통일독립과 민족적 자주권의 기치를 더욱 높이들고 북반부에서 이미 쟁취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일층 공고발전시키며 공화국의 튼튼한 물질적 기초로되는 경제건설투쟁에 모든 애국적 열정을 경주하여야 할것이며 남반부에서는 인민위원회들을 복구 확대시키면서 더욱 치렬한 구국투쟁에로 총궐기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고립되어 있지않다。 우리들은 쏘련과 전세계 진보적 인류와 함께 나서고 있는 것이다。

조선인민들의 철통같은 단결은 반드시 자주적 통일국가를 쟁취할것이며 세계인민들과함께 전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고야 말것이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이데올로기의 역활

기 석 복

一

어떠한 사회에서나 패권계급의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패권적이데올로기로 표현된다。

부르죠아지의 사회에서는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가 패권적 역활을 하게된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데 기초한 자본주의사회를 보존하기에 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되기때문이다。

레닌이 말한바와같이 부르죠아사회는 만일 네가 다른 사람을 착취하거나 다른 사람이 너를 착취하거나 만일 네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일하거나 그가 너를 위하여 일하거나 또 만일 네가 노예소유자로 되거나 그렇지않으면 네가 노예로 되는 그러한 원칙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이밖에도 자본주의사회에는 저들의 법에 씌어지지않은 법이 존재하여있나니 그것은 즉 사람은 사람에게 승냥이며 락후하고 약한 자를 침해하는것이 일반 법칙으로 되었다。

부르죠아의 도덕은 어떠한 수단으로서든지 자기가 부자가 되려는 야욕으로써 표현된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비인간적 야욕성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교활한 수단과 기만과 아첨을 리용하면서 반동과 암흑을 근로대중속에서 선전한다。

부르죠아이데올로기와 부르죠아의 세계관의 중요한 기본은 자본주의제도의 영원성과 확고부동의 학설이다。

그 사상은 자본가들이 로동자들을 착취하는것이 영원하고 확고부동한 것이며 근로자들에게 대한 부르죠아지들의 통치권과 자본가들의 개인소유로있는 생산수단에 대한「신성불가침」이라는 썩은 냄새나는 학설들을 조작해내는것이다。

부르죠아와 그의 졸도들은 자본가와 로동자들간

의 계급적 모순을 부인하며 계급적 평화를 선전하면서 그들간의 리해를 일체화하려고 시도하며 부르죠아사회의 초계급적 학설을 끄집어낸다.

부르죠아이데올로기의 특징의 하나로는 민족과 종족차별에 대한 인종과 민족차별론이다.

이에 대한 실례로써 인도사람, 애급사람, 아랍사람 및 기타 사람들보다 앙글로·싹쏜족의 우수성에 대한 영국부르죠아지의 이데올로기가 그의 대표적 실증의 하나로 된다.

그러므로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형식으로보든지 허위적이며 반동적이다.

그러나 그는 오랜 과거의 력사를 가졌다.

그렇기때문에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는 다만 부르죠아지의 층에서뿐만아니라 지어 락후한 근로대중의 속에서도 적지않은 반동적 영향을 주고있다.

부르죠아들은 학교, 출판물, 라디오, 극장, 영화, 교회당 및 기타 선전기관과 방법들을 리용하면서 인민대중속에 자기들의 견해 사상을 근로대중에게 집투 고착시키려고 발광한다.

부르죠아들은 근로대중의 의식을 말살시킴에 있어서 첫째로 근로대중에게 자기의 력량에 대한 불신임성과 의심성을 환기시키고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대한 종속성 순종성 및 노예성을 교양하면서 자본의 노예적 고역을 참도록 근로대중에게 선전하고있다.

부르죠아와 그들의 이데올로기는 근로대중이 지상에서의 고통과 기아를 당하기때문에 「천당」에 가서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수있다는것을 근로대중에게 약속한다.

제국주의적 부르죠아국가는 인민대중을 자기들의 제국주의적 목적을 달성함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교양하고있다.

그러나 로동계급의 세계관인 맑쓰—레닌주의는 그의 이데올로기로써 부르죠아의 이데올로기와는 정반대된다.

맑쓰—레닌주의는 전세계에서 수억만의 지지자들을 쟁취하고있다.

벌써 레닌주의는 쎄·쎄·쎄·르에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였다.

위대한 사회주의적 十월혁명은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청산하였다.

그뿐만아니라 十월혁명은 볼쉐위끼의 이데올로기인 레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개가하는 계기를 전세계에 열어놓았다.

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은 수억만 인민의 향도성으로 되었으며 그들의 위력한 물질적 혁명적 력량으로 되었다.

그렇기때문에 레닌주의는 수억만 근로대중의 기치로 되었으며 그는 그들의 기본적 복리와 숙망과 목적을 표현한다.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레닌의 기치밑에서 자본주의와 짜리즘을 전복하고 쏘베트주권인 사회주의국가를 수립한지 이미 오랬고 또 이나라의 인민들은 레닌의 기치밑에서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완수하고 공산주의적사회로 매진하고있다.

이 백전백승의 레닌의 기치밑에서 위대한 쏘베트인민은 히틀러독일과 침략적 일본을 반대한 조국애호전쟁에서 세계사적 승리를 전취하였다.

전쟁당시에 쏘베트인민들이 발휘한 영웅성과 사상적통일은 즉 레닌주의의 사상의 표현인것이다.

이와같이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목적은 위대한 사업을 탄생한다.

二

레닌주의는 우리시대의 맑쓰주의이다.

레닌주의는 전체 근로대중과 로동계급의 이데올로기이며 전세계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과학적 세계관이며 완전무결한 혁명적 학설인 이에 기초하여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은 자본주의적사회를 변혁하고있다.

「맑쓰—레닌주의적 리론은 사회발전에 대한 과학이며 로동운동에 대한 과학이며 프로레타리아트혁명에 대한 과학이며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에대한 과학이다」(볼쉐위끼 공산당력사)

쏘련의 근로인민은 볼쉐위끼공산당의 지도밑에서 레닌—쓰딸린의 학설에 기초하여 사회주의적 사회를 창설하고 사람과 사람의 착취를 숙청하였으며 국가의 번영과 급속한 발전을 위한 제조건들을 조성하여놓았다.

쏘련 볼쉐위끼 공산당의 력사는 레닌주의의 력사이다. 쏘련 볼쉐위끼 공산당은 자기의 전체정책을 레닌주의의 리론적 토대에 근거하여 구축하였고 또 구축하고있다.

그러므로 전체 쏘련인민의 재반활동은 레닌—쓰딸린의 위대한 사상에 토대하여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실천하고있다.

이 사상은 인민의 기본적복리를 표현하기때문에 근로대중에게서 항상 열렬한 지지를 받고있다.

볼쉐위끼 공산당과 그의 창조자이며 수령인 레닌과 쓰딸린은 근로대중과 자기의 조국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모범을 보이였다.

그들은 근로대중에게 그들의 번영과 행복에 대한 길을 가리켜주었다.

쏘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공업화와 농촌경리의 단합화, 사회주의국가의 발전은 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실천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전세계에서 근로대중과 진보적인사들이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여 인민들의 영원한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궐기한 투쟁도 역시 레닌주의적 사상에 기초한 위업이다。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있는 민주주의적 교양은 영생불멸의 레닌주의적 정신에서 우리공화국이 일제의 악독한 결과를 반대하여 맹렬한 사상적투쟁을 전개하는데서 실천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인민들은 민주주의적 사회의 창설을 위한 투쟁에서 인민의 제반 원쑤들과의 맹렬한 투쟁속에서・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식과 민주주의적 전통들을 배양하게된다。

민주주의적 토지개혁으로 말미암아 농촌에 있어서의 농민들의 려대적 질곡이던 봉건적 토지소유제도가 숙청되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의 발전을 바로 인식하는 과학적 의식들이 형성되고있다。

그것은 농촌에 있어서의 패권적 이데올로기로 농민들의 창조적 창의성을 억압하던 지주계급들의 사상이 숙청되고 근로하는・농민들의 민주주의적 사상이 오늘 우리 농촌에 있어서의 주도적역활을 하면서 농촌을 새로운 민주주의적 대로로 발전시키고 있기때문이다。

오늘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착취계급을 위하여 로력하지않고 자기자체와 국가를 위하여 근로한다。

여기로부터 우리 국가에 있어서의 로력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발생하게되었다。

자본주의는 대대손손으로 근로대중에게 로력에 대한 옳지못한 견해를 배양하여 주었나니 그것은 로력에 대하여 가장 무거운 멍에로 가장 혹독한 참경으로 알게하였다。

그러나 농촌에 있어서의 봉건적 토지소유제와 지주계급이 숙청되고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국유화의 법령에 의하여 중요기업이 국가의 수중에 넘어옴으로써 전체인민의 소유로 되었기때문에 해방전에 착취받던 우리 로동계급과 농민들은 주권을 장악한 계급으로 변경되었으며 이에따라서 로력에 대한 그들의 견해도 변경되었다。

일제시대의 식민지적 노예의 로력규률은 억압과 가아에 기초된것만큼 자본가들이 요구하는대로 로력하지않는다면 그들은 공장과 농장으로부터 쫓겨나오는수밖에없는 그러한 살풍경을 당할수밖에는 더는 없었다。 이러한 로력규률은 이미 우리공화국북반부에서 숙청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우리로동규률은 법령으로써 일조일석에 수립되지않는다。

그는 다만 장구한 시일을 걸치는 행정에서 맑쓰—레닌주의가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회생활조건의 변천과 자체의 발전에서 사람의 새로운 의식은 형

성 수립될수있다。

여기로부터 우리당은 근로대중을 새로운 민주주의적 정신에서 로력에 대한 새로운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할 첫 의무를 내세웠다。

그것은 로력에 대한 새로운 관계가 생산능률을 제고시키며 새사회의 경제적 체계를 확고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활을 리행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 제三十조에는「공민은 로력하여야한다。 로력은 조선인민의 영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어서의 로력은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씌어있다。

레닌주의에 기초한 위대한 쏘련의 무력에 의하여 해방된 우리조선인민이 로력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가지게되었다는 실례들은 우리들의 활동에서 명백히 시시로 표현된다。

토지개혁전 까지 일제의 압박과 지주의 착취에서 신음하던 농민들이 토지개혁후 자기들의 로력으로써 거둔 나머지 곡물들을 국가에 회사하여 벌써 一九四八년도에 근二천여명의 대학생들이 공부할수있는 종합대학 학사(學舍)를 건축하였고 또 지금에있어서 전반적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자기들의 나머지 곡물들을 국가에 회사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공화국 북반부의 공민들은 자기조국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자원적으로 자기의 로력을 국가에 바치는 실례들은 허다하다。

이러한 실례외에도 우리북반부의 각공장 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자원적으로 인민경제의 二개년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한 증산경쟁운동을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여 대중운동으로 전개시키고있다。

즉 사동련탄공장 채탄부 김원경동무의 증산운동의 첫 봉화로써 전개된 개인의 창의에 의한 개인경쟁운동은 장엄한 군중적 애국 증산운동으로 사동탄광일대에서만 전개되었을 뿐만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북반부의 방방곡곡의 각기업소들의 로동자들을 증산경쟁운동에 궐기시켰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공화국 북반부 공민들이 조국에 대한 헌신적복무와 민주주의적 자각성에서 흘러나오는 위업의 하나인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수천만 로동자 농민들이 로력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근본적으로 변천된것을 잘알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이미 로력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전적으로 변천되었다는것을 의미하지는않는다。

인민의 사상변천과 그들의 일반사회관계에 대한 견해를 변천하는 과정은 아주 장구한 시일을 경과하게된다。

그러므로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로력의 새로운 규률을 구축하는것과 인간간의 사회적 련결의 새로운 형태를 구축하는것과 로력에 인간을 인입시키는 방법과 새형태를 구축하는것은 수십년간의 사업으로 된다」。그렇기때문에 해방된지 三년반이란 짧은 기간을 가진 우리 농촌과 도시에는 아직 락후한 사람들이 적지않게있다。

이들은 사회적 로력규률을 문란히하며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될수있는대로 조금이라도 사회의 공유물과 공리물 파손시키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에 적게 공리가 돌아가도록 태공하고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국가재물을 랑비하며 낡은 부르죠아적 잔재물의 하나인 투기업으로 넘어가고있다。

이러한 락후한 분자들과의 맹렬한 투쟁은 그들에게 민주주의적 사상과 로력에 대한 새로운 관습을 배양시키는것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의 하나이다。

레닌의 위대한 전우인 쓰딸린은 보통사람들의 로동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지금에 있어서는 민족들과 국가들의 운명은 다만 수령들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보다도 먼저 또는 주로 로력자들의 백만대중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제조소들과 공장들、광산들과 철도들、꼴호즈들과 쏩호즈들을 조용히 요란함이없이 건설하며 생활의 모든 복리를 만들어내며 전세계를 먹여주며 입혀주는 로동자들과 농민들—그들이야말로 새 생활의 진정한 용사들이요、창조자들인것이다。

보건대 우리의 베센추크의 동무들은 이것을 잊은 모양이다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또한 자기가 공로를 끼쳤노라고 교만한 태도를 부리기 시작하는것은 좋지못한 일이다。그것은 교만에 이르게하는것이니 교만은 좋지못한 일이다。그러나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과소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그들의「사소하고」「미미한」로동이 사실상 력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위대하고 또 창조적인 로동임을 보지못하는것은 더욱「좋지못한 일이다」

이와같이 레닌주의의 철저한 계승자 쓰딸린은 보통사람들의 로동의 사회적의의를 고상하게 평가하였다。

해마다 우리의 사회의 생활에는 새로운 성격을 가진 수천명의 청년남녀들이 우리조국의 건국일선에 립각하고있다。

물론 이 젊은·투사들에게 로력에 대한 사회적 존경성과 로력적 영웅심을 배양하는것이 민주주의적 교양에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그것은 진정한 인간은 다만 진정한 사회적 로력에서만이 형성될수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로력에 대한 애착심과

존경심을 우리의 공민들에게 배양하여야 될것이다。

다음으로 로력에 대한 진정한 사회적관계와 밀접한 련결성을 가진 문제의 하나는 로동자 농민의로력으로 창조된 사회적 공유재산에 대한 사회적관계이다。

자본주의적 환경에있어서 근로대중에게 사회재산에대한 존경심은 배양될수 없다。그것은 모든 재산이 몇사람의 개인의 소유에 종속되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도리어 근로대중에게는 그에 대한 존중심보다 도적하거나 파손하는 그러한 관습이 배양되고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의 필연적 사실로된다。

왜 그러냐하면 자본주의사회에 있어서 로동자 농민의 로력으로 창조된 결과물 자기들이 소유하게 되는것이 아니라 로력하지않는 자본가 지주계급들이 소유하게됨에서 발생된다。

물론 이러한 관계가 해방된 三년반 기간에 있어서 우리 조선근로대중에게서 이미 다 청산되었다고 말할수는 전혀 없다。

그러므로 로동자 농민대중이 사회적재산에 대하여 자각적 관계를 가지도록 그들을 교양하는 사업은 우리 조국부강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레닌주의가 가르치는 바와같이 사회적 소유물에대한 자각적관계는 국가와 인민의 복리와 재산을 절취하며 랑비하며 파손하는 자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는데서 만이 형성될수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들은 국가의 재산을 보관함에 있어서 각종 와해분자들과 랑비자 및 투기업자들과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한다。그럼으로써만이 우리의 인민경제는 날이 갈수록 더 튼튼한 기자를 구축한다。

三

레닌주의는 자기의 조국을 사랑하며 그에 헌신적으로 복무하며 그의 번영과 보위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 력량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것을 항상 가르치고있다。

각개 공민의 행복과 복리는 조국의 행복과 복리와의 긴밀한 유기적 련결성을 가지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인민들은 국토완정과 조국의 부강을 위하여 자기들을 식민지노예로 만들려고 반역자 매국노들을 파하여 반동적 만행을 감행하는 국내국외 환경에있어서 로소를 불문하고 치열한 애국적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이 투쟁에있어서 조선인민은 자기의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고상한 애국주의를 발휘하고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현대 부르죠아사회에 있어서의 애국주의는 민족을 분렬시키며 그들간의 적개

심을 발육시키고있다。

제국주의의 국가들의 부르죠아적 애국주의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 종족보다 우월하다는 민족적 종족적 차별을 하는 반동적 사상과 배타주의와 야수적 민족주의와의 밀접성을 가지었다。

우리의 애국주의는 제반 부르죠아지의 애국주의와는 원칙적 차이를 가지고있다。

우리 애국주의의 내용은 다른 민족과 다른 종족을 반대하는데 기초한것이아니라 다른 민족과 우리국가의 근로대중들의 형제적 협조와 우리 공화국과 인민에게 심대한 충실성과 헌신성으로써 헌신하는데 기초하였다。

우리 애국주의에는 전체 공민들의 일반생활적 복리와 우리민족의 민족적 전통과의 조화적 결합을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국주의는 우리 조국의 인민들을 분리시키는것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정부주위에 더한층 결속시키고있다。

우리의 열렬한 애국주의는 오늘 우리 조국에 조성된 제반 정치적조건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유농력한 위력으로 되었으며 인민을 새 승리로 고무한다。

그리하여 이번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에서 우리 조선인민의 애국주의는 국토완정과 지방 인민정권기관을 강화함에 있어서 조선인민의 행동통일의 승리를 전세계에 시위하였다。

즉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 선거에는 등록된 선거자중에서 九九·九八%가 투표에 참가하였으며 선거결과에 전체 五、八五三명의 민주주의 조국통일전선 립후보자가 도、시、군、구역인민위원회 대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이와같은 선거의 승리는 북조선인민들이 김일성수상이 령도하시는 공화국정부를 받들고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으며 그 앞길에 조국의 무한한 룡성과 인민의 행복을 전망하고있는 실증으로 되는것이다。

우리 조국의 원쑤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분자들에게 대한 불구대천의 증오심을 교양하여주는 사업은 조국에 대한 헌신성과 밀접한 련관성을 가지고있다。

우리조국의 원쑤에 대한 증오심은 민주주의적 교양과의 불가결의 특징으로된다。

레닌주의는 자기의 조국의 보위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있을것과 비겁성 없는 투사로 될것을 호소한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는 조국보위에 대한 조선공민의 영예로운 임무를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여 놓았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한다。 조국의 보위는 공민의、최대의무인 동시에 최대 영예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중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

이밖에도 공민은 반드시 자기의 조국을 존경하며 사랑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령을 엄밀히 준수하여야하며 제반사회의 질서와 공민된 임무를 엄격히 어데를 물론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만일 그렇지않고 헌법이나 법령 및 사회적 질서를 위반하는때에는 그는 반드시 공명정대한 법적 처벌을 당하게된다。

이에대하여 우리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제二七조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있다.

「공민은 헌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한다。 헌법에 규정한 법적질서를 변경 또는 파괴하기위하여 헌법에서 부여한 권리를 악용함은 국가에 대한 중대한 죄악이며 법칙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와같이 우리 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신성한 임무를 어김없이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공민들에게 사회적질서와 우리공화국의 헌법과 법령에 대한 심대한 해석사업을 광범한 대중속에서 전개하여야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국가의 헌법 법령 및 사회적 질서에 대한 옳은 인식을 가짐으로써 헌법、법령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게된다。

우리는 반드시 근로대중에게 착취계급을 증오시키는 그러한 계급적 각성을 배양시키며 어떠한 미혹에든지 키우치지 않도록 정치적 각성을 고도로 앙양시킴으로써 그들이 새사회를 위하여 투쟁하는 용감하고도 인내성있는 투사가 되도록 하여야할것이다。

四

어느국가를 물론하고 그 국가의 인민들의 사상수준여하에 따라서 그 국가의 운명이 해결된다。

례하여 一九一七년에 로씨야에 있어서의 짜리즘의 전복과 쏘베트주권의 수립은 로씨야의 로동계급과 근로대중의 운동이 맑쓰—레닌주의와 옳게 결합된 결과이며 로동계급의 당인 볼쉐위끼 공산당의 옳은 지도의 결과인 것이다。

이와같이 어느 국가를 물론하고 그 국가의 인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있어서 막대한 역활을 리행한다。

그러므로 가장 진보적사상이며 혁명적사상인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사상인 위대한 사회주의적사상은 三十一년전 로씨야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서 가장 락후하였던 나라를 지금 선진적 공업 농업국으로 전환시켰다。

그러므로 우크라이나 볼쉐위끼공산당 중앙위원회 책임비서 후르쇼브는 우크라이나 볼쉐위끼공산당 제十六차대회에서 진술한 자기의 보고에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전세계의 수억만 근로대중은 쏘베트동맹이 위대

한 사회주의적사상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사상을 성과적으로 실천하는것을 보고있다. 볼쉐위끼당과 쏘베트인민들이 쟁취한 성과들은 해외 우리동지들을 기쁘게하며 고무한다. 공산주의건설에 있어서의 우리의 성과들은 반동력량을 약화시킨다.

그렇기때문에 쏘베트조국의 위력의 공고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전세계에서의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전선을 공고히한다」.

쏘베트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전체쏘베트인민의 이데올로기로 된 맑쓰—레닌주의의 승리이다.

공산주의의 원쑤들은 맑쓰—레닌주의를 소탕하려고 또한 맑쓰—레닌주의의 체현인 쏘베트사회와 국가제도를 소탕하려고 수차 시도하였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원쑤들의 이러한 시도는 번번히 수치스럽게 실패하고 말았다.

물론 이러한 수치스러운 실패밖에는 더없을것은 자연한 사실이며 맑쓰—레닌주의를 소탕하기는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기때문에 일찌기 쓰딸린대원수는 볼쉐위끼공산당 전로十七차당 대회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맑쓰주의는 로동계급의 근본적 리익의 과학적표현인것이다.

맑쓰주의를 없새버리려면 로동계급을 없새버려야 할것이다.

그러나 로동계급을 없새버리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맑쓰주의가 무대에 나선 이래로 八十년이 지나갔다. 그동안에 수십 또는 수백의 부르죠아 정부들이 맑쓰주의를 없새버리려고 시도하였다.

그래 어찌되었는가?

부르죠아 정부들은 생겨났다가 사라졌다가 하였지만 맑쓰주의는 남아있다.

그보다도 더 맑쓰주의는 지구의 六분의一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어내었다. 그런 중에도 그는 맑쓰주의가 아주 없어졌다고 하던 나라에서 승리를 얻어내었다」.

이와같이 지나온 시기는 맑쓰—레닌주의의 위대한 새 승리의 기치밑에서 경과되었다.

「반공산주의적쁠럭」은 이미 구라파와 아세아에서의 완전한 전멸을 당하였고 그 반면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력량은 공고하여졌다.

위대한 레닌의 학설은 세계의 력사발전 과정에 가장 심대한 영향을 주고있으며 전세계 근로대중에게 해방의 유일한 길과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기초위에서 새 생활을 구축할 유일한 길을 가리키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당은, 항상 사상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동시에 근로대중으로하여금 맑쓰—레닌주의의 연구에대하여 특별

한 주목을 돌리고 있을것을 호소하였다.

그것은 맑쓰—레닌주의의 소유가 우리 민주주의적제도를 공고히하며 발전시킴에 있어서 생활상 필연으로 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일성동지는 맑쓰—레닌주의의 연구에대하여 우리당 제二차전당대회에서 다음과같이 진술하였다.

「당사상전선에 침입하는 일체 반맑쓰—레닌주의적 반동사상들과의 엄숙한 사상투쟁을 전개하며 일부당원들과 특히 일부 당지도일군들이 맑쓰—레닌주의적 선진리론으로 무장하는일을 게을리하는 일체 현상들을 반대하여 엄중한 당적비판을 전개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우리당은 당선전사업과 당교양사업을 오늘 우리당이 요구하는 정치리론적 수준에까지 제고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당은 맑쓰—레닌주의적 선진 리론으로 우리당원들을 무장시킴으로써 그들속에서 계급적각성을 일층제고시켜야 하겠으며 우리당은 어느때든지 계급적원쑤들이 우리를 반대하여 항상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말아야 하겠습니다」.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은 어떻게 사업할것인가

박 영 성

생산기업소 운수직장들의 우리당 초급당단체들은 그 직장에 부과된 인민경제계획 실행을 보장하며 전체로동자 사무원들을 부강한 민주주의 조국건설에 일층 열성적으로 동원시키는 공고한 보루(堡壘)로 되는것이다。

여기에서 매개당원들은 자기의 선봉적역활을 수행함에 대한 굳은 신념을 더욱 담보 받게되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국가기관 및 우리당의 결정과 방침들이 군중속에 일층 철저히 침투되며 구체화된다。

해방후 三년동안 경제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생산직장내 우리당 초급당단체들은 자기의 사업실천을 통하여 진실로 수다한 모범적 역활들을 실증하였다。

흥남비료공장 당단체들은 一九四八년도에 부과된 자기공장의 생산책임숫자를 더욱 단축된 기간내에 완수함으로써 국가에 더많은 리익을 주기 위하여 당원들을 선두로 광범한 증산경쟁운동을 전개하고 이 운동을 정치투쟁과 옳게 결부시키고 전체군중들을 조직적으로 추동하여 방대한 一년간 책임량을 예정계획대로 一개월 앞서 완수하도록하였다。

평양화학공장 당단체들은 국가에서 긴급히 요구하는 동공장의 복구사업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작업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자재준비와 기계설비들에 당원들의 역활을 더욱 제고시킴으로써 복구공사를 예정보다 四十五일간을 더 단축시키고 수다한 자재와 거액의 재정을 절약케 하였다。

서평양철도공장 당단체들은 공장에 부과된 수리책임량을 더욱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수준들을 위한 투쟁과 생산능률 제고를 위한 경쟁에 당원들을 솔선 참가 시키고 그들의 작업조건을 백방으로 보장하여 공장의 생산계획을 一二八%로 초과완수하고 완전[illegible]자를 재생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생산직장내 우리당 단체들의 이와같은 사업조절은 오늘 어느부문에서나 볼수 있는 일반적 사실로 되었으며 수다한 우리당단체들이 자기의 우수한 사업조직으로 말미암아 두터운 사회적 찬양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오늘 인민경제계획 실행의 모든 성과는 우리당단체의 역활과 유기적으로 련결되어 있으며 생산기업소、운수직장들의 사업이 어느 정도로 발전되고있는가 하는것은 곧 그 부문내 우리당단체의 사업을 평가하는 엄격한 척도로된다。

부강한 민주주의 조국건설을 위한 투쟁의 광범한 령역에 있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정치 경제 건설의 각분야를 물론하고 우리당의 참가를 요구하지않는 부문이 없으며 이 문제들은 또한 항상 우리당의 적극적인 참가로써 해결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당단체들이 자기 사업부문에서 포괄한 내용은 진실로 범위와 한도를 규정할수없이 광범한 것으로 되었으며 그 사업에서 범위와 한도를 규정할수 없으리만큼 우리당단체들이 그 직장에서 감당하는 책임은 실로 중대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자기의 포괄하는바 사업령역이 이와같이 광범하고 한계를 그을수 없이하여 제기되는 수다한 과업들을 일시에 동일한 비중으로써 해결할수는 없는것이며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것은 옳지않다。우리들의 사업대상은 중점과 선후가 있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범위가 방대하면 방대할수록 그 사업에서 중점과 선후를 옳게 포착하고 모든 과업중에서 가장 중점적인 기본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에 부수되는 다른 문제들을 부대적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알아야한다。만약 생산기업소들이 경제계획을 잘 실행함에 있어 생산능률을 높이는것이 중심문제라면 이 문제를 옳게 취급함으로써 로력수급과 원가저하 및 로동자들의 수입증대에서 오는 생활향상에 관한 문제들까지 병행적으로 해결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즉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당단체들은 자기의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사업의 중요방향과 활동을 옳게 파악하지 못하고 당사업을 행정관리측의 구체적 사업보장을 위하여 복종시킬 대신에 자가의 계획과 실천을 막연한 추상적 개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부분적 실례들을 볼수 있는 것이다。

황해제강소에서는 금년 一一월에 이르러 공장의 생산전로의 고장이 련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으며 생산계량과 작업량 측정의 부정확으로 말미암아 커란 부분의 가상제품(假想製品)들이 실지생산량과 현격한 차이에서 추정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생산품의 질은 점차로 저하되어 국가계획 실행에 있어

이 공장의 생산정형은 자못 심각한 상태에 처하여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청진제강소 당단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제때에 취급하고 이 부문의 당적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공장에 부과된 생산책임을 보장함 대신에 실지 취급한 사업은 로동자들의 착업간 규정에 대한 일반적 문제와 봄이 오면 공장 부속토지들을 어떻게 재분배하겠는가 하는 문제들을 토의하는데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해주화학공장 당단체들은 작년三·四분기에 있어 생산계획은 규정된 품종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공장은 자기의 중심작업 부문에 주력할 대신에 용이할 생산과 현실적 리윤타산에 급급한 결과 전체 작업부문이 수공업적인 분공장화하고 있었으며 로동규률은 점차적으로 해이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취급하는것이 아니라 문화체육사업지도에만 전체당단체들이 일상적으로 동원되고 있었던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함들은 우리당단체들이 그 직장내에 있어 자기의 핵심적 역활을 옳게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의 중심방향을 정확히 포착하지 못한데 기인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생산직장에 있어 우리당초급당단체들이 국가계획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 있어 자기의 사업범위와 역활과 중점을 옳게 파악하였다면 나아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취급하며 그를 어떠한 방식으로써 해결할 것인가에 또한 사업조직의 정당성과 실제 성과가 규정되는 것이다. 즉 생산기업소에 있어 자재를 절약하고 로동능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한 과업으로써 제기되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공장 기업소의 지배인과 같은 방식으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다른 방식으로 할것인가를 옳게 구분하여야 할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에서 나타난 부분적 실례들은 아직도 적지않은 우리당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취급함에 있어 지배인이나 행정측 관리일꾼들과 같은 방식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한가지 경향은 일부 직장당단체들이 계획실행을 위한 당단체 협조사업을 오직 행정지시와 결정을 보충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지배인이나 행정간부들을 상대로 그들을 일상적으로 독려 추동하는데 국한시키고 있는 그것이다.

이러하여 간혹 이 문제들을 당회의들에서 토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과업에 대한 위임을 오직 행정적으로 사업을 책임진 당원인 지배인이나 생산부문간부 또는 로동부문간부들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데 그치며 전체당원들을 이 사업보장에 발동시키기 위한 아무런 구체적 대책과 분공들을 조

직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많은 당원들은 제기된 문제들을 각자 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심각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그들은 오직 이러한 문제들을 지배인이 제시하는 행정지시와 구별하지 못하고 지어 당회의에서 취급된 내용들을 잊어버리는 부분적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것이다.

례를 들어 사리원방직공장 당단체들은 직포의 질을 높이고 파사률을 적게 낼데 대한 대책과 이를 위하여 직기 자동장치를 설치할것을 작년 하반년 이래 벌써 수차 취급하고 이를 지배인과 생산부장에게 위임하여 두었으나 직포의 질과 파사률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조금도 향상된 실적을 보이지않고 있으며 많은 당원들이 당의 결정을 심각히 파악하지 못할뿐만아니라 부분적 일군들은 설치된 직기 자동장치를 작업에 불편하다고하여 이를 도리어 제거하여 버리는 경향까지 볼수 있었던 것이다.

직장당단체들이 생산을 협조함에 있어 행정적 방식으로 문제를 취급하려고 하는 다른 한가지 경향은 관리운영사업을 직접대행하려고 하는 그것이다. 당회의는 많은 경우에 행정회의와 구별없이 되며 당단체 일군들이 직접행정용무의 처리와 원료자재 알선등 사업에 분망하고 있는것이다.

이러하여 당위원회는 불필요한 잡무에 얽매이게 되어 자기의 사업을 연구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제기된 행정문제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행정간부들이 자기의 임무를 수행할데 대한 당적 책임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생산을 협조함에 있어 직장당단체들의 이러한 사업방식은 결국 어느것이나 다 정당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일상적인 군중정치사업을 통하여 행정사업을 당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탈리되는 것이다. 어느 생산기업소에 있어 지배인은 그 직장의 관리책임자로서 부과된 생산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물자를 구입하고 기계를 설치하며 로력을 채용하는등으로써 자기의 과업을 수행한다면 우리당단체들은 이와같은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지배인의 행정적 사업조직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방면에서 그 사업을 추진시켜야 할것이다.

즉 사회단체들의 광범한 조직적 력량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높은 생산능력들을 당의 동력으로써 이 사업에 동원하며 참가시켜 매개당원들로 하여금 각자의 부서에서 자기 맡은바 역활을 다하도록 할뿐만 아니라 우리당원들의 책임적 역활로 전체군중을 더욱 열성적으로 계획실행에 참가하도록 보장하여야 할것이다.

이상과 같이 생산직장내에서 사업하는 우리당단

체들이 범위와 한도를 규정하기 곤난한 자기의 사업령역에 대하여 옳게 인식하며 그에 대한 중점을 파악하고 문제의 취급방법을 정확히 내놓았다면 여기로부터 사업의 질적 성과에 대하여 보다더 자기의 높은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

생산의 량과 질을 높이고 원가를 저하시키며 로동능률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것은 자체생산경리의 높은 리념으로되는 것이며 해방이후 짧은 경제건설기간에 있어서나마 우리들은 진실로 이 부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되였다

그러나 지나간 동안의 우리의 사업경험은 동일한 계획숫자를 달성함에 있어서도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것과, 같은 조건밑에서 보다 높은 성과를 가져올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대하는 수준에서 보장하지 못하는 일부의 사실들이 있었다는것을 말하여 주고 있다。 뿐만아니라 부분적 관리운영 일군들중에는 자기의 사업을 쉽게하기 위하여 국가를 기만하려고 하며 재정규률과 경리규칙을 위반하는 일부 락후한 경향들까지도 있었던 것이다。

생산직장내 우리당단체들은 언제나 자기의 사업분야에 정통하여야 하며 사업의 표면적 현상에 만족할것이 아니라 내용을 분석할줄 알아야하며 사실의 리면까지 통찰함으로써 전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줄 알아야 할것이다。

지난해에 있어 강선제강소 지배인은 자기의 생산책임을 실행함에 있어 실지생산조직을 옳게 함으로써 이를 보장할 대신에 숫자상으로만 계획량을 충당하려고 수다한 부정사실들을 감행하였다。

그는 매四분기말에 이르러 생산계획을 달성하지 못할것이 명확히 나타날때에는 지금까지 공장에서 보유하고 있던 철근과 해방직후부터 모아둔 불합격품들을 생산숫자에 적당히 안배하여 생산실적에 포함시키었으며 장부를 개찬하고 임금을 지불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강선제강소의 생산실적은 기말에 이를때마다 급격한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례를들어 지난해 一·四분기의 一월과 二월분의 생산실적이 평균 九○%정도이었다면 三월에 이르러 一五○% 이상으로 비약하였으며 三·四분기에 있어 七월과 八월의 七○%정도의 실적이 九월에 一四六%로 장성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생산조건에 아무런 변동없이 그 실적에 이상과 같은 현격한 차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제강소 당단체들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하여 하등의 검토를 가하지 않고 그 원인과 조건들을 연구할 대신에 오직 자기공장의 생산책임량 달성의 표면적 현상에 만족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부분적 당단체들이 생산을 질적으로 보장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경향들은 비단 계획생산량을 보장하는데서 뿐만아니라 생산원가를 저하시키고 제품의 질을 보장하는 부문들에서도 볼수있는것이다。

사리원방직에 있어서는 직포룡직에서 개인생산능률은 작년에 비하여 一○八%로 제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원가는 도리어 상승되게 되었다。

이는 결국 작년도에 있어 목관(木管) 등 기타가 장부에 기입되어 있지않은 부족자재들을 원가에 포함시킴이 없이 무질서하게 사용한데 기인된것이었으나 당단채들은 지난해동안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아무러한 관심도 돌리지 못하고 원가의 변동을 한개의 우연한 사실로써 취급하고 있었다。

또 학포탄광에서는 운탄시설의 기본공사를 기초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검토없이 다리를 가설하였으므로 기초공사의 불완전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건설을 처음부터 다시 개조하지 않으면 안되게된 결과 거대한 국가재산을 탕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탄광당단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구명하려고도 하지않으며 당단체의 군중은 자기들이 기술을 모른다는 단순한 사실로써 문제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려고 하고있다。

물론 우리당단채들은 기술을 모를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일군들을 동원할수 있는 것이며 이 공사에 참가한 전체로동자들을 자기의 사업을 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발동시킬수는 있는것이다。

이러한 결함은 어 부문내 당단체들이 기술을 알지 못한데 기인된 것이 아니라 사업을 모르는데 기인되는것이며 군중을 파악하지 못한데 기인되는 것이다。

일부당단체들 중에서 볼수 있는 여러한 형식적 사업경향들은 신속히 퇴치되어야 할것이며 사업의 내용과 본질에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해명하여 이 사업을 보장함에 있어 충분한 자신으로써 전체군중들을 능률적으로 발동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생산직장내 당단체들이 이상의 원칙에 근거하여 자기의 사업을 원만히 전개하고 있다면 다음으로는 그 직장의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항상 전체적 립장에서 파악하도록 하며 지방적인 국부적 리해관계를 전국가적 리해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공화국북반부에 있어서는 산업이 국유화된 결과 산업시설의 결정적 부분이 국가와 전체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운영되고있다。

따라서 개별적 생산기업소의 국부적 리해문제들에 구애(拘礙)되어 있을수 없는 것이며 또 구애되어 있어

서는 아니될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생산기업소내 우리당단체들에서는 이 문제들을 옳게 취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생산의 유기적 련관성에 대하여 주의를 약하게 돌리고 있는 부분적 경향들을 본다. 례를들어 룡문탄광 당단체에서는 그 탄광에서 생산되는 B괴탄이 각제련공장들에서 긴절히 요구되고 있는 필수의 연료임에도 불구하고 B괴탄이 많이 나올수 있는 탄항은 작업조건이 불리하다고 하여 B괴탄이 적게 포함된 탄항부분에 주력함으로써 세련부문생산에 적지않은 지장을 주고 있었으나 당단체에서는 이 사실을 묵인하고 있었다. 또 본궁화학공장 당단체에서는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액체염소의 리윤채산이 다른 부산물 생산보다 불리할 뿐만아니라 생산에 대한 곤난성이 많다고 하여 이 부문의 생산책임완수에 높은 관심을 돌리지 않은 결과로 말미암아 갈주팔프와 청진방직의 생산계획 달성에 많은 타격을 주게하였던것이다.

부분적 생산기업소들의 협소한 국부적 견해는 유휴시재의 류용과 기술 및 기능들의 교류에 있어서도 볼수 있는 것이며 철도부문간의 수송계획 실행을 위한 화물련결에서도 부분적으로 동일한 경향들을 지적하게된다.

로동자들의 임금문제 및 생활보장을 위한 대책등에 있어서도 지난해동안 일부기업소내 당단체들은 옳지않은 방식으로써 해결하려고하던 사실들을 보게되였던것이나 일부 락후한 일군들 중에는 간혹 도급임금들의 무원칙한 과불에 대하여서도 그를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낫게하기 위하여 취한 방식인것 처럼 가장하려고 시도하고있다. 그러나 실지는 [illegible]로 이는 오늘 인민정권하에 있어, 로동자들을 위하는것이아니라 기만하는 것이며 자기개인의 리해와 낡은 위신을 사려고하는 그릇된 사상에서 출발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언제나 전체 국가의 리익을 높임으로써 근로인민들의 생활형편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르는 정당한 임금제도를 보장함으로써 국가생산을 높이고 로동자들의 수입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인민정권기관이 근로인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부단한 배려는 오늘 식량배급에 있어 높은 비률을 보장할수 있었으며 우리들이 지난해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 쌓아올린 경제건설의 전체적 성과는 로동자들에게 로동보호물자와 작업복들을 부상으로 지급하는 국가결정을 채택할수 있는 조건으로 되었다. 이와같이 직장당단체들은 자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부분과 전체에 대한 관계를 옳게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은 반드시 전체 국가적립장에서만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이상에 지적한바와 같이 오늘 우리당은 인민주권하에 있어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가장 핵심적 력량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건설등 그 어느부문의 사업을 물론하고 모두다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해결하지 않으면 아니될 무거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우리당의 사업성과는 전체인민들의 두터운 신뢰와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다.

특히 생산직장내에서 사업하는 우리당단체들은 자기의 맡은바 사명의 중대성을 옳게 파악하고 항상 당대열을 더욱 훈련 강화하며 고착되고 결열된 선진일군들로써 당의 력량을 부단히 보장하고 군중과의 련계를 일층 긴밀히 하여 그들속에 우리당의 영향을 더욱 깊이 침투시켜야 할것이다.

이리하여 복잡한 환경에 있어서도 능히 사업의 종점과 원칙을 옳게 판단하며 반동도배들의 비렬한 음모가 숨어들 여지를 철저히 봉쇄하고 단련될 광렬한 우리당의 동력으로써 전체 군중들을 부강한 민주조국건설의 장엄한 투쟁에 더욱 조직적으로 동원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에 대하여

—레닌전기(傳記)를 광범히 연구하자—

김 두 명

一九四〇년에 맑쓰—엥겔쓰—레닌연구소(모쓰크바)에서 출판한「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가 우리 북조선에서 작년말에 번역 출판되었다。주지하는바 레닌은 一八七〇년 四월二十二일에 탄생하여 一九二四년 一월二十一일, 五十四세를 一기로 그의 심장의 고동을 멈추었다。

볼쉐위끼당의 창조자이며 사회주의국가의 건설자이며 근로대중의 수령인 울라지미르·일리츠·레닌의 전기(傳記)를 연구하는것은 근로대중의 민주주의적 교양, 특히 우리로동당원의 사상 정치 교양을 위한 사업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레닌의 전기「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에는 레닌의 형상이 체계화 되었다。

전부十三장으로 편성된 이 전기는 레닌의 탄생이후 가정적 사회적환경과 레닌의 혁명적활동의 시초부터 당의 창건을 위한투쟁, 당을 강화하는투쟁, 세개의 혁명에 있어서의 레닌의 영웅적 투쟁을 뚜렷이 묘사하였으며 세계최초의 사회주의국가건설자로서의 레닌의 면모를 약여하게 재현하였다。

「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에는 또한 국제공산당의 창건자이며 지도자로서의, 전세계 근로인민대중, 피압박인민대중의 수령으로서의 레닌의 형상이 여실히 그려졌다。

이 전기는 레닌의 위대한 일생을 총화하였다。레닌은 그의 일생을 지주—자본가들의 압박과 착취로부터 근로대중을 해방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사업에 바치었다。

레닌은 짜리정부의 끊임없는 박해와 류형과 망명생활의 고난한 환경과 끝없는 험로에서 백절불굴의 용기와 확고부동의 신념으로 그의 전생애를 오로지 포악한 전제제도 타도에 바쳤으며 사회주의 쏘베트동맹의 건설에 바쳤으며 전세계 피압박계급 및 피압박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바쳤다。

레닌은 부패하고 타락한 짜리제도와의 격렬한

투쟁을 통하여,「인민파」「경제주의」「멘쉐위끼」기타의 맑쓰주의 악변자들 일체 로동계급의 적들과의 무자비한 투쟁을 통하여 一九〇五년 혁명과 一九一七년二월혁명을 거쳐서 一九一七년十월 위대한 사회주의혁명을 승리로 인도함으로써 드디어 지구의 六분의一의 광대한 지역에 유사이래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를 창건하여 억압과 착취에 신음하며 암흑에서 방황하는 전세계 근로대중과 피압박인민앞에 광명의 길을 열어놓았으며 전인류의 진정한 구성으로써 무한한 흠모를 받게되었다。

전인류의 위대한 수령인 레닌이 어떠한 가정에서 태여났으며 어떻게 학업을 하였는가, 젊은시절은 어떻게 학구와 혁명적활동의 시초를 닦으며 지내었으며 류형과 투옥과 망명의 고난속에서 어떻게 혁명적 활동을 조직하였는가, 불후(不朽)의 학설과 불멸의 업적을 어떻게 남기였는가 하는것이 이 전기에는 명료히 기술되었다。

× × ×

레닌은 력사상에 가장 위대한 활동가이다。전세계근로대중의 위대한 해방운동사에서 맑쓰이후 처음으로 레닌같은 거인이 출현하였던것이다。근로대중속에있는 모든 위대하고 진실한 영웅적힘, 용감하고 강철같고 만난을 극복하는 지력(智力)과의 지, 예속과 압박과 착취를 미워하는 열화같은 증오심, 태산이라도 움직이는 혁명적열성, 대중의 창조력에대한 무한한 신념, 위대한 조직적 사상적 영재, 이 모든것이 레닌에게서 훌륭하게 재현되었다。레닌의 이름은 동서양을 물론하고 새세기의 상징으로 되었다。

세계에는 유사이래 지직과 재덕과 정치로써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명을 촉진시킨 과학자 정치가들이 많이 있었다。그러나 그들의 업적이 제아무리 찬란하다 하더라도 레닌의 위훈과는 도저히 비교할수없다。

혁명적투쟁으로 일관된 레닌의 생애는 자본주의 철쇄밑에서 허덕이는 피압박인민들을 착취와 압박과 기아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고귀하고 영예스러운 위업에 남김없이 바치였다。

레닌은 불공평하고 모순이 가득찬 사회제도를 타파하고 인류력사에서 가장 리상적·사회인 근로대중의 행복된 생활을 구현하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과감한 투쟁을 계속하였다。

인류사회의 발전법칙을 연구하고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와 사회주의의 세계적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추시한 맑쓰주의의 기발을 레닌은 높이 들고 새환경 제국주의시대와 프로레타리아 혁명시기에

맑쓰주의를 일층 발전시켰다. 레닌은, 자본주의의 최고계단이며 썩어져가는 계단인 제국주의를 분석함으로써 자본주의의 멸망의 불가피성과 사회주의 승리의 필연성을 더한층 립증하였으며 전쟁과 프로레타리아독재에대한 리론을 발전시켰으며 프로레타리아트의 력사적 사명을 뚜렷하게 해명하였다.

레닌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길을 명시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사상은 착취자들을 반대하는 수억만 인민의 투쟁에 명확한 길을 가리켜주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전세계 피압박인민의 해방과 행복의 길을 가리켜주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목표한 행로의 지침이 되었으며 기발이되었다.

세계의 근로인민과 전체 피압박인민은 레닌의 이름을 투쟁과 승리의 상징으로 삼고 그가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다. 레닌을 알지못하거나 그의 서적을 연구하지않거나 그가 창조한 불쉐위끼당을 모르는 곳은 지구상 어떠한 궁벽한 곳에서도 찾을수없다.

「레닌의 생활과 활동은 그가 창건자로되는 위대하고 영웅적인 불쉐위끼당의 활동과 일치된다」라고 이 전기에는 기록되어있다.

그러므로 레닌의 전기(傳記)는 영웅적 불쉐위끼당의 전기이다。

일찌기 쓰딸린은 二十세기초에 레닌을 우리당의 심오한 진수(眞髓)와 긴박한 요구를 가장 깊이 리해하고있는 최고형(型)의 지도자라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투쟁에서 두려움을 모르고 당을 로씨야 혁명운동의 거치른 길로 자신있게 용감하게 끌고 나가는 독수리라고 그때에 쓰딸린은 썼다。

레닌은 수억만 인민의 위대한 정치적 수령이며 새형태의 당—불쉐위끼당의 창조자이며, 다민족 쏘베트국가의 건설자이며, 一四개국의 련합적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영예롭게 고수한 장수이며, 二〇세기의 위대한 사상가이며, 위대한 학자이다。

레닌은 그가 창조한 불쉐위끼당에 의하여 이 모든 위업을 달성하였다。 레닌은 불쉐위끼당의 기초를 지었을뿐아니라 그를 건설하였고 로동계급의 적을 반대하는 투쟁에 그를 단련하였다。

레닌은 부단히 사회주의를 로동운동과 밀접히 결합하여 자본주의와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근로대중의 투쟁을 제고하면서 직업적 혁명간부들을 교양하였다。

레닌은 당을 와해하고 약화하는 온갖 기회주의 조류에 대하여 백방으로 견결한 투쟁을 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트를 사회주의혁명에 인도할수있는 혁명적 맑쓰주의당을 창건하였다。

「레닌은 二十五년동안 불쉐위끼당을 양육하였으며 세계에서 로동자의 당중에서 가장 강고하고 가장 단련된 당으로 그를 육성하였다」(쓰딸린)

레닌과함께 쓰딸린이 불쉐위끼당을 창건하고 강화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영명한 지도의 성과로써 불쉐위끼당은 一九一七년에 력사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혁명을 승리적으로 실현하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였다.

「땅을 피로 물들이며 인류를 기아와 빈궁에 이르게하는 그들을 마치 죽기전의 괴수(怪獸)놈이 격노하나 드디어 죽고마는것 처럼 주검의 나라로 기어코 가고마는 자본주의를 우리가 첫번으로 지구의 한구석에서 타도하였기때문에 우리는 자랑할수있으며 자기를 행복하다고 얼마든지 인정할수있다」고 레닌이 말하였다.

「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는 불쉐위끼당의 창조자인 레닌의 단순하고 겸손하고 열성적이며 의지적이고 불요불굴한 형상을 기록하였으며 대중의 새로운 수령이며 군중과 련결을 밀접히 취하는 지도자인 레닌의 영웅전이다。 이 전기에는 인류의 지식과 문화의 보물을 전부 소유하였으며 프로레타리아 혁명의 백전백승의 무기인 혁명적 맑쓰주의를 완전무결하게 소유하였으며 그것을 모든 기회주의적 악변에서 고수하였으며 그것을 새 시대의 환경에 의하여 발전시킨 레닌의 형상이 기록되었다。

레닌은 새세기에있어서 자기의 경험에 의하여 맑쓰주의의 사상적 부(富)를 창조적으로 증가시켰다。 그를 높은 새계단에 올려세웠다。 그는 맑쓰—레닌주의의 창조자이다。

레닌의 학설은 근로자들과 전체 피압박 인민의 해방의 길을 밝혀주는 등대이며 기치이다。

레닌의 기치아래 불쉐위끼당은 전제주의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 로동자와 농민을 궐기시켰으며 자본의 석색을 돌격하여 위대한 승리를 얻었다。

레닌의 기발밑에서 쏘베트인민은 공민전쟁시기에 백파와 외국 무력간섭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방어하였다.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전선에서 쏘베트 인민들의 승리는 레닌의 이름과 관련된다. 레닌의 이름은 쏘베트국가의 창건 및 강화와 사회주의 건설에대한 위대한 계획실현과 관련되었다. 쏘베트 인민은 레닌의 이름으로써 쓰딸린의 지도하에 앞길에 놓인 모든 장애를 극복하며 사회주의의 모든 적들을 숙청하면서 광명한 공산주의로 향하여나간다.

오늘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앞길에는 레닌의 기발이 휘날리고있다。 그것은 전세계 피압박인민의 해방과 자유와 평화는 오직 레닌의 기발에 의하여

서만 성취될수 있기 때문이다。

레닌의 생애와 활동과 저작은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류의 앞길을 구체적으로 가리켜준다。

× × ×

「우리의 수령 일리츠를 기억하며 경애하며 연구하라」「일리츠처럼 새생활을 건설하며 새풍습、새문화를 건설하라」고 쓰딸린은 말하였다。

또한 쓰딸린은 레닌에게서 충고를 받으며 작고 큰문제를 해결할때에 그에 의거하라고 말하였다。레닌이 항상 말하던바 「맑쓰와 상론하여 보아야지」 하던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레닌과 상론하며 쓰딸린과 물어보아야 할것이다。

레닌형(型)의 활동가에 대하여 一九三七년 선거전 연설에서 쓰딸린은 말하였다。

「…인민은 자기의 대의원에게서 다음것을 요구하여야된다。레닌형(型)의 정치가는 자기의 부서를 지킬것이며 명랑하고 정확한 레닌과 같은 정치가가 될것이며 바로 레닌이 그랬던것처럼 싸움에 있어서는 두려워 할줄 모르며 인민의 적에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서가 없어야 할것이며 사태가 복잡하여지며 눈앞에 어떤 위험이 나타나기 시작했을때에 일체의 당황이나 당황한 태도를 가지지 말것이며 모든 방면에서 방향을 결정할것과 모든 가(加)할것과 감(減)할것등의 온갖 료량(料量)을 요하는 복잡한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곤난하고 추조할때에 바로 레닌이 그랬던것처럼 성실하고 정직할 것이며 그들도 또한 바로 레닌이 인민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그들의 인민을 사랑할것이다」

맑쓰—레닌주의를 지도리론으로 하는 우리당의 당원들이 레닌의 영명한 학설에 의거할뿐만 아니라 그의 위업과 불가항력의 위지、인민에 대한 사랑을 모방하여야 할것은 물론이다。만약 우리들이 레닌의 위업을본받음에 성실하다면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우리들이 오늘 전체근로대중을 맑쓰 레닌주의로 교양하며 레닌주의적 방법으로 사업할것을 훈련하는것은 승리를 위한 긴요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정치교양사업에 있어서 위대한 레닌의 학설을 배울뿐만 아니라 그의 위대한 형상을 모방하며、레닌처럼 사업하며、레닌처럼 배우며、레닌처럼 살것은 근로대중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과업이다。

「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에는 레닌을 모방하기 위한 자료가 충만하다。

레닌처럼 일한다 함은 우리민주조국과 우리인민을 충심으로 사랑하며 열렬한 애국자가되며 열성을 다하여 조국과 인민의 융성을 위하여 노력하며 원쑤로부터 조국을 방어함에 준비되어 있으며 원쑤에게 대하여 무자비한 자가 되는것을 의미한다

레닌을 모방하며 모든것에 있어서 그를 본받는다함은 민주건설의 용감한 전사가 되며、혁신자가 되며、모든 완고와 동요와 구습과 침체를 타파하여버린 자유스러운 투사가되어 난관을 능히 돌파하며 주저를 버리고 용감하게 창발적으로 앞으로 돌진하는 혁명적 결단성과 인내성과 완강성과 조직성을 가져야 할것을 말하는것이다。

쓰딸린이 말한바와같이 솔라브적 용감성과 아메리카적 실무성은 이것을 말하는것이다。

레닌을 모방한다함은 그의 단순성 그의 정직하고 공명정대하고 청렴하고 확신있는 태도로써 앞을 볼줄알며 사업에 대하여 깊은 확신과 명쾌한 판단과 전체를 파악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준비된 일군이 될것을 말하는 것이다。

레닌을 모방한다 함은 그의 혁명적 정열과 백절불굴의 투지와 부단한 정력과 학구에 있어서 절륜(絶倫)의 노력、사업에 있어서 선구자이며 열렬하고 적극적인 투사가 되어야 할것을 말한다。

레닌처럼 일하고 레닌처럼 배우고 레닌처럼 산다면 우리인민의 국토완정을 위한투쟁、경제건설을 위한투쟁、정치문화·향상을 위한투쟁의 승리는 결정적인것이다。

볼쉐위끼당은 레닌의 영명한 학설과 위력있고 불가항력의 의지、인민에대한 사랑을 물려 받았으며 레닌과 레닌주의의 위업에 성실하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승리하였다。

레닌의 사상은 쏘베트국가와 볼쉐위끼당과 모든 공산주의당들에 권화(權化)되었다。레닌의 사상은 레닌의 위업의 진실한 계승자이며 위대한 전우인 쓰딸린의 로작과 활동에 체현되었다。레닌은 쏘련의 근로자들과 전세계 근로자들의 정신과 심장에 살아있다。

「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는 다음과같이 결론하였다。 쏘베트인민은 「레닌의 가치를 높이들고 위대한 쓰딸린의 지도아래에서 외국 강도무리들의 침범으로부터 사회주의 혁명의 전파와 사회주의제도와 사회주의문화를 피로써 고수하였다。 쏘베트영웅의 후진들은 만능(萬能)의 레닌적사상에서 생장하였으며 교양되였고 그의 위대한 정신으로 관통되었다。조국에 헌신적으로 충성을 바친 몇백만의 쏘베트인민들의 아들과 딸들은 조국전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위업과 영웅적 전쟁의 공훈을 세우면서 그들은 레닌의 위대한 형상을 자기의 심장에 깊이 새기었다。레닌의 위업은 백전백승한다。」

그러므로 우리당원들이 대중의 지도자가되며 조직자가 되어 우리국가의 선두자적 령도적역할을 하려면 우리당원자체가 반드시 항상 위대한

레닌의 학설을 심오하게 연구하며 그를 창조적으로 획득하며 거기에 자기의 경험을 타산하면서 자기를 완성할것이다. 우리당원은 일상적으로 자기의 안계를 넓히며 더욱 유식하며 문명된 사람이 되어야할 의무가있다.

근로인민을 새로운 레닌적 성격과 레닌적교양으로써 배양하는것은 새형태의 인간을 우리에게 양성함으로써 낡은 악습과 낡은 제도에의 미련과 주저를 타파하고 새사회건설에 인민을 돌진시키는 커다란 힘으로 되는것이며 조국건설의 위력을 양성하는것이다.

이러한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위대한 레닌의 형상을 거울로 삼아야 할것이다.

전체당원과 근로인민들은 레닌—쓰딸린의 현명적 생활력사 열렬한 활동력사를 깊이 연구하면서 그들 전기에서 그들이 인민에게 복무한 산모범을 보게될것이다. 그들의 생활과 활동에서 선전당의 위대한 경험이 체현되었으며 맑쓰주의과학의 발전과 정교(精巧)한 적용이 체현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의 전기에서 우리는 당의 위대한 정치적경험의 원천 레닌—쓰딸린당의 사상의 원천 현명성의 원천을 보게된다.

여기에서 우리당원들과 전체근로인민이 레닌—쓰딸린전기를 연구하여야할 필요성이 생기는것이며

열정이 생기는것이며 위대한 수령들을 모범받아 조국건설에 앞으로 위훈을 세울 욕망이 생기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수령들의 전기를 연구하는것은 우리간부들과 광범한 대중들을 고상한 새성격으로 교양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번역출판된 「레닌의 생애와 활동의 략사」는 레닌의 전기를 연구함에 첩경(捷徑)이 될것이다.

우리들이 만일 레닌전기와 쓰딸린전기를 철저히 연구한 기초위에 맑쓰—레닌주의 학설을 연구한다면 그는 반드시 한층 높은 수준에서 더많은 효과를 거둘것이다. 또한 모든 강의와 리론강연회등에서 수령들의 전기를 활용한다면 청강자의 정치교양수준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더한층 효과적으로 얻을것이다. 그러므로 레닌의 전기는 쓰딸린의 전기와 아울러 앞으로 더욱 광범한 근로대중에게 연구대상으로 되어야할것이다. 근로대중은 레닌—쓰딸린전기를 통하여 민주조국 건설을 위한 위대한 투쟁에서, 대담한 투쟁에서 원쑤를 타승(打勝)할 부동의 신념을 섭취할것이다.

백전백승의 레닌의 이름과 위업은 전세계 자유애호인민을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위한 투쟁에서 승리로 이끄는 기발이다.

레닌의 이름과 그의 위업과 그의 학설은 천추만대로 살것이다.

참 고 자 료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의 사상통일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신 염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위대한 세계사적 승리를 얻었다。로씨야인민들은 그의 지도밑에서 프로레타리아혁명을 완성하였고 사회주의적 사회를 건설하였고 공산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향하여 확신있게 나가고있다。볼쉐위끼당의 힘의 원천 즉 그의 세계사적 제승리의 원천은 그가 기회주의자들과 로동계급의모든 원쑤들에 대하여 타협 없는 레닌—쓰딸린적 새 형태의 당이라는데에 있다。볼쉐위끼당—이는 사회주의혁명과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당이다。

그의 프로그람과 전술과 조직적제원칙은 맑쓰—레닌주의의 반석같은 기초위에 형성되고있다。레닌과 쓰딸린은 볼쉐위끼당을 창건하는데 있어서 최초부터、그의 사상통일을 위하여 싸웠다。볼쉐위끼당의 이데올로기는 맑쓰—레닌주의및 사회발전 제법칙과 프로레타리아혁명발전의 제법칙과 사회주의적 건설의 제법칙 공산주의의 승리에 관한 과학으로 이루어있다。반레닌주의적 각종 경향들을 반대하는 가혹한 투쟁속에서 볼쉐위끼당의 이데올로기는 련마되었고 발전되었고 동시에 그의 사상통일이 단련되었다。

볼쉐위끼들은 자기들의 사상적 견해들을 고수하고 옹호하면서 모든 기회주의적 반레닌적 그루빠들이 지니고있던 부르죠아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적극적 공격을 언제나 수행하였다。볼쉐위끼들은 로동운동에 부르죠아 이데올로기의 침투를 막았고 프로레타리아적 사회주의적 사상의 승리를 보장하였다。

당내부적 모순을 투쟁에 의하여 극복하는데 기초하여 당이 발전하고 공고화 한다는것—이것이 프로레타리아당의 발전법칙이다。볼쉐위끼당의 력사와 모든 반레닌적 그루빠와 사조에대한 그의 투쟁은 당내부의 모순의 투쟁사이며 이들 모순을 극복하고 당이 점차적으로 공고화한 력사이다。이 모순들은 당면정책에대한 부분적 문제가 아니었고 로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의 제 목적과 사회주의를위한 투쟁의 수단들과 방법들에 대하여 깊은 원칙적 문제들에 관한것이었다。혁명운동의 이 근본적 문제들의 해결에는 어떤『중간』로선도 있을수없었다。

「원칙적 성격을 가진 문제들에 있어서는「중간」로선이 없으며 또한 있을수 없었다。—하고 쓰딸린은 말한다。—이런 혹은 저런 원칙들은 당사업의 기초에 놓여 있어야한다。원칙적 문제들에 관한「중간」로선은 머리를 더렵히는「로선」、의견차이를 질식시키는「로선」、당을 사상적으로 변질시키는「로선」、당의 사상적 사멸의「로선」 이다」

(쓰딸린전집 제九권 四폐지)

서구 사회민주당들이 이러한 모순들을 적발하지 않았고 또한 적발하려고도 하지않고 당원대중의 눈앞에서 그 모순들을 량심적으로 솔직하게 극복하려하지않고 있다는 사실은 서구라파 사회민주주의의 몰타과 제二인터나쇼날당들의 사상적 빈궁과 그 당들의 변질의 원인의 하나이라고 쓰딸린은 지적하고있었다。

볼쉐위끼들은 다른길로 발전하였다。볼쉐위끼당은 처음부터 로동계급과 인연이 멀고 적대적인 사회적 그루빠와 계급들의 리익을 표현하면서 그 대렬속에 뚫고 들어온 기회주의적 요소들을 자체내에서 숙청하는 것으로써 강화되었다。「만일 우리당이 자체내에 당내통일과 자기 대렬의 미증유의 단결을 만들수가 있었다면—하고 쓰딸린은 썼다。—이것은 우선 그가 기회주의의 부정(不淨)을 제때에 숙청할수가 있었고 그가 청산주의자들과 멘쉐위끼들을 당에서 구출할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프로레타리아당들의 발전과 공고화의 길은 기회주의자와 개량주의자 사회제국주의자와 사회배외주의자 사회애국주의자와 사회평화주의자를 당대렬에서 숙청하는것을 통해서 놓여있다。당은 기회주의적 요소를 자체내에서 숙청하는 것으로써 공고화된다」

(이·쓰딸린「레닌주의의 제문제」七五폐지)

이것이 볼쉐위끼당의 발전의 길이다。로씨야내의 맑쓰주의단체들의 대렬들에 있어서의 최초의 타협주의적 기회주의적 그루빠는「경제주의자」들이였다。로씨야「경제주의자」들은 국제적 기회주의의 일종이었고 서구라파 수정주의와 베른슈타인주의와 합쳐졌다。그들은 혁명리론의 역활과 의의를 저하시켰으며 혁명정책과 혁명조직의 필요성을 거부하였고 로동운동에 있어서의 지도적 력량으로서의 당의 역활을 저하시켰다。「경제주의자」들과의 의견차이들은 심각하고 원칙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레닌과 쓰딸린은「경제주의자」들과의 사상적인 경계를 갈라놓음이 없이는 로씨야에 중앙집권적인 맑쓰주의적 통일당을 창립할수없다는 견해를 가지고「경

제주의자」들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레닌은 「통일을 실행하기전에 그리고 통일을 하기위하여서는 먼저 결정적으로 또 확실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과업을 내세웠다。(「레닌전집」제四권 三七八페지)

레닌의 이 견지는 로씨야 맑쓰주의자들의 대렬속에 있어서의 형식적인 통일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상적 원칙들을 양도할수 있다고 생각한 타협적 사상을 가진 소수분자들측에서 반대를 받았다。그러나 레닌은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어떠한 양보에 대하여서도 반대하였었다。그는 「경제주의자」들의 기회주의를 결정적으로 폭로하였다。

「경제주의자」들과의 원칙적인 집요한 투쟁에서 승리한것은 레닌의 「이쓰크라」의 혁명적 로선이였고 개가를 올린것은 혁명적 맑쓰주의의 제원칙이었다。

「경제주의」의 계속은 멘쉐위즘이었다。멘쉐위끼들의 기회주의는 처음에는 조직문제면에서 나타났다。그들은 레닌 형(型)의 전투적인 혁명적당의 창건을 반대하여 나섰다。그들은 몽롱하고 비조직적이고 추수적(追隨的)인 당을 지지하였다。멘쉐위끼들은 당시 자기들의 대렬속에 기회주의자들을 용인하였고 기회주의자들과 평화적으로 사이좋게 지낸 독일 또는 불란서 사회민주당들과 같은 당을 로씨야에 가지고 싶어 하였다。서구라파 사회민주당들은 당시「맑쓰주의적분자와 기회주의적분자、혁명의 벗과 혁명의 적、당성옹호자와 당성반대자와의 혼합물이며 잡탕인바 즉 전자가 후자에게 점차적으로 사상상 순응하며 전자가 후자에게 점차적으로 실제상 복종하는 그런 잡탕」이었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二四一—二四二)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二차대회시기의 조직문제에 관한 심각한 의견차이에 의하여 로씨야사회민주당원들이 볼쉐위끼들과 멘쉐위끼들의 두 정치적그루빠로 분리되었다。

조직문제들에 있어서의 기회주의를 반대하는 레닌을 비롯한 볼쉐위끼들의 투쟁은 새형태의 당으로서 로씨야내의 프로레타리아당의 건설의 기초에 놓였던 레닌적 조직원칙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볼쉐위끼들과 멘쉐위끼들사이에 가장 커다란 의견차이가 일어난것은 一九〇五년—一九〇七년의 제一차 로씨야혁명 시기였었다。레닌과 볼쉐위끼들은 혁명에 있어서 지도적역할은 프로레타리아트가 하면서 농민과 로동계급은 동맹하여야 한다는 리론을 고수하였다。볼쉐위끼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적 혁명으로부터 농촌의 빈농측의 지지를 보장하면서 사회주의적 혁명에로 즉시 이행시키도록 프로레타리아와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를 수립할데대

한 사업을 해결하였었다。멘쉐위끼들은 부르죠아—민주주의적 혁명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령도권에 대한 리론을 배격하였고 로동계급과 농민과의 동맹정책대신에 자유주의적 부르죠아와의 타협정책을 실시하며 혁명의 지도적 역할을 그에게 위임하였다。이는 심각한 의견차이였었다。로씨야혁명의 운명은 이 문제들의 해결에 달렸었다。멘쉐위끼들과의 집요하고 원칙적인 투쟁에 있어서 볼쉐위끼적 정치로선이 승리하였다。

로씨야에서의 쓰똘리삔반동기에 멘쉐위끼들은 그 이전에 로씨야에 프로레타리아당에 의하여 조성되었던 모든것을 거부하고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 비합법적당의 존속할 필요성조차 거부함으로써·수치스럽게도 로골적인 청산주의자들의 진지로 넘어갔던것이다。바로 이때 一九〇八년에 당내에는「소환주의자들」의 소수 그루빠가 나타났다。그들은 국회로부터 사회민주당 출신의 대의원들을 소환할것을 요구하였고 자기들의 기회주의를「좌익적」문구로 가장하면서 직맹들과 다른 로동자조직들에서 사업할것을 결정적으로 거부하였다。이는 짜리제도의 환경속에서의 혁명사업을 위한 합법적 단체들을 리용할 가능성을 없새려고·지향한「개작(改作)한 청산주의자들」이었다。뜨로쯔끼와 뜨로쯔끼스트들도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청산주의적 견지를 취하였다。레닌과 볼쉐위끼들은 청산주의와 소환주의와 뜨로쯔끼주의를 반대하는 결정적인 투쟁을 수행하면서 비합법적 당을 고수하고 공고히하고 로동자대중과의 그의 련락을 확장하였다。전제시대의 혁명사업에 대한 곤난은 아주 컸으나 볼쉐위끼들은 그 곤난을 극복할수가 있었다。

청산주의자들과 소환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볼쉐위끼들의 투쟁은 가혹한 성격을 띠우고 있었다。그 투쟁은 기회주의자들과 멘쉐위끼들이 一九一二년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프라그대표회의 결정에 의하여 프로레타리아당에서 추방된것으로써 완성되었다。프라그당대표회의는 멘쉐위끼들을 추방하고 볼쉐위끼당의 자주적 존재를 형성하였다。이 사건은 로씨야 혁명운동의 장래발전에 대하여 가장 큰 의의를 가진것이었다。

「만일 볼쉐위끼들이 로동운동의 배반자、타협파 멘쉐위끼들을 당으로부터 추방하지 않았다면 프로레타리아당은 一九一七년에 대중을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전취에까지 궐기시키지 못하였을 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二五〇페지)

로씨야 프로레타리아당에 대하여 가장 복잡한 시기는 一九一七년 즉 사회주의十월혁명의 준비와 실시의 시기였었다。레닌과 쓰딸린을 수반으로하는 볼쉐위끼당은 당시 사회주의적 혁명을 전개하는

로선에 있어서 중요장애물이던 소부르죠아적 타협
과를 당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정적 투쟁을 수행
하였었다。동시에 로씨야및 국제 부르죠아지의 세
력을 과대평가하였고 프로레타리아의 력량을 과소
평가한 까메네브와 지노비예브와 리꼬브와 같은 교
립자인 투항자들을 자기 대렬속에서 분쇄할 필요
가 있었다。이 투항자들은 로씨야에서는 프로레타
리아가 정권을 쟁취하고 그것을 유지할수 없다고
성명하였다。당은 이 탈락자(脫落者)들과 혁명의
반역자들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락인을 찍었다。위
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은 그들이 없이 또한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성공하였었다。

공산당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확립함으로써 로씨
야에서 지도적 당이되었다。

본질에 있어서 당내의 멘쉐위즘의 대리인이며 그
의 계승자이였고 로동계급과 당내의 부르죠아적 영
향의 인입자의 역활을한 뜨로쯔끼스트들과 부하린
파들과·같은 분자들이 가면을 쓰고 당 대렬에
뚫고들어가기 시작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을 수반으로하는 볼쉐위끼당은 당
에 대한 기회주의자들의 영향을 가로막고 그들을
당으로부터 구축하면서 그들을 박대하는 무자미한
투쟁을 끊임없이 수행하였다。뜨로쯔끼스트들과 지
노비예브파와·부하린파들을 반대하는 특히 날카로
운 투쟁이 전개된것은 인민경제 부흥시기와 쏘베트국
가내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적 건설의 초기였었다。

사회주의에로의 전진에는 국내 계급투쟁의 첨예화
와 당내투쟁의 첨예화가 동반되었었다。이 투쟁의
가장 중요한 종결은 부농의 반항에 대한 진압、반
쏘베트적 블럭으로서의 뜨로쯔끼 지노비예브적 투
항자 블럭의 폭로와 부농의 대리인으로서의 우익
투항자들의 폭로、당내에서 뜨로쯔끼스트들의 구축、
뜨로쯔끼스트들과 우경 기회주의자들의 견해가 볼
쉐위끼당원의 그것과 상용되지 않는다는것을 인정
하는것들이였다。그리하여 당은 기회주의적 경향과
투항자적 그루빠들과의 투쟁에서 레닌—쓰딸린적
자기의 사상적 조직적 통일을 단련하였다。

볼쉐위끼당의 사상적 통일은 언제나 발전되였고
완성된 맑쓰—레닌주의적 학설에 기초하여 작성되
였었다。

모든 기회주의자들은 이 리론을 직접거부함으로
써든가 혹은 그 개개의 명제들을 죽은 도그마(教
理)로 만듦으로써 이 학설의 의의를 저하시키는
것이 특징이었다。기회주의는 이미 친부하여진 맑
쓰주의의 개개의 명제들에 매어달려 그것을 도그
마로 만들고 그로써 맑쓰주의의 장래발전을 제지
하며 동시에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의 발전을
제지하려는 기도까지도 가끔하였다。

맑쓰주의의 리론은 레닌과 쓰딸린의 저작들에서 계
승발전되었다。이 리론은 볼쉐위끼당의 수중의 가
장 위대한 사상적 재산이 되었다。

「만일 볼쉐위끼당의 전위적 인재들이 맑쓰주의의
리론에 전통하지 않았다면、만일 그들이 이 리론을
행동에의 지침으로 볼줄 몰랐다면、만일 그들이 맑쓰
주의리론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새경험에 의
하여 풍부히하며 그것을 전진시킬줄 몰랐다면、볼쉐
위끼당은 一九一七년 十월에 능히 승리하지못하였을
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六二二폐지)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주의의 리론을 혁명적 프
로레타리아트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만들었다。

아직 로씨야 로동운동의 창시기에 있어서 레닌
은 만일 혁명적리론이없으면 강력한 사회주의적 당
이있을수 없다는명제를 내세웠다。레닌은 로동계급
의 생활과 투쟁의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들의 변
화에 적응하여 로씨야 맑쓰주의자들을 위한 자주
적인 리론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우리는 맑
쓰의 리론을—하고 그는 썼다—완성되고 불가침한
그 어떤것으로는 전혀 보지않는다。우리는 그와는
반대로 그리론은 사회주의자들이 실생활에서 락후
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모든방향으로 추진시켜야할
그 과학에 초석을 놓은것에 지나지 않는것
이라고 확신하고있다」(레닌전집 제二권 四九二폐
지)

레닌과 쓰딸린은 맑쓰주의의 리론의 자주적 연
구의 찬란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모든 부르죠아를 반대하는 고립된 프로레타리아
트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주민들의 반(半)프로레
타리아적 요소들을 동맹자로 가진、해게모니야를 가
진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하여 실현되고 레닌과 쓰
딸린에 의하여 작성된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새 리
론은 당의 이데올로기적의 풍요에 있어서 막대한 의
의를 가지였었다。사회주의혁명에 관한 이 리론
은 시초에는 임의(任意)의 한 나라에서 사회주
의승리의 가능성에 관한 레닌의 천재적 발견으로
써 완성되었다。

외국기회주의자들은 당시 맑쓰와 엥겔쓰의 낡은
공식에 얽매여 사회주의는 한 나라에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것을 확인하기 시작하였던것이다。그들은
맑쓰주의에서 리탈하였다는 점에서 레닌을 비난
하였다。그러나 맑쓰주의의 리론을 잘 소유하고 맑
쓰주의의 리론을 앞으로 추진시키고 그 리론을 프
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새 경험으로 풍부하게
한 진정한 맑쓰주의자는 레닌이였다。레닌 사업의
위대한 계승자 쓰딸린은 사회주의의 건설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의 민족적 및 국제적 과업의 통일
과 불리성(不離性)을 립증(立證)하고 한나라에

있어서의 사회주의 승리의 가능성에대한 리론을 더 발전시켰다。프로레타리아독재 국가의 새롭고 높은 형태를 대표하는 쏘베트정권형태에 관한 레닌의 발명은 당과 혁명에 대하여 바로 이런 의의를 가진것이였다。

각국의 맑쓰주의자들은 이전 의회제 민주주의적 공화국이야말로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이행(移行)하는 시기에서 사회의 정치적조직의 가장 적절한 형태라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一九〇五년의 로씨야 혁명과 특히 一九一七년 二월혁명은 로동자와 농민의 대의원 쏘베트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조직을 내세웠다。 레닌은 로씨야의 두개 혁명의 경험의 연구에 기초하고 맑쓰주의리론에서 출발하여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가장 훌륭한 정치형태는 의회제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고 쏘베트 공화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맑쓰주의리론을 옳게 해득한 진정한 맑쓰주의자는 레닌이었던바 그 리유는 그야말로 맑쓰주의리론을 앞으로 추진시켰고 그것을 프로레타리아트의•계급투쟁의 새경험으로 풍부케하였기 때문이었다。 쓰딸린은 레닌과함께 맑쓰—레닌의 리론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영구히 생동하는 정신적인 무기로서 발전시켰고 발전시키고있다。「레닌주의는 맑쓰주의의 앞으로의 발전인것이며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의 새로운 조건하에서의 맑쓰주의이며 제국주의와 프로레타리아혁명시대의 맑쓰주의이며 지구상의 六분의一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한 시기의 맑쓰주의인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六二二페지) 바로 그때문에 지금은 레닌주의자가 아니고는 맑쓰주의자가 될수없는것이다。

프로레타리아혁명과 쏘베트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를위한 투쟁의 실천적 경험은 볼쉐위끼당의 사상적 결속에 대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졌다。 공산주의자에 대하여서는 다만 당강령을 인정하는것 하나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가장 중요한것은 혁명적 강령을 실현하는 것인바 그 리유는 맑쓰주의자—공산주의자는 비단 세계를 설명할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키고 개조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들의 당은 일정한 리론적 원칙들을 시인하는데 찬동한 동지들의 단순한 그루빠가 아니다。 더우기 그는 철학적 학파 혹은 종파는아니다。 프로레타리아당—이는 자기계급의 근본적 리익을 고수하고 실지 행동하는 전투적인 유기체이다。 그러므로「우리당은—하고 쓰딸린은 말한다—당이 강령 전술및 조직적 견해들을 프라톤적으로(정신적으로) 접수하는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는 의심할것도없이 자기의 당원에게 접수된 견해들을 실현할것을 요구한다。……우리당의 당원이

되고싶은 사람은 우리당의 강령 전술및 조직적 견해들을 접수하는 것으로 만족할수없으며 그는 반드시 이 견해들을 실현하고 그들을 실생활에 실천하도록 힘써야한다」。(이•브•쓰딸린 전집 제一권 六三페지)

레닌과 쓰딸린의 항상 강조한 당생활의 이 실제적 면은 쏘련공산당(볼쉐위끼) 사상통일의 공고화를 위한 기본이다。

맑쓰—레닌주의의 사상은 전세계 진보적 사람들 사이에 점점더 전파되고있고 공명을 받고있다。쏘베트동맹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는 로동자들과 농민들은 근본적인 자기들의 리익과 희망에 립각하여 자본가들과 지주들이없이 자기들의 생활을 자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전세계에다 보여주었다。 제二차세계대전에서 파시스트 국가들에 대한 쏘베트동맹의 세계사적 승리의 결과로 중앙 및 동남 구라파의 수다한 나라들은 자본주의 체계에서 벗어났다。 이 국가들에는 인민민주주의 정체가 설정되었다。 이 제국가의 인민들은 쏘련의 모범을 본받으면서 사회주의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되었다 이 인민민주주의국가들의 지도적 력량은 도시와 농촌의 근로자들과의 동맹을 실현하는 로동계급이다。 이나라들의 로동계급속에 있는 모든 훌륭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혁명적 맑쓰—레닌주의당들에 련합되었고 레닌주의의 위대한 기치아래서 자기 인민들을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 당들의 발전은 쏘련 공산당(볼쉐위끼)이 걸어온 길을 걸고있다。 이 정치적 발전의 길에는 독일로동계급의 진보적 사람들도 올라섰다。 독일의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을 새 형태의 당 즉 전투적인 맑쓰—레닌적 당으로 만들 과업을 내세웠다。

독일사회통일당의 제一차 대표회의에서 옷토•그로테볼은 보고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동맹자들을 사회주의의 승리에로 이끌고자하는 혁명적당은 자기대렬속에 어떠한 적대적 이데올로기의 출현도 용서할수 없으며 또한 용서해서는 안된다。 그는 각종 분자들의 혼합물이 될수 없으며 또한 되어서는 안되며 로동계급의 전위부대 참모부가 되어야한다。 그의 대렬속에서는 각자가 의식적 적극적 혁명적 투사가 되어야한다」。

독일 로동계급의 진보적 대표자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을 새형태의 당으로 만든다는 과업을 해결하는데에는 쏘련의 로동계급과 그의 공산당의 승리적 혁명적 투쟁의 가장 풍부한 경험에 립각하고있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은 레닌—쓰딸린당으로서 우리들의 위대한 모범이다。 그는 우리들에게 사상정치적 관계에서와 조직적관계에서 이런 당을 형성하는길을 가리키고있다」라고 옷토•그로테볼은 말한다。 볼쉐위끼당—레닌—쓰딸린당은 자본주의적 예속으로부터 자기들의 해방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수천만 각국 근로자들의 기발인것이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공산주의학교이다

즈·쏘끌로브

사회주의국가에서 직업동맹들은 우수한 역활을 하고 있다. 그들은 쏘베트사회의 천진적인 력량인 로동계급의 가장 대중적인 조직이다. 사회주의 건설기간에 쏘련의 직업동맹들은 장성하였으며 공고하여졌고 강대한 힘으로 되었으며 공산주의학교라는 자기의 역활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있다.

쏘련 직업동맹들의 힘은 레닌—쓰딸린당에 의하여 령도되는 그들의 활동과 그들이 볼쉐위끼적 정책을 철저하게 실행하며 쏘베트국가의 리익들과 로동계급의 절실한 리해관계를 고수하고 있는데 있다. 볼쉐위끼당은 로씨야에서 직업동맹을 창립하였으며 그들의 사상적 령도자 및 고무자로서 되어 있었고 프로레타리아트 계급투쟁의 일반적 조류속에서 그들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쏘련에서의 직업동맹들의 발전은 서구라파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직업동맹의 발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구라파에서의 직업동맹들은 쓰딸린동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정치적 당보다 훨씬 저에 생기기 시작하였으며 공고하여졌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로동계급의 당은 자본주의가 비교적 평화적으로 발전하는 정세하에서 직업동맹으로부터 장성하였으며 그때 이미 직업동맹들은 경제적투쟁의 현저한 경험들을 획득하고 있었고 당은 주로 의회적(議會的) 정치투쟁을 하는것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방에서 직업동맹들과 당들과의 간의 상호관계의 특수성과 특수한 련결들을 확정하였다.

이와반대로 로씨야에 있어서의 직업동맹들은 로동계급이 이미 자기들의 전투적 정당을 가지고 그의 령도밑에서 부르죠아지 및 전제제도와의 혁명적투쟁을 광범하게 진행하고있을 그때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로씨야에 아직 직업동맹들이 없었을 그때에있어서 볼쉐위끼당은 로동계급의 정치적 투쟁뿐만 아니라 경제적투쟁도 령도하고있었다. 로씨야의 직업동맹들은 서구라파의 직업동맹들과같이 평화롭고 평

온한 조건하에서 탄생한것이 아니라 一九〇五년의 혁명적 진동(震動)속에서 탄생하였던 것이다. 우리의 이와같은 첫 직업동맹들의 핵심(核心)은 볼쉐위끼들로써 령도되고있던 과업위원회(罷業委員會)이었다. 쓰딸린동지는 지적하기를 「우리 직업동맹들의 발전력사에서 가장 특징적인것은 그들이 당 이후에 당의 주위에서 그리고 당과의 우의(友誼)로 생기었으며 발전하였으며 강화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전집七권一〇四페지)

서방에서의 직업동맹들과 로씨야에서의 직업동맹들은 각이한 조직적 원칙위에서 건립되었다. 영국 미국 및 기타 자본주의 국가들에서의 직업동맹들은 직장 및 직업별로 창립되었는바 그것은 직장의 제한성과 로동운동의 분활(分割)을 일으켰고 트레드·유니오니즘의 발전과 로동운동에서의 기회주의와 타협의 강화를 용이하게하였다. 이것으로써 서방(西方)에서의 직업동맹들이 자본주의범위내에서 기업주들과의 일상적인 경제적투쟁의 임무를 높이 앙양시킬수 없다는 사실이 특히 설명되는것이다.

볼쉐위끼들은 전문적장별로 직업별로써 구성되어 있던 직업동맹을 반대하여 멘쉐위끼들과 투쟁하면서 동맹구성에 있어서 산업별원칙(産業別原則)을 고수하였던 것이다. 뻬제르부르그, 바꾸 및 기타도시들에서는 볼쉐위끼가 령도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조직들에 의하여 직업동맹은 산업별원칙에따라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하여 바꾸에서는 쓰딸린동지의 직접적인 령도하에 원유(原油)산업로동자들의 동맹이 창립되었던 것이다. 一九〇九년에 쓰딸린동지는 강조하기를 이러한 동맹은 「로동자들에 특히 인기(人氣)가있다. 그는 산업별원칙에 의하여 구성되고있으며 원유로동의 모든 종류의 로동자들을 (즉 채굴공, 보—링공, 기계공, 원유증류공(蒸溜工) 미숙련 로동자들을 망라하여 단결시키고있다. 이러한 조직형태는 부적당한 파업 례를들면 가계로동자들이 채굴공 등동의 로동자들과는 관계없이 진행하는 그러한 투쟁정세들로써 강요되는것이다. 직업별 조직원칙은 벌써 이전에 바꾸의 경험으로써 폐기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전집二권一八四—一八五페지)

로동운동의 원쑤들과의 격렬한 투쟁에서 레닌과 쓰딸린을 위수로하는 볼쉐위끼들은 로동계급의 로동조합조직의 생산별 구성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였다. 이러한 원칙은 지금에 있어서도 쏘련직업동맹조직들의 기본으로 되고있다.

× × ×

제一차로부터 제二차로씨야혁명에 이르는 기간중에있어서 볼쉐위끼들은 직업동맹내에 있어서의 멘쉐위끼, 에쓰·에르, 청산파들의 영향을 반대하여 투

쟁하였다。 이 투쟁은 볼쉐위끼당이 할수없이 깊은 지하로 퇴각하였던 그러한 쓰돌리삔반동의 가혹한 조건하에서 수행되었던 것이다。 경찰의 폭행이 전국을 지배하고 있었다。 수백개의 직업동맹들은 폐쇄되었고 직업동맹의 지도자들은 투옥 되었으며 또는 류형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직업동맹들은 계속 존재하였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로동조합과 그의 령도자들인 볼쉐위끼들을 보호하였다。 제一차 세계대전에 앞서는 로동운동의 앙양기에 있어 「볼쉐위끼는 비합법적 활동과 합법적 활동을 교묘하게 결합해서 뻬쩨르부르그와 모쓰크바의 로동조합의 대다수를 자기편에 전취하였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로동당출판사판 二七〇폐지)

一九一七년 二월부터 十월에 이르는 시기는 대중획득을 위한 볼쉐위끼들의 투쟁시기로써,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혁명에로 대중을 준비시키는 시기로써 저명하였다。 이 시기에 있어서 직업동맹은 이미 로동계급의 대중적 조직으로 되기 시작하였으며 자기의 대렬에 약 五十만의 조직된 로동자를 가지고있었다。 기업소들에서는 공장 제조소 위원회가 출현하였던바 그들은 생산에대한 로동자들의 관리를 실행하였으며 자본가들과 그의 주구들의 태공을 결정적으로 분쇄하였고 략취 및 기타로부터 공장과 기업소들의 재산을 방위하였다。 볼쉐위끼들은 멘쉐위끼와 에스・에르들을 직업동맹의 령도기관으로부터 구축하며 직업동맹을 당의 견고한 지주로 화하게하며 도래(到來)할 혁명투쟁에로 그들을 준비시키기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던것이다。 당의 노력은 훌륭하게 성공하였다。 즉 볼쉐위끼들이 선두에 서있는 공장제조소위원회와 직업동맹들은 위대한 사회주의十월혁명의 준비에서와 수행에있어서 적극적인 참가자이었다。

「현재의 직업동맹들은 一九一七년二월 이후에 비로소 우리에게 출현하였다。 十월혁명 이전에 벌써 우리는 로동자들간에 거대한 위신을 가지는 형성된 직업동맹단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에 이미 직업동맹과 같은 그러한 지주(支柱)가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전취할수도 없으며 유지할수도 없다라고 말하였다」 라고 쓰딸린동지는 지적하였다。 (선집 七권一〇三폐지)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혁명은 인류력사에있어 새로운시대를 열어놓았다。 로씨야의 로동계급은 빈농과 동맹하여 볼쉐위끼당의 령도하에서 자본가와 지주의 정권을 전복하였으며 쏘베트 사회주의국가를 창건하였다。 이전에는 착취받고 압박받고 예속당하고 있던 로씨야의 프로레타리아트가 통치계급으로 되었고 사회에대한 국가적 령도권은 모든 인민들의 위신과 신앙을 받는 로동계급의 것으로 변하였다。 레닌—쓰딸린당은 十월혁명 승리이후 직업동맹을 령

도하며 거기에 쏘련 로동계급의 력량을 집결하면서 직업동맹을 자기들의 재기(再起)할 목적에 리용하려던 사회주의의 원쑤들의 시도를 일소하였다。 볼쉐위끼당과 모든 쏘베트인민에 극히 적대적인 각종의기회주의적그루빠 「로동반대파」、「민주주의적중앙집권주의자」、 뜨로쯔끼파 및 「좌익공산주의자」들은 모두 쏘련에 자본주의를 복구하려고 노력하면서 로동계급의 분렬을 희망하고 있었다。 당과 로동계급의 원쑤들은 직업동맹을 볼쉐위끼당과 쏘베트국가에 대립시키려고 노력하였으며 로씨야에서 사회주의의 승리를 불신(不信)케하는 독소로써 로동자들의 의식을 중독시키려고 하였으며 공고한 규률과 국가적 등록과 통제를 반대하고있던 전달군들과 투기분자들을 옹호하여 나섰던것이다。

에스・에르적 멘쉐위끼적 악선동자들은 직업동맹의 「독립성」이라는 기치밑에서 직업동맹을 쏘베트정권에 대립시키려고 시도하였던것이다。 「직업동맹의 독립성」이라는 표어의 허위성과 위선성은 레닌에 의하여 철저하게 폭로되었던것이다。 레닌은 제二인터나쇼날의 지도자들이 자본의 독재를 장식하면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날조적 어구들과 멘쉐위끼적 표어가 밀접하게 련결되어 있다고 지적하였다。

레닌은 제二차전로씨야직업동맹대회에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부르죠아사상의 더러운 물속에서 고기를 잡아보려고 「직업동맹운동에 있어서 특히 광범하게 시도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정치적투쟁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진행한 초보적 직업동맹운동에 나타나고있던 경제적투쟁에 진력하였던것이다」。 (전집二十三권四八五폐지) 이러한 정책은 자본의 독재를 강화할 목적에서 로동계급을 착취하고 학살하는자들에게 무기를 바치는 것이었다。

三十년전에 직업동맹운동에서의 부르죠아리론가들의 정책에대한 레닌의 평가는 미국로동조합의 지도자들、영국트레드 유니온의 반동적두목들、「포루스・우브리엘」일파의 불란서 분렬주의자들 및 기타 월가(街)의 고용자(雇傭者)들과같은 현재에 있어서의 로동계급의 배반자들에 대하여서도 완전하게 관련을 가지는바 그들은 「직업동맹의 독립성」을 구실로 로동계급의 정치적투쟁에대한 자기들의 태공과 그리고 동맹파업을 진압하며 쏘련과 제인민적민주주의국가들을 반대하여 군사적뽈럭을 조직하는데 지향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책에대한 자기들의 지지를 은폐하려고 하고있다。

뜨로쯔끼파들은 「직업동맹의 국가화」라는 표어를 내걸었던것이며 그들은 로동대중에 대한 설복적방법을 반대하였고 직업동맹내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반대하였던것이다。 그들은 직업동맹에 군대

식방법을 가져올것을 요구하였다。 설복적 방법이 없이는 로동자들의 제조직의 활동이라는것은 있을수 없음에도 높구하고 뜨로쯔끼파는 이 방법대신에 어떼까지나 강제와 명령의 방법을 쓸것을 주장하였다。 레닌과 쓰딸린의 지도하에서 당은 직업동맹을 분렬하며 파괴하려고 시도하던 뜨로쯔끼주의자들과 기타 로동계급의 원쑤들을 분쇄하였다。 불쉐위끼당은 직업동맹에대한 레닌—쓰딸린의 교의(敎義)를 끝까지 고수하였으며 직업동맹을 공산주의학교로 전환시키었다。 쏘련의 직업동맹들은 이러한 투쟁에서 최후까지 레닌—쓰딸린의 교의에 충실하였다。 모든 종류의 기회주의자 당면주의자 및 기타 로동계급와 반역자들이 쏘베트직업동맹들 내에서 자기들의 파괴적 활동을 위한 하등의 지지자도 찾아볼수없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확립은 쏘련에서 직업동맹의 역할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하였다。 十월사회주의혁명까지의 직업동맹의 기본적 과업이 부르죠아지와 부르죠아 및 지주들의 국가와 투쟁하는데 있었다면 혁명이후의 직업동맹은 사회주의사회의 적극적인 건설자로 되었다。

레닌과 쓰딸린은 부르죠아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프로레타리아트독재를 강화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들을 전반적으로 연구하였다。

쏘베트정권의 제조건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을 규정하면서 레닌은 다음과같이 가르치었다。「직업동맹들은 프로레타리아트가 자기의 수중에 국가정권을 장악한 그와같은 력사에 들어 서게한 최대의 변혁물과 더부러 자기의 모든 활동에서 최대의 변환들을 체험하고 있다。 그들은 새로운 사회의 주요한 창조자로 되고있다。 왜나하면 그러한 사회의 창조자는 수많은 대중들만이 될수있기 때문이다」。(전집二十三권 四九二폐지)

쏘련에서는 직업동맹들이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을 전반적으로 인입하고있는것이 자본주의국가들의 직업동맹들과는 판이하다。 레닌은 지적하기를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경우래야 가장 선진적인 국가에서 부르죠아민주주의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된 十년후에도 때때로는 백년후에 있어서도 직업동맹들이 고용로동자의 五분의一 이상을 끌어넣고 있은 일은 언제나 없었다。 많지않은 상층부가 직업동맹에 참가하였고 이러한 상층부의 극히 적은 부분만이 자본주의사회에서 한자리하는 그러한 로동자와 동록들로 슬적 바꾸어지고 말았으며 자본가들에게 매수되고 말았다。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자본가계급의 「로동자 소위(少尉)들」이

라고 불렀던것이다。 그들은 가장 자유로운 부르죠아 문화국가이며 가장 민주주의적인 공화국들에서 실제로는 부르죠아의 충복으로 부르죠아의 대리로 행동하며 부르죠아에 의하여 매수되였으며 팔리었고 사회—애국자들과 방어파(防禦派)들의 간부들이 에베르드 및 샤이데만을 영원히 계승하는 용사들에 의하여 만든 그러한 프로레타리아트의 보잘것없는 상층부의 역할을 가장좋은것으로 보았다」(전집二十二권四八七—四八八폐지)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레닌의 규정에 의하면 「교양의 조직이며 인입(引入)의 조직이며 훈련의 조직이며 그는 관리(管理)의 학교이고 경영의 학교이며 공산주의의 학교이다」(전집二十六권六四폐지)

레닌의 교시에 의하여 령도되는 불쉐위끼당은 쏘베트직업동맹들이 이러한 자기의 과업들을 실제로 완수하도록 하기위하여 꾸준하게 투쟁하였다。

불쉐위끼당 제十차당대회는 직업동맹운동에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조건하에서의 직업동맹들의 목적과 과업들을 규정한 발전적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결의에는 다음과같이 기록되어 있다。「직업동맹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각개의 매개성원들이 자기의 동맹의 모든 생활에 자각적이며 적극적인 참가자로 되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할것이다。직업동맹들은 공산주의학교로서 근로대중의 일상적이고 각방면의 생활을 취급하여야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종사하는 광범한 각층의 근로자들을 점차적으로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우리 강령의 사상으로써 방향을 항신 명시하여주며 그들을 개인적인것으로부터 공동적인것에로 나가도록 관리하여야하며 그들을 점차적으로 무소속으로부터 공산주의에로 재교하여야 할것이다。 현재에 있어서 직업동맹들은 공산주의적실천 즉 공산주의적원칙에 의하여 경제를 재편성하며 건설하는 사업에서 프로레타리아트대중의 령도자로 되고있는 이상 공산주의학교라는 자기의 역할을 사실상 완수하고 있는것이다。 오직 쏘베트로씨야에서의 직업동맹들만이 근로계급의 갓창 뒤떨어진 층을 쏘베트인민경제의 자각적인 개선(改善)사업에 끌어들일수있는 진정한 공산주의학교로 되고있는 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결의집」一권제六판三七一폐지)

레닌과 쓰딸린은 직업동맹들의 주요한 사업방법은 강제적방법이 아니고 설복적 방법이라는것과 직업동맹들에서는 모든 키관들의 광범한 선거제를 실시하며 임명제(任命制)를 배제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과 직업동맹들은 반드시 공장내에서는 물론 공장밖에서의 로동자들의 생활향상에까지도 조직적으로 돌보아야 한다는것을 자본체고있다。

레닌과 쓰딸린은 쏘련의 경제 및 행정기관들의 활동에 있어서 직업동맹들의 기본적관여(關與)형태를 규정하였는바 그것은 로동계급과 근로대중 일반중에서 관리인들을 양성하는 것이며 경제계획작성에 참가하며 문화교양사업과 생산적선전들을 실시하고 임금률을 작성하는것들이라고 규정하였다。

一九二一년 재봉산업로동자 제四차대회에 출석하여 레닌은 다음과같이 말하였다。「직업동맹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만 근로자들의 동맹으로나 또는 경제건설자로 출현할뿐만 아니라—이것이 그들의 주요한 임무이지만—지주와 자본가들이 없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며 그리고 자기들의 로력으로써 살고 있으며 우리들을 보장하고있는 수천만의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기때문에 그것이 비록 소수이지만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건설을 능히 할수있으며 또한 건설하고있는 국가적 세력으로 출현하고 있다」(전집二十六권 一五五—一五六페지)

쓰딸린은 프로레타리아트독재에 관한 레닌의 학설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체계에서의 직업동맹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쏘베트정권하에서 직업동맹들은 당의 방조에 의하여 로동계급과 련결되고있는 기본적 인전대(引傳帶)로 나타나고 있다고 교시하였다。프로레타리아트독재와 그것이 없이는 독재의 실현이 불가능한 그의 대중적조직들을 특징지으면서 쓰딸린은 一九二六년에 다음과같이 썼다。「첫째로 로동자들의 직업동맹들은 중앙과 지방에 널리 분포된 생산적 문화적 교육적 및 기타의 역할을 전체적으로 하는 조직들이다。그들은 모든 직업의 로동자들을 단결시킨다。이는 비당원의 조직이다。직업동맹들은 우리의 로동계급을 지배하고있는 일반적조직이라고 부를수있다。그들은 공산주의학교이다。그들은 그의조직의 우수한 사람들중에서 각부문에 있어서 작업을 령도하기위한 관리자들을 선정한다。그들은 로동계급중에서의 선진분자와 락후분자들간의 결합을 실현한다。그들은 로동대중을 로동계급의 전위(前衛)와 결합한다」(전집 八권 三三一페지)

쓰딸린은 로동계급 독재수립이후 쏘련에서의 직업동맹운동의 경험을 리론적으로 종합하였으며 직업동맹내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레닌의 사상을 전반적으로 론증하였고 발전시키었으며 직업동맹활동에 있어서 성공의 기초로되는 직업동맹의 민주화 대중과의 결합 및 독자적활동성에 대하여 교시하였다。쓰딸린은 일상적으로 직업동맹의 볼쉐위끼적 작풍을 가르치고있다。

레닌—쓰딸린이 정의(定義)한 프로레타리아트국가에서의 직업동맹의 역할과 의의는 볼쉐위끼당대회 결정들에서 확고하여졌다。쏘련공산당 (볼쉐위

끼)十六차당대회는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가장 광범하고 대중적인 프로레타리아트조직으로서의 직업동맹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먼저 수백만 근로자들의 로력으로서만 창조될수있고 공고하여질수 있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 과업에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하는 임무가있다」대회는 사회주의적진격의 성과와 인민경제의 사회주의적 형태의 장성과 로동대중의 적극성 및 자각성의 향상과 관련하여 공산주의학교로서의 직업동맹들의 역할을 특히 확대할것도 강조하였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쏘련의 거대한 레닌—쓰딸린적공업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하였다。그들은 로동자와 사무원들을 쓰딸린적 五개년계획들의 완수 및 초과완수를 위한 그리고 쏘베트국가의 경제적 및 군사적력량의 강화를 위한 투쟁에로 궐기시키었다。그들은 사회주의경쟁을 최대한도로 전개하며 이 운동에 로동계급의 새로운 모든층들을 인입하는 방법으로써 산업에 있어서의 로동생산성을 높이기위하여 투쟁하였다。직업동맹들은 쏘련을 위력있는 공업국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근로농민대중과의 로동계급의 동맹이라는것은 레닌과 쓰딸린이 교시한 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높은 원칙으로 되고있다。로동계급은 쏘베트사회의 령도적력량으로써 농민들을 인도하며 사회주의정신에서 그들을 교육하여야만 되는것이다。

一九二二년에 농민의 수가 거대하게 압도적인 국가에서 로동계급은 근로농민과의 동맹에 기초하여서만 사회주의건설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결할수 있다는데 대한 사상이 더욱 발전되었다。로동계급을위한 공산주의학교로서의 직업동맹들은 당의 지도아래에서 농민과 로동계급과의 단결의 강화 및 소규모적이고 개인적인 농업을 대규모적 사회주의생산의 궤도에로 전환할것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만 된다는것을 레닌은 력설하였다。

쏘련의 로동계급과 그의 직업동맹들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단계에 있어서 농촌과 근로농민대중을 각종 수단으로 원조하였고 또 원조하고있다。쏘베트직업동맹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막대한 원조로써 농민대중의 소소유자적 심리를 개변한것은 농업의 사회주의적개혁에 있어서의 레닌—쓰딸린당의 최대의 승리이다。수만의 우수한 로동계급의 대표들을 꼴호즈건설의 조직자로서 농촌에 파견하며 꼴호즈들에대한 공장들의 원조와 농촌근로인민들 속에서의 광범한 정치 및 군중문화공작과같은 이러한 당의 모든 방책은 직업동맹들의 적극적인 참가에 의하여 실현되었다。쏩호즈와 기계뜨락또르지정소의 로동자들로서 농촌에서의 로동계급의 튼튼한 핵심을 창

진한것도 역시 직업동맹의 위대한 역할이다。 지금 직업동맹들은 풍요(豊饒)하고 안전한 수확을 보장하는 자연개변의 쓰딸린적계획을 신속하게 실현하기위하여 근로자들의 력량을 동원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볼쉐위끼당의 지도하에서 쏘베트사회의 강력한 력량으로 되었으며 그들은 쓰딸린의 정의(定義)에 의하면 로동계급독재의 주요한 지주(支柱)들중의 하나로써 구성되고있다。 그들은 모든 종류의 우수한 국가적 및 사회주의활동가들과 수천수만의 천재적경리일군들을 양성하고있다。 그들은 대중적경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조건 개선에대하여 관심을 돌리고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그의 모든 발전계단에서 프로레타리아트적 국제주의정신으로서 교육하며 국제로동운동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한다。 쏘련의 직업동맹들은 다른국가의 로동자 단체들과 우의적결합을 설정하며 강화하면서 二차에 걸친 세계대전 기간중에있어서 파시즘과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투쟁하는 로동계급의 통일적전선을 창립하며 통일적이고 전반적인 국제직업동맹조직을 위하여 투쟁하는 선두에섰다。 전후시기에있어서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전세계의 수천만로동자들의 통일을 체현하고있는 국제직업동맹의 일원으로 되고있다。 쏘베트 직업동맹들은 로동계급의 국제적 일치단결을 위하여 직업동맹운동에서의 우익사회주의자들의 분렬주의적 책동을 반대하여 새로운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고 제국주의적 억압을 반대하여 제一선에서 투쟁하고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의 모든 기본적 성과와 쏘베트사회에 있어서의 그들의 영향과 세계직업동맹운동에 있어서의 권위의 기본적장성은 레닌―쓰딸린당의 현명한 령도와 직업동맹들이 볼쉐위끼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데있는 것이다。 레닌―쓰딸린당의 정책은 쏘베트체제의 생활적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직업동맹들이 볼쉐위끼정책을 열성있게 수행하면 할쑤록 그들이 당의 주위에 대중을 집결하면 할쑤록 대중과의 그들의 련결은 더욱 견고하여질 것이며 근로자들속에서 직업동맹의 위신은 더욱 높아질것이다。 볼쉐위끼당은 쏘련에서의 직업동맹운동에 대하여 부단하게 관심을 돌리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각개계단에 있어서의 그의 내용과 형식을 결정한다。 얼마전에 쏘련공산당(볼쉐위끼)중앙위원회의 발의(發議)로써 공화국들과 변강들 및 주(州)들에 있어서 동맹들간의 기관인 직업동맹평의회들이 결성되었다。 직업동맹평의회들은 공화국 변강 및 주의 제직업동맹 조직의 공동적 활동을 도모하며 사회주의적 경쟁의 전개와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물질적

생활형편 및 문화시설의 금후발전과 직업동맹사업의 경험의 종합 및 보급에 있어서 그 방향을 일치하게하는것을 사명으로한다。 공화국들과 변강들과 주(州)들에있어서 동맹들간의 기관을 결성한것은 각지에서의 직업동맹사업에대한 당적령도의 강화를 위한 전제조건을 창설하였으며 경쟁지도에 있어서의 구체화와 주들과 변강들간의 경쟁의 발전을 보장하고있으며 주 및 공화국의 생산적 및 사회적생활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영향을 높이고있다。

× × ×

쏘베트직업동맹들의 중요한 과업중의 하나는 로동계급의 창발성과 로동의 적극성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쟁을 전개하기위하여 투쟁하는데있다。

이 과업을 실현하는 쏘련의 직업동맹들은 사회주의경쟁에 관한 레닌―쓰딸린의 지시에 따르고있다。 레닌은 공산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위한 투쟁에있어서 사회주의적경쟁의 역할과 의의를 처음으로 교시하였으며 이러한 운동을 조직하는 과업을 제기하였다。 [illegible] 一九一八년에 레닌은 말하기를 『사회주의는 경쟁을 소멸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반대로 실제에 있어서 광범하게 대중적규모에서 그를 적용하며 근로대중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발휘할수있게하며 자기들의 재능을 전개할수있게 하며 자본주의가 유린하고 억압하며 교살하고있던 수천수백만의 천재들을 [illegible] 인민들속에서 발양하게 할수있는 그러한 작업분야에 근로대중들을 끌어넣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지어준다。

사회주의정부가 정권을 장악하고있는 현재에있어서 우리들의 임무는 곧 경쟁을 조직하는것이다』라고하였다。 (레닌전집 제二十二권 [illegible]페지)

쓰딸린은 레닌의 교시로부터 출발하여 우리들의 발전에 있어서 강력한 협조로되는 사회주의적 경쟁에대한 기본적인 명제들을 작성하였다。 쓰딸린은 사회주의경쟁이라는것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최고로되는 열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공산주의적 방법이라고 [illegible]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사회주의경쟁은 수백만 근로자들의 창조적 발의에 [illegible] 혁명적인 대중적 자아비판의 [illegible]의 표현이다』 (『직업동맹에 대한 레닌과 쓰딸린』 [illegible] 一九四〇년판)

제一차 쓰딸린적 쓰따하노브들의 협의회에서 연설에서 쓰딸린은 사회주의경쟁의 높은 단계인 쓰따하노브운동의 위대한 력사적 의의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면서 [illegible]하였다。 그것은 『가장 [illegible] (精力)을 [illegible]고 극복할수없는 경제운동으로써』 [illegible]되고있으며 그것에 『우리공업들의 장래』가 있으며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넘어가며 정신로동과 육체로동간의 모순을 소멸하는데 필요한』 로동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볼쉐위끼당은 일상적인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 과업을 쏘베트직업동맹들에게 부과하였다. 직업동맹들은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결국에있어서 새로운 사회체제의 승리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고있는 로동생산성의 제고를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역활을 하였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사회주의건설의 여러가지 단계에 있어서 레닌과 쓰딸린의 천재적 설계들을 실현하면서 경제적 및 문화적 건설계획의 완수에로 로동대중들을 궐기시키었다. 대중들의 이러한 로동에 대한 열성과 창조적발의는 쓰딸린적 五개년계획들의 빛나는 완수를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가지고있다.

쓰딸린은 제一차五개년계획의 력사적 승리를 보장한 기본적 력량들을 특징지으면서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그 기본적력량은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자들 및 꼴호즈원들 즉 기사 기술자들과 함께 사회주의의 경쟁 및 우다르니크활동을 전개하는데 대하여 거대한 정력을 발휘한 수천만 로동자 및 꼴호즈원들의 활동 및 희생적노력, 열성 및 창발성이다. 이와같은 형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목적을 달할수 없었을 것이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였을것은 의심할것도 없는바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로동당출판사판 제三권六七페지)

조국전쟁시기에 쏘베트로동계급은 위대한 공훈을 세웠다. 전쟁은 쏘베트사회 및 국가제도의 공고성에 대한 준엄한 검열이었으며 또한 그는 쏘베트직업동맹들에 대하여 대중과의 그들의 견고한 련결과 원수를 분쇄하는데로 대중을 동원하는 수완을 검열하는 중요한 시련이기도 하였다. 우리의 직업동맹들은 이 위대한 시련을 영광스럽게 견디어냈다. 직업동맹들은 원래있던 기업소들을 이전(移轉)하며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는데 가장 씩씩하게 참가하였다. 당의 령도아래에서 직업동맹들은 로동계급의 모든력량을 전선을 지원(支援)하는데로 동원하였으며 「모든것은 전선을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전동맹적 사회주의경쟁을 전개하였던것이다. 직업동맹들은 쏘베트군대의 부상자와 장교들을 위하여 병원을 창설하였고, 간부들을 양성하였으며, 스키수(滑雪手)와 조격수(狙擊手) 훈련에 참가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군대의 부대들에 대한 직업동맹적 후원을 강화하였고 선물과 전차 및 비행기자금의 수집을 조직하였던 것이다. 전쟁시기에 있어 직업동맹들과 로동계급의 기타조직들은 몰로또브도 강조한 바와같이 로동대중에 대한 긴장한 조직자적 및 교육자적사업들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쏘베트인민들이 인민경제의 복구 및 발전에 대한 거대한 계획을 질행하고있는 전후시기에있어 직업동맹들은 공산당의 지도밑에서 전후 쓰딸린적五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에로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을 조직하며 동원하고 있다. 전국의 근로자들로부터와 무수한 로동계급의 대오로부터의 쓰딸린에게 드린 국가적계획 및 과업들은 기한전에 완수하며 경쟁에 의하여 세류교 보다 높은 의무들을 부담하겠다는 편지들과 보고서들은 쓰딸린의 호소에 보답하여 전후五개년계획을 완수할뿐만아니라 초과달성하겠다는 쏘베트인민들의 자발적 열의(熱意)에 대한 빛나는 증거로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의경쟁은 전후시기에있어서 전인민적운동의 성질을 가지게되었다. 브·므·몰로또브는 十월혁명三十一주년기념보고에서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로동자 사무원 및 농촌꼴호즈원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주의경쟁에 참가하고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있다. 지금에있어서 경쟁에 참가하지않거나 또는 기업소내에서나 꼴호즈내에서 경쟁자들의 수를 증가하려고 노력하지않는 그러한 공장 및 제조소 또는 꼴호즈는 없으며 또 반드시 없을것이다.」

전후시기에 있어서 개별적인 로동자들이 년간계획과 五개년계획전체를 기한전에 완수하겠다는 개인적 의무를 부담하는 그러한 새로운 운동이 광범하게 보급되고있다. 이러한것은 자기들의 로동을 사회적중요성을 가진것으로 간주하며 자기들의 로동을 국가에대한 신성한 의무로 간주하고있는 쏘베트인민들의 공산주의적 자각성의 특징을 표현하는 것이다.

一九四八년에는 경쟁의 새로운 형태들이 출현하였으며 발전하였다. 그의 현저한 형태들의 일부는 질적향상과 원가저하와 기업의 수익성향상 그리고 계획이상의 축적들을 위한 대중들의 투쟁에서 표현되고있다. 「무수한 국가의 기업소들을 끌어넣고있는 이러한 운동은 우리의 수도인 모쓰크바의 공산주의적로동자들의 발의(發意)로써 전인민적 의의를 획득하였고 그는 그 당시 쓰딸린에 의하여 「새로운 쏘베트시대의 기수(旗手)」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것이다」라고 몰로또브는 말하였다. 이러한 전인민적 운동은 경쟁이 넓이로 뿐만아니라 깊이로 발전된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사회주의의경쟁은 구습(舊習)과 완만성과 진부(陳腐)한 규준(規準) 그리고 한정한 관념들을 극복하고 있으며 쏘베트인민들로 하여금 앞으로 전진하게하며 생산을 위한 추가적 예비를 나타나게하며 로동생산성을 제고시키고 생산의 속도를 빠르게하며 사회주의적 축적을 증대하는 데로

자극하고있다. 사회주의경쟁은 로동자들의 문화적기술적 수준을 제고하고있으며 그들의 물질적 형편과 생활형편의 개선을 촉진하고있다. 그는 쏘베트인민들의 새롭고 고상한 품성 즉 쏘베트국가의 경제력강화에대한 관심과 동지적 호상관계와 로동에대한 사회주의적 태도를 발전시키고있다. 쓰딸린에게보낸 편지에서 모쓰크바 사람들은 수도와 모쓰크바주의 산업 및 운수로동자의 九十四퍼센트가 적극적으로 경쟁에 참가하고 있다는것을 보고하였던것이다. 레닌그라드의 기업소들에서는 로동자의 九三·五퍼센트가 경쟁에 참가하고있다. 이와같은데서 당단체들의 큰 업적과 또한 쓰딸린적 설계(設計)의 실행을 위하여 투쟁하는 직업동맹들의 성과적 활동이 표현되고있다.

경쟁의 지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되고있다. 공화국 및 주(州)들의 직업동맹 평의회들은 경쟁의 과정을 심각하게 연구하고있으며 지나간 경쟁들의 경험들을 보급하고있다. 동맹중앙위원회와 성(省)들은 공동적으로 전동맹적 사회주의 경쟁의 총결을 하고있으며 지금 한층더 비판적으로 기업소로동자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다 전련맹직업동맹중앙평의회는 우승한 기업소들에게 붉은기와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집단적으로 높은 요구를 제시하고있으며 기업소들이 새롭고 높은 작업수준으로 넘어가도록 장려하고있다. 주요하게나서는 과업은 경쟁의 성공을 위하여 그의 결과들을 비교하며 집단적으로 공개하며 경쟁중에서의 좋은 경험들을 광범하게 리용하는것등이다. 수많은 직업동맹조직들이 이러한 과업들을 수행할수가있었다. 그러나 개별적인 일부 직업동맹기관들은 아직도 사회주의경쟁을 졸렬(拙劣)하게 지도하고있으며 형식주의와 외관만에 열중하는것과 경쟁을 통담으로 대치하는것을 허용하고있다.

로동자들의 창발적발의의 발전은 가치있는 건의들과 발명들을 신속하게 활투시키고있으며 선진적인 경험들을 보급시키고 직업동맹의 중요한 임무로 되고있는 전체산업로동자들의 기술적 숙련의 향상을 조직적으로 도와주고있다. 기계 및 기구로동자직업동맹 중앙위원회는 생산혁신자들의 창의를 널리 대중화하는 그러한 옳은 취급을 하고있다. 모쓰크바 제二시계공장의 야장(冶匠)아·야꾸신의 생산에 있어서의 파손과 투쟁할데대한 발기를 전국적 의의를 가지는것으로 평가하고 동맹중앙위원회는 이를 쓰따하노브적제안으로 하기위하여 다른 기업소들의 로동자들에게 소개하였던것이다. 성(省)과 공동으로 야꾸신의 건의의 실현들이 여하히 큰 효과를 가져오는가를 표시하는 도표가 작성되었다.

제화(製靴)산업로동자직업동맹중앙위원회는 유명한 재단사(裁斷師)브·마뜨르소브의 건의와 므·레우젠꼬 및 기타 쓰따하노브츠들의 선진적인 방법들을 대중화하였다. 수다한 공장위원회들은 계약과 사회주의적 의무들의 수행에대한 검열과정에서 사업상의 곤난성과 결점들을 조사하고 락후한 점에대하여서는 운영상의 방조를 주고있다. 선진로동자들이 젊은 로동자들에대하여 방조하는것과 쓰따하노브적 학교들을 조직하는것이 크게 보급되고있다. 중공업기업소들에서만하여도 최근에있어서 수만명이 쓰따노브적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 × ×

쏘련에서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육하는 과업들과 긴밀하게 련결되어있다. 사회주의경쟁에 끌어들이는 방법에 의하여 로동행정(行程)에서 대중을 교육하는 이외에 직업동맹들은 근로자들속에서 문화적 및 정치적 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된다. 쏘련공산당(볼쉐위끼)十八차당대회에서 아·스다노브는 다음과같이 발하였다. 직업동맹들은「자기의 맹원들을 교육하는 사업결과에서 직업동맹맹원들의 수준을 공산주의적 선봉의 임무 즉 당의 원칙을 리해하는 수준에까지 제고하여야된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창설되었다. 직업동맹들은 열렬한 볼쉐위끼적 선전을 군중속에서 진행할수있는 재능있고 경험있는 간부들을 배치하고있다. 동맹의 이러한 과업의 수행은 七천이상의 구락부및 대소의 문화관과 수만의 도서관 및 크라스느이 우골크(선전실—역자)에서 진행되고있다. 구락부와 문화회관들은 활발한 군중정치 문화공작의 중심지로 되고있으며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정치적 의식의 향상과 사상수양의 근원지로 되고있다. 그러나 많은 직업동맹구락부에서는 그외 사업수준과 범위가 아직도 사상적 문제에관한 쏘련공산당(볼쉐위끼) 중앙위원회의 결정으로부터 나오는 요구들에 응하지못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장성하는 정치적 및 문화적 요구들은 만족시키지 못하고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의 공작원들은 볼쉐위끼당四차대회에서 진술한 레닌의 말들을 기억하여야 할것이다. 레닌은 말하였다.「직업동맹들은 교육자로 되는것이며 또 그것은 그들의 엄격한 책임이다. 졸렬(拙劣)한 교육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는 용서하지않는다. 교육이라는것은 장구하고도 곤난한 사업이다. 그것은 법령으로써 완성될수없으며 인내(忍耐)와 교묘(巧妙)하게 접근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하고있으며 또 이렇게할것을 호소한다」(전집 二十五권 二十五페지)

직업동맹들의 군중문화공작은 근로자들을 전부 포

개년계획의 기한전 완수를 위한 투쟁에로 동원하는데 그 방향을 두어야 하는것이다。당조직들이 하여야 할바는 직업동맹들의 문화교양사업이 불쉐위끼적 사상과 원칙을 보급하도록 그를 지도하며 방조하기에 노력하는것이다。구락부 및 도서관사업과 자립적 예술활동들에서 정치에대한 무관심성을 청산하는것이 필요하다。직업동맹들은 근로자들에게 쏘베트적 애국주의의 정신에서 조국의 리해관계에 대한 충실성과 공산주의로 나아가는데 있어서의 여하한 장애라도 극복하고 나갈 각오를 교육하는 당조직들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여야한다。쏘련에서 직업동맹들은 그가 광범한 근로대중들을 적극적인 국가적 활동에 참가시키는 그러한 학교적 관리를 실제로 찾수있게하는 막대한 물질적 및 법적 가능성들을 수여받고있다。쏘련직업동맹들의 관할에 속하고있는 국가적 사회보험과같은 문제를 들어보기로하자 우리의 사회보험조직은 자본주의국가들에 있어서의 보험과는 원칙적으로 구별되는 기초위에 서있다。쏘련에서의 사회보험은 모든 로동자들과 사무원들에게 빠짐없이 보급되고있다。一九四八년의 사회보험예산은 二、五六〇억루블리에 달하였다。이러한 모든 금액은 모두 휴양소 및 료양소들에 있어서의 치료비 또는 문화적 시설비등에 즉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는데 소비된다。

쏘베트사회보험의 특성은 그의 사업에 광범한 근로대중들을 참가시키고 있는데있다。여기에 대하여서는 약 백만의 직업동맹 열성분자들이 보험위원으로 공작하고 있으며 사회보험자금의 배당에 대한 각종검사를 협력하고 있다는것을 말하면 충분하다。각기업소들에 있어서 직업동맹의 사회보험에 대한 모든 사업은 공장 제조소 및 지방위원회들의 지도밑에 사회보험위원들로써 구성되는 사회보험협의회에 의하여 [illegible] 자립적인 기초위에서 수행되고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로동보호 및 위해방지 사업에 로동자 대중들을 광범하게 참가시키고있다。쏘련의 로동보호법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쏘련의 로동계급은 자주적으로 로동법 준수에대한 감시를 실행하고 있다。

[illegible] 五개년계획들은 [illegible] 제조소들에서의 로동조건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였다。새롭고 재건된 쏘베트 기업소들은 계획하고 공기조화등에 충분한 대우를 받고 생산과정이 기계화된것으로써 특징적이다。사회주의는 로동조건들을 일층 위생적으로 하며 [illegible] 로동자들을 연기와 먼지 및 [illegible] 속에서 해방하며 불결하고 증오스러운 작업들을 깨끗하고 밝고 인간적 가치있는 연구소로 변하게 함을 촉진한다」라는 레닌의 예견이 실현되었다。

로동보호와 위해방지에 지출하는 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있는바 전후 五개년계획에서는 산업기업소들이 여기에 약 五十억루블리를 지출한다。로동법 준수에 대한 검열사업에는 七十三만명 이상의 직업동맹열성자들이 사회적 감독원으로서 로동보호위원회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이러한 사실은 쏘베트 직업동맹들이 레닌—쓰딸린당의 지도밑에 로동보호법들의 준수에 대하여 진정하고도 대중적인 감독을 하는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쏘련에서는 동일한 로동에대한 동일한 임금지불제가 철저하게 실행되고있다。우리나라에서는 남녀의 차별없이 동일한 로동에는 꼭같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녀성로동을 중로동에나 유해한 작업장에 사용함을 허가하지않고 있으며 아동로동의 사용은 금지되고있다。자본주의국가들의 로동자들이 숙망하고있으며 그것을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것을 우리국가에서는 달성되고있다。

쏘베트국가의 로동조건개선에대한 관심은 현저한 성과를 가져왔는바 최근 十七년간만 하여도 쏘련기업소들에 있어서의 생산상의 불구적이고 무질서한 상해를 四분의一로 감소하였다。쏘련의 현실은 기술이 고도하면 할수록 더욱 불상사와 무질서에 의한 파손이 반드시 많아진다고 주장하고있는 자본주의 변호인들의 사이비(似而非)적 리론을 철저하게 분쇄하였다。사회주의적건설의 경험들은 전혀다른것을 보여주고있다。즉 산업의 기술적발전과 로동계급의 문화적 기술적 장성이 가져오고있는 쏘련에서의 생산의 일반적 향상은 로동조건들의 급진적 개선을 가져오고있으며 생산상의 무질서를 발생시키는 원인들을 없게한다。

전후 五개년계획에는「생산에서의 로동조건 (위해방지、환기(換氣)、조명、위생생활설비)들을 일층 개선하는 대책들을 실행할」과업들이 제기되고있다。이러한 분야에 있어서의 구체적 대책들은 기업소들에서 단체적결의에 의하여 결정된다。이러한 대책들은 대중들을 광범하게 참가시키면 시킬수록 더욱 훌륭하게 실행될수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의 주요한 과업중의 하나는 신입로동자들을 직공장、기사、기수들의 지식에 달하도록 교육하며 또한 직업동맹 적극분자들 즉 사회적감독원들과 로동보호위원회 위원들 및 기타를 교양하며 교육하는 기업소들의 행정을 방조하는데 있다。

불쉐위끼당은 직업동맹들이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물질적형편의 개선에 노력하며 국가적 및 협동적 상업기관과 후생사업과 식당들의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주택건축계획들의 수행상태에 대하여

대중적이며 사회적인 감독을 실시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약 백만명의 [illegible] 사무원들이 생산기관들의 사업에대한 대중적감독에 참가하고있으며 또한 주택건설과 주택 및 기숙사들의 수리과정을 감시하고있다。사회적 검열원들은 쏘베트상업실천에 있어서의 결점들을 명백히 하며 랑비와 투쟁하며 충교와 소송등으로써 문명적 쏘베트상업의 결점들을 고치도록 방조하며 주택건설사업에서의 락후한 부분들을 끌어올리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부문에 있어서의 직업동맹들의 공작은 엄중한 결점들을 없새지못하고있다. 많은 기업소들에있어서 경리책임자들이 주택생활 및 문화적 건설사업에 대한 자기들의 의무를 완수하지못하고있다。중공업건설성, 경공업성 및 기타성들을 포함하는 일련의 성(省)들은 해마다 로동자들을 위한 주택건설계획을 좌절(挫折) 시키고 있지만 직업동맹단체들은 동맹중앙위원회에서 공장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아무러한 대책도 쓰지않았다。

사회보험협의회와 공장위원회내의 주택생활위원회 및 로동보호위원회들에서 공작하는 수백만의 직업동맹열성자들은 근로자들의 문화적 및 물질적 생활조건들을 개선하기위한 투쟁에 실제적으로 참가하고있다。

평화적건설의 조건하에서의 직업동맹들의 과업해결을 위한 방향을 가르치면서 레닌은 一九二二년에 다음과같이 썼다。

「대중과 즉 로동자의 거대한 대다수와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과) 련결함은 직업동맹의 어떠한 활동의 성공에 대하여서든지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되는것이다。하부로, 붙어 최고에 이르기까지 직업동맹단체들과 그의 기관들에 있어서의 책임적 동지들의 전체계는 장구한 기간의 경험에서 실제적으로 선출되고 검열되어야하는바 그 책임적 동지들은 공산당원뿐만아니라 반드시 로동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하여야하며 그들의 모든 방면을 잘 알아야하고 어떠한 문제든지 그때의 대중들의 기분과 그들의 실제적 갈망과 요구와 의견에 의하여 결정할줄 알아야하며 허위적인 리상화가 없이 그들의 의식과 영향력 또는 어떠한 편견들 및 구습의 정도들을 판단할줄 알아야하며 그들과의 동지적 관계로서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대중의 무한한 신임을 쟁취할줄알아야한다」(전집二十七권一五三페지)

이러한 레닌적 교시는 직업동맹들의 모든활동에 있어 기본으로 되고있다。여기에 대중적 지도의 기본적 방법으로써의 직업동맹 민주주의의 본질이 아주 명백하게 방식화(方式化) 되여있다。

쓰딸린은 지적하기를 직업동맹에서의 민주주의라는것은 「직업동맹들에 조직되고있는 수백만로동대중에 대하여 설복적 방법의 조직적인 적용이 필요하며 유익하다는 자각을 예정하고있는 로동대중조직들에 고유한 자각적 민주주의이다。이러한 자각이 없이는 민주주의라는것은 헛소리로 변하고 말것이다」라고하였다。(전집五권八페지)

직업동맹의 민주주의는 대중들의 적극적이며 자각적인 창발력을 발휘시키며 그들에게 사회적 사업에 대한 조직자로서의 좋은 관습을 주며 비판과 자아비판의 전개를 도와준다。총회 또는 생산협의회를 례로 들어보기로하자。로동자들과 사무원들의 총회는 기업소들의 직업동맹지도자들 또는 경영지도자들과 대중과를 련결하는 주요한 수단이다。총회는 우리들의 발전의 추진력인 비판과 자아비판을 위한 대중적 연단이다。「비당원대중들은 비당원열성자들과 그들이 그의 지도자들의 보고를 청취하며 결점들을 비판하며 그의 수정방도를 세우는 온갖 종류의 대중적 협의회에서 자기들의 경리직업동맹및 기타의 지도자들을 검열한다」라고 쓰딸린동지는 말하였다。

총회는 대중에대한 정치적교양의 학교이다。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이 장성하였으며 국가의 주인공이라는 그들의 의식이 공고하여졌고 五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려고 지향하면서 자기들의 창발적발의를 무진장하게 발휘하고 있는 현재에 있어서 총회는 특별한 의의를 가진다。

대중들이 자기들의 숙련하고 창발적인 적극성을 발휘하며 자기들의 민주주의적 권리를 실현하는 또하나의 형태는 생산협의회이다。생산협의회는 쏘련의 공장 및 제조소들에서 견실한 역할을 놀고있다。해당한 기업소들 또는 광산들의 근로자들이 참가하는 생산협의회들에서 로동자들은「공장운영의 사업계획을 심의하며 오유들과 결점들을 지적하며 이러한 결점들을 직업동맹、당、쏘베트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수정할수있는 가능성을 가진다」。(쓰딸린)

생산협의회의 계획은 광범하고 풍부한 내용을 가져야하며 그 협의회들에는 기업소사업의 기본적 문제들이 제기되어야한다。이렇게 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수백만대중들의 적극성을 제고하여야한다。생산협의회는 직업동맹들의 활동에있어서 중요한 부분으로 되는것이다。

그런데 생산협의회에 대중의 적극적인 참가는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정치적 및 일반 문화수준의 확고한 제고와 그들의 직업적 기능의 장성과 완성을 요구한다는것을 또한 강조할 필요가있다。모·이·깔리닌은 말하기를 이것이 없이는「쏘베트적민주주의의 한 형태인 생산협의회는 자기의 가치를 상

실하고만다。다만 민주주의적 외관만을 유지하는데 지나지않는다면 그는 관리자들을 위하여 귀치않은 것으로되며 로동자 및 사무원들을 위하여서는 불필요한것으로 생각될것이다。반대로 문제에대한 연구、전문적인 기능들의 집적(集積)、사업에대한 정통한 심의(審議)、그리고 전문가들의 지시는 로동자 및 사무원들과 관리측간의 상호작용을 강화할것이며 아주 민주주의적 성질을 가진 관리 즉 쏘베트민주주의 전반적장성과 더욱 높은 발전을 촉진할것이다」。

직업동맹들과 경제기관들은 총회와 생산협의회를 규칙적으로 열고 거기에서 생산의 확대、로동생산성의 증대、근로자들의 문화적 물질적 생활조건의 개선등의 과업들피 관련되는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함으로써 정확하게 활동하고 있다。

단체계약을 체결하며 그의 수행을 검열하는것도 쏘베트직업동맹조직들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로동자들을 집체적으로 대표하는 공장위원회와 공장측간에 단체계약을 체결하는것은 사회주의적 생산을 백방으로 확장하며 추동하고 로동생산성을 높이며 여기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물질적 및 문화적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있다。

단체계약들은 아주 집체적이고 창조적인 의견들에 의하여 성립되며 여기에 관하여서는 一九四八년에있어서 단체계약들의 토의에 전체로동자들의 九十퍼센트 이상이 참가하였다는것을 보면 충분할것이다。그들은 생산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며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며 근로자들의 물질적 생활수준을 개선할데관한 수많은 건의들을 제출하였던것이다。

최근단체계약들에는 국가계획의 지수들에관한 것만이 포함되어있는것이아니라 거기에는 계획을 초과달성할데대한 대책들을 구체화하고있으며 사회주의경쟁을 일층 발전시키기위한 방법들을 예견하고있고 생산선구자들의 업적들을 백방으로 보급할 목적을 고려에 넣고있다。

단체계약은 국가적계획을 량적으로 뿐만아니라 질적으로 또는 생산품종류에 있어서도 이를 완수하고 초과완수하며 로동생산성을 증대하고 생산원가를저하시키며 새로운 기술을 침투시키고 생산조직을 개선하며 국가규률과 로동규률을 확고하게 준수하며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물질생활조건들을 일층 개선하고 로동자들과 기사 및 기술간부들의 자격을 향상시키는것들을 보장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있다。

단체계약들에는 쏘베트적 민주주의와 직업동맹민주주의의 위력이 반영되어있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민주주의적중앙집권의 원칙위에 구성되어있다。이것은 모든 직업동맹기관들은 하층으로부터 상층에까지 직업동맹맹원들로써 선거된다는것、

선거받은 기관들은 맹원들앞에 보고하여야된다는것、선임된 직업동맹공작원들은 맹원들앞에 책임자어야하며 맹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기한전에 소환될수 있다는것、직업동맹기관들은 자기의 사업에대한 문제들을 가련적으로 해결한다는것、직업동맹생활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맹원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수로써 결정된것은 전체맹원들에 대하여 의무적이라는것과 직업동맹의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복종한다는것등을 의미한다。

一九四八년에 완결된 직업동맹기관들의 선거는 직업동맹의 민주주의를 일층 발전시키며 직업동맹의 위원회들의 대중과의 련결을 강화하는것이었으며 二三○만명 이상이 직업동맹기관들에 피선되었다。직업동맹위원회들의 구성은 생산에 있어서 우수한 스따하노브츠들、기사들、기수들 그리고 문화일꾼들로써 경신(更新)되었으며 보충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직업동맹들이 사업에 있어서 결함이 없어졌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례를 들면 중공업기업소 건설로동자직업동맹의 개별적 부분은 직업동맹의 민주주의를 문란히 하였는바 약간의 직업동맹위원회들은 로동자 및 사무원들의 총회를 간혹 소집하고 있을뿐이고 맹원들 앞에 불규칙적으로 보고하고있으며 아주 드물게 생산협의회를 열고있다。석탄산업로동자직업동맹、유색금속로동자직업동맹、국가상업종업원직업동맹 및 기타 직업동맹의 많은 주(州)위원회들과 중앙위원회는 아직도 본위주의(本位主義)를 근절하지못하고 동맹기관의 계통을 문란히 하고있으며 어떠한사업부문에대한 책임을 추궁할만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곤난하다는 구실을 붙이면서 책임을 회피하는것을 근절하지못하고있다

약간의 직업동맹기관들은 반분개두에대한 전념가 옳지못하며 근로자들의 신청과 불만에 대하여 실는 넓어놓고 때리고만 있으며 가치있고 합리적인 건의들을 발전시키지않고있다。

一九二八년에 쓰딸린동지는 「자아비판에대한 표이의 비속화를 반대하여」라는 론문에서 다음과같이 썼다。……만일 가장 엄중한 장애가 아니라고 할찌라도 가장 엄중한 장애중의 하나로 되는것은 우리기관들에 있어서의 관료주의이다。여기에 말하고 있는것은 우리들의 당기관、국가기관、직업동맹、협동조합 및 온갖 종류의 기타기관들에 현존하고있는 관료주의적 요소들에 대한것이다。여기에 말하고 있는것은 우리의 약점과 결점들을 양(養)하고 있으며 대중적 비판과 대중적 감독을 불과같이 두려워하며 우리들에게 자아비판을 전개하지못하게하며 약점과 결점들을 고치지못하게하는 관료주의적 요소들에대한것이다。우리기관들에 있어서의 관료주의는 우

물쑤물하는데와 사무실주의에만 있는것이 아니다。관료주의는 우리기관들에 있어서의 부르죠아적 영향의 표현에 있다。

그때로부터 二十년이 지나갔다。이 기간에 우리의 직업동맹기관들은 견고하여졌으며 대중과의 그들의 련결은 튼튼하여졌다。그러나 관료주의적 요소들은 아직도 완전하게 청산되지못하고있다。우리의 발전을 추구하는 자아비판은 관료주의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解毒劑)이며 직업동맹들의 모든 활동을 향상시키는 공간(槓杆)으로 된다。

모든 직업동맹사업을 제고시키는데 있어서 필수적 조건으로 되는것은 직업동맹간부들의 사상적 리론적 수준을 높이는데있다 그러므로 당조직들의 의무는 직업동맹간부들이 맑쓰—레닌주의 리론으로 무장하도록 도와주는데있다。직업동맹의 간부들과 열성자들에게 볼쉐위끼적 사업작풍을 습득시키며 일반적지시를 구체적、문제들과 결합시키는데 숙련하게하며 개인적 책임에대한 수행을 검열하게하며 자타(自他)에대한 요구에 숙달하게하며 결의한 과업들의 수행에로 대중을 궐기시키는데 정통하게하는것이 필요하다。전후 쓰딸린적五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완수하며 쏘베트국가의 군사경제적위력을 공고하게 하기위한 사회주의경쟁의 조직에 있어서는 직업동맹들의 주동성을 발전시키어야한다。

× × ×

一九四九년四월에는 제十차쏘련직업총동맹대회가 개최된다。직업총동맹대회는 쏘련근로자들의 생활에 있어서 저명한 사건으로 되는것이다。대회는 쏘베트국가에서 전동맹적으로 사회주의 경쟁을 전개한 二十주년과 동시에 소집된다。대회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분야에 있어서의 쏘베트직업동맹들의 투쟁을 총결할것이며 공산주의학교로서의 쏘베트직업동맹들의 사업을 일층 개선하는데있어서 막대한 역할을 할것이다。

쏘베트직업동맹들은 레닌과 쓰딸린이 가리키는 길을 걷고 있기때문에 공산주의학교라는 자기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있다。직업동맹들은 자기들의 위신을 견고히 하고있다。그것은 그들이 대중과 밀접하게 련결되고 있으며 대중들의 중대한 리해관계를 옹호하며 락후한 경향들과는 투쟁하며 쏘베트제도의 생활적 기초로 되고있는 볼쉐위끼당의 정책을 실행하고 있기때문이다。

직업동맹들은 레닌—쓰딸린적사업의 승리와 쏘베트국가에 공산주의를 건설하기위한 투쟁에 있어서 종시일관하게 볼쉐위끼당의 진정한 방조자로 되고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그러할것이다。

(「볼쉐위끼」지 一九四九년 제二호게재)

선전선동원들에게 주는담화자료

五·一절은 근로대중의 전투적 위력을 검열하는 날이다

五·一절은 전세계근로대중의 전투적 력량을 검열하는 날이며 각국 근로대중의 형제적 단결과 친선을 시위하는 국제적 명절이다。

조선인민은 영웅적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역할로 해방된후 자유로운 조건아래 네번째 돌아오는 五·一절을 국제국내정세의 보다더 첨예한 환경속에서 맞이한다。

전세계 근로대중은 심각한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 빠진 제국주의 진영의 로골화된 전쟁도발행위와 그들을 반대하여 더한층 강화된 민주진영의 반제국주의 평화옹호의 치열한 투쟁속에서 一九四九년 五·一절을 맞이한다。

미제국주의를 두목으로한 반민주진영의 침략적 팟쇼도배들은 전쟁을 광포하며 평화를위한 모든 국제공약들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면서 전쟁도발행위를 로골화하고있으며 중국、인도네시아、월남、희랍등에서 야수적 류혈적 전쟁을 계속시키고있다。또한 자본주의국가들내에서는 경제공황과 인민생활의 파탄 및 정치적 사회적혼란이 첨각화하여 가고 있으며 민주진영에 대한 반동적 탄압、테로、학살정책과 폭동행위를 민주운동을 비방하여 분렬 파괴하려는 제동적 책동을 강화하여 가고있다。

반면에 쏘련 및 신인민민주주의국가는 놀라운 부흥발전을 보이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매진중은 승리적으로 앙양되고 있으며 반민주주의측간

내에서의 로동운동은 어느때보다도 더욱 대중적으로 장성하며 민주주의운동의 국제적 단결과 반전 반제투쟁은 미증유의 속도로 광범하게 확대강화되고 있다.

그러면 탐욕적 침략을 목적하는 전쟁조발자들의 광포한 발악은 어떻게 로골화하며 자본주의국가들에서의 위기는 얼마나 심각화하고있는가?

첫째로, 미영 지배층은 파시즘을 반대하며 공고한 평화설정을 위하여 체결한 포츠담선언, 얄타협정을 위반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적 교섭에서 쏘련과의 협조를 거부하고있다.

그것은 독일과 일본을 군국주의로 재생시키려는 ·책동에서와 유·엔에서 일치가결원칙을 파탄시키려하며 군비축소와 원자무기금지에대한 쏘련의 제의를 거부하며 조선문제, 희랍문제, 인도네시아문제등의 합의를 거부하는데서 표현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렇게 쏘련과의 국제협조를 거부하는 한편 「서부동맹」 「북대서양동맹」 지중해쁠럭등 각종 침략적 군사동맹을 획책하고있다.

쏘련 및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 반대하며 「마샬안」을 실천하기 위한 군사적보강으로 영, 불, 백이의, 화란, 룩셈부르그등 五개국으로써 체결된 서부동맹의 「비밀」은 이미 세상에 폭로되었다.

최근에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은 유·엔헌장에 위반되며 「공동방위」가 아니라 쏘련에 대한 공동공격을 목적하는 것이며 「북대서양지역」의 안정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새 침략전쟁을 조발하는 목적을 가진것이다.

三월三十일 쏘련정부의 각서가 지적한바와같이 북대서양조약은 「명백히 침략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쏘련에 반대하는 방향을 가지고있으며 평화강화와 국제적 안전에 도움이 되지않을뿐아니라 유·엔헌장의 원칙과 목적에 저촉반대되는것이며 유·엔을 파괴하게 하는것이다」.

그것은 그 조약에 가입치않은 강국으로서 쏘련밖에 남지않은 사실과 유·엔헌장의 지방적 조약으로는 도저히 간주할수없는 량반구에 걸친 세계적 동맹인 것으로만도 증명된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새 전쟁준비는 새 침략을 목적한 제조약뿐아니라 전세계에 확대시설하고 있는 그들의 군사기지망과 군비확장에서 폭로된다.

미국군사기지망은 「거대한 환」을 창설하고있다. 이 「거대한 환」은 그린랜드, 아이스랜드, 포로도가르, 서반아, 독일, 이태리, 희랍, 근동 및 중동 제국으로부터 태평양제도(諸島)를 결쳐 중국, 남조선, 일본 및 알라쓰카등 지점에 뻗쳐있다. 그러므로 이 「거대한 환」이 쏘련을 포위하고 있는것은 명백하다. 그들은 「북극지대를 중요한 전쟁터로 화할 수있는 견지」에서 또 「공격의 견지」로 보아 공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은 군비확장을 위한 군사지출에 총예산의 七六%를 계상하고 있으며 서구라파에 七十사단을 증강하기 위하여 三백억 딸라를 지출하지 않으면안되게 되었다.

둘째로, 제二차대전이 종결된지 四년이 가까운 오늘 세계의 일부에서는 전쟁이 아직 계속되고있다. 중국과 희랍에서의 국내전쟁, 인도네시아와 월남에 대한 침략전쟁등은 이것을 말하는것이다. 제二차대전이 종결되면서 자유와 독립과 평화의 서광이 울리고 평화적으로 자유독립국가를 건설할 조건이 독일, 이태리, 일본의 기반하에있던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에게 부여되었다. 그러나 미제국주의자들은 자기들의 독점적 리윤을 탐구하기위하여 새 식민지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중국에 六○여억딸라의 차관과 무기를 보내며 군사고문과 기술단을 파견하여 내전을 조장하였으며 화란을 사수(使嗾)하여 무장을 원조하면서 인도네시아침략전쟁을 추동하고있다. 또한 희랍에서 미국이 류혈적 내전조장을 하고있는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북대서양조약의 유·엔헌장과의 「합치」를 가장하고 「방위」와 「안전」을 소리친다하더라도 이 모든 사실에서 그것은 절대 은폐되지 않는다.

셋째로, 자본주의국가들은 최근 심각한 경제적 공황에 빠지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의 경제공황은 생산의 축소와 실업자의 증가 및 파산자수의 증가와 아울러 도매가격 폭락, 화폐류통의 축소, 농업형편의 악화로 특징된다. 미국에서는 현재 탄광, 공장등의 폐쇄와 로동자의 해고가 급속도로 증가되고있다. 생산축소의 증거로써 一九四八년말에 공업생산수준은 전시에 비하여 八五%도 되지못하며 최근 화물수송량은 一九四七년도보다 一八·七%감소되였다. 한편 로동자의 임금은 끊임없이 저하된다. 례를들면 탄광부의 임금은 三○%나 저하되고있다.

실업자는 현재 미국에서 五백만 이상이라고 하며 그외에 반(半)실업자가 一천二백여만명에 달한다. 실업자의 수효는 매시간마다 격증하고 있다. 례를들면 지난 十二월부터 一월까지의 一개월간에 七十만의 실업자가 증가되었다. 뿐만아니라 五백만의 가족이 빈민굴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六백만의 아동이 취학하지못하고 있다.

경제적 공황과 아울러 사회적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있다. 례를들면 파시스트단체와 갱그의 살인, 강도, 테로행위는 미국의 일상사로 되고있으며 팟쇼, 갱그의 살인행위는 一九四八년도에 一六六만건이나 된다고 한다.

「마샬안」에 의하여 실시한 소위 「원조」는, 서구제국의 부흥은 고사하고 경제적 파탄과 정치적 예속의 결과밖에 가져오지 못하였다。

불란서의 예를 들어보자。공산당과의 련립내각당시에, 생산이 전쟁전수준까지 거의 복구되고있던 불란서는 공산당원을 정부에서 축출하고 「마샬안」을 실시한결과 생산축소와 파산등의 혼란상태에 빠져있다。

례를들면 지난 一월에 二八二개소、二월에 三一八개소의 공장들이 파산되고 또는 청산되었으며 폐업 一○개소이상의 기업소가 폐쇄되고있다。이리하여 「마샬안」실시후 一년동안에 불란서의 공업생산능력은 五○%로 저하되었다。

불란서에 있어서 국민소득의 四五%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의 손에 들어가고 대다수의 근로인민에게는 三九%의 소득밖에 들어가지않으며 근로인민의 생활비는 최저임금보다 二五%가 부족된다。그러므로 그들의 구매력은 五○%로 감소되었다。반면에 세금은 二배로 증가되고있으며 군사지출은 작년보다 一三%나 증가시켰으며 통화팽창은 一九三七년의 十배나된다。

미국에 예속되어가고있는 영국에서도 실업자가 계속 증가되고있다。지난 十二월에 비하여 一월에는 실업자가 四만八천五백명이 증가되었다。一월중에 일어난 파업 수에서 四七건은 임금인상을 위하여 일어났다。

이태리에는 三백만의 실업자가 있으며 一九四八년에 공업생산수준이 전쟁전보다 二一%가 저하되었으며 (기업소) 생산능력은 四九%ー五○%가 감소되고 있다。

인구가 소수인 백이의같은 적은 나라에서도 「마샬안」의 덕택으로 벌써 三十만의 실업자를 내었을뿐아니라 「로동자수출」이 실시되고있다。

팟쇼서반아에서는 농업생산이 전쟁전의 四분의一로 감소되었으며 금속공업은 五七%로 채굴업은 二八·四%로 감소되었으며 二七○만의 기아자가 거리에 방황하고 있다。미군점령하의 일본에서도 실업자수는 六백만명에 달하고있다。

이렇게하여 오늘 자본주의국가에서의 경제적 위기는 어데를 물론하고 심각화하고 있다、

넷째로, 제국주의자들은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민주주의운동의 탄압과 분렬을 위하여 광분하고있다。

미국에서는 반미행동조사위원회가 공산당원을 위시한 진보적 인사들을 「반미행동」이란 명목아래 박해하고있으며 타프트、하틀리법은 약속대로 철폐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로동운동에 대한 더한층 광포한 탄압에 적용되고있다。팟쇼、테로、깽그들은 민주운동 폭압을 위하여 공공연히 동원하고있다。

최근에 열린 미국공산당 지도자들에 대한 재판、호주공산당수의 가소、얼마전에 류행된 이태리、일본등 공산당지도자들에 대한 테로사건등은 공산당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공포와 발악적 탄압과 테로정책을 말하는것이다。

공산당은 토이기、서반아등지에서 합법성을 강탈당하고있다。공산당원과 기타 진보적 로동운동자에 대한 박해는 인도、이라크、중국국민당통치구、일본、서부독일등지에서도 계속되고있다。최근 이라크공산당총비서 유세흐스페만등의 사형과 대중적학살、인도공산당원의 대검거(공장지대에서 一、○六○명을 검거하고 나로끈지구에서는 三일간에 천명을 검거하였다)와 희랍 애국자들에게 대하여 계속되는 사형、특히 희랍직총서기장 파파리카스에대한 학살등은 제국주의반동들의 발악을 구체적으로 증시하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애국자들에게대한 총살은 도처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있다。례를들면 서반아에서는 一九四七년一월부터 一九四八년八월까지 五八八명의 애국자를 총살하였다。

테로、탄압정책과 아울러 민주운동을 파괴하기위하여 제국주의자들은 분렬정책과 비방정책을 쓰고있다。국제사회당의 부활을 비롯하여 사회반역자들의 국제련맹의 부활을 위한 책동、쏘련 및 신민주주의국가들에 대한 중상적 비방등은 모두 이 목적을 추구하기위한것이다。최근에 미국생산직업동맹과 영국 트레드 유니온평의회 지도자들이 국제직맹활동을 정지하자고 제의한 사실과 단독적 세계직맹을 창립하려는 음모는 또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미영지배층은 자기들의 세계제패의 야욕과 팟쇼적 정책을 인민에게 은폐하기 위하여 코스모폴리찌즘、「미국화」사상、앙글로싹손인종론을 히틀러의 본을 받아 세계에 전파하고있다。

그러면 이반면에 영구하고 공고한 평화와 민주를위한 세계인민의 력량은 어떻게 장성하고있는가

첫째로, 평화와 민주의 위대한 성벽인 쏘베트동맹은 대전후 불과 三년동안에 전쟁의 참화를 회복하고 미증유의 속도로 부흥발전하고 있다。

쏘베트동맹의 一九四八년 공업생산액은 一○六%로 초과완수되었으며 전쟁전一九四○년의 수준을 一八%를 초과하였다。농업생산액도 전쟁전수준에 도달하고있다。물가는 작년에 비하여 一○ー三○%를 저하시켰으며 실질 로동임금은 二배로 장성되어 인민생활은 급속도로 향상되고있다。자본주의국가들이 전후공황에서 생산축소와 실업에 허덕이고있는 이때에 쏘련은 이렇게 부강하여지며 위대한 력량을 발휘하고있다。오늘 쏘련은 二억만 선진인민의 강

철같은 정치적 사상적 통일로써 공산주의로 향하여 위대한 건설을 하고있다。그들은 위대한 쓰딸린 대원수와 볼쉐위끼당의 령도하에 세계평화와 안전의 진위대로 되고있다。

인민민주주의국가와 부흥발전은 또한 세계민주진영의 위대한 력량으로 되고있다。

동구、동남구라파의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쏘련의 우의적 방조와 인민의 공고한 단결과 애국적열성으로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초과달성하여 이미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쟁전수준을 초과달성하고있다。전쟁전수준보다 공업생산량이 五〇%를 초과하고、파종면적과 농산물까지 전쟁전수준을 초과한 파란에서는 이미 배급제가 철폐되고있으며 六개년계획을 다시 계획하고있다。체코슬로바키아도 공업생산액이 이미 전쟁전수준을 一〇%초과하고、로동자의 임금도 一〇—二〇%향상하였다。이 국가들에서는 공업부문이 비상히 장성되고있으며 실업이 청산되었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은 날마다 향상되어 가고있다。

이 나라들의 근로자들은 자기를 자기의 운명의 주인으로 력사적 창조의 참가자로 간주하고있다。이미 대부분의 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들은 사회주의 건설을위한 투쟁에 돌진하고있다。

또한 인민민주주의국가들에서는 이미 국내반동을 숙청하면서 인민의 통일전선이 강대한 세력으로 국가의 기초가되어있으며 세계민주운동의 힘있는 일환으로 되고있다。

둘째로、미국을 위시하여 자본주의제국가와 독일、일본、이태리등 패전국가들에서의 급격히 장성된 로동운동의 거파는 제국주의 국가내부에서 제국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들—미국、영국、불란서、이태리、일본、서부독일등에서는 전후 三년간에 대중적 파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것이 가장 특징적이다。특히 이 나라들에서 폭발된 작년도의 총파업들은 제국주의에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되었으며 민주주의운동에서 로동계급의 주동적 력량을 과시하였다。

반동의 아성인 미국에 있어서는 一九四六년도부터 매년 五백여만명이상의 파업이 계속되었으며 최근에는 四十만명의 탄광부파업이 일어났다。

가장 왕성한 반동선전과 매수、테로、분렬등 정책으로 특징되는 미국에서도 진보적민주력량은 장성되고있다。미국공산당을 선두로한 미국의 진보적세력은 재전쟁을 반대하며 인민탄압을 반대하여 궐기하였다。반미행동조사위원회에 등록된 六五二개의 단체와 一九〇개의 출판물의 숫자는 장성하여가는 미국의 진보적 력량을 표시하는 한 례증으로 된다。미국의 진보당은 민주주의적 진보적 강령으로 수백만의 지지를 받고있다。공산당은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민주운동의 중심세력으로 되고있다。

레이버당 치하의 영국에 있어서 트레도 유니온간부들로써 공산당원이 속속 선거되며 레이버당정부와 트레드 유니온간부의 의사에 반하여 대중적파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있다。례를들면 금년一월에 영국에서 一一건의 파업이 있었다。

불란서 인민의 민주주의 운동은 불란서공산당의 지도하에 맹렬하게 전개되고 있다。불란서공산당과 직업총련맹은 대전후의 수차의 선거와 파업투쟁에서 항상 승리자로 나서고있다。그들이 열렬히 창도하는 평화옹호운동도 또한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오랫동안 반동팟쇼의 쇠사슬에 얽매어있던 이태리에 있어서 민주주의적 운동의 급격한 장성은 가장 현저하다。작년도에 이태리인민은 농업로동자의 파업과 총선거에서 위대한 단결력을 표시하였으며 전쟁반대의 맹렬한 항의투쟁에서 국제반동에 대 타격을 주고있다。

최근 금속、전기、광산부문등에서 수만명 로동자의 파업을 일으킨 맥아더 치하의 일본에서도 민주주의운동은 급격히 장성한다。지난번 총선거에서 일본공산당은 三五명의 의석을 차지하여 그 력량의 장성을 과시하였다。

서반아에서는 팟쇼제도를 반대하는 유격부대의 활동이 전국의 五분의一지역에 확대되고있다。이렇게 제국주의전쟁 조발자들이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민주력량은 더욱 공고화되고 강대하여진다。

셋째로、전후 급격히 앙양된 식민지 및 예속국가들의 장성된 민족해방운동은 제국주의 진영의 배후에 커다란 위협으로 되는것이다。식민지인민들은 옛날과같이 살려고 하지않으며 제국주의국가는 벌써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 식민지를 통치할수는 없게 되었다。오늘 식민지 및 예속국가 민족해방운동의 승리적 진전은 중국、월남、인도네시야、비르마、마라이등지에서 특히 현저하다。

중국에서는 수백만의 무력을 가진 중국인민해방군의 거대한 승리로 말미암아 오늘 三억만 인구를 가진 광대한 지역에 신중국이 건설되었으며 장개석국민당반동정부의 붕괴는 시간문제로 되고있다。중국인민해방운동의 승리는 민주평화세력으로서의 결 민주주의중국을 전취함으로써 세계민주진영의 력량에 위대한 작용을 하고있으며 제국주의 진영에 거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월남공화국 三천만 인민은 굳게 단결하여 민주개혁을 공고화하며 괴뢰정부를 반대하며 불란서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치렬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미제국주의에 복무하는 화란제국주의자들의 야수적 침략으로 인하여 류혈적 전쟁에 휩쓸린 인도네시아에서 약七천만 인민은 화란군의 공격을 분쇄시키면서 인민민주전선에 공고히 단결되어 맹렬한 유격전을 전개하고있다.

비르마에 있어서 전지역 九十六개 지구중 十개지구는 이미 무장인민이 장악하여 인민정권을 수립하였다.

이리하여 제국주의 배후는 도처에서 파괴되고 있다.

그래도, 오늘 전세계인민은 공고한 평화와 자유를 위하여 제국주의 압박을 물리치기 위하여 반동을 반대하는 투쟁의 공고한 조직체들에 단결되어 있다. 이 투쟁의 선두에는 각국 공산당이 서고 있으며 백전백승의 리론 맑스-레닌주의로 무장한 공산주의자들이 나서고 있다. 세계각국에서 공산당들의 꾸준한 장성은 이를 증명하는 명백한 사실로 되고있으며 그의 력량과 위신과 영향은 날로 자라나고있다. 례를 들면 불란서공산당은 제二차세계대전 직전까지 三十만명의 당원을 가지었던것이 지금에 와서는 백만명에 달한다. 이태리공산당원은 전쟁전까지 만五천명이었던것이 현재 二백二十八만三천여명에 달하며 일본공산당은 제五차당대회에서 제六차당대회까지의 十개월간에 당원十만명으로부터 백만명으로 장성하였다. 중국에서는 공산당이 전전에 六十만명의 당원을 가지었던것이 현재는 三백만의 당원을 가지고있다.

공산당들의 세력은 이들 나라에서 뿐만아니라 겨우 통치하고있던 국가, 혹은 식민지 예속국가들에서도 급격한 장성을 보이고있다. 공산당들은 인민민주주의제국가에서 (파란 불가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항가리 루마니아) 사회당들과 합당하여 로동계급의 유일당을 실현하였으며 대중적정당으로 그 력량을 장성시키고있다.

이리하여 전세계의 공산당들과 통일로동당는 현재 一, 八〇〇만의 성원을 가지고있다.

견실한 민주력량의 장성은 직업동맹운동의 국제적 통일과 조직의 강화에서도 볼수있다. 一九四一—一九四六년기간에 전세계에 있어서 직업동맹원수는 四천만으로부터 八천만에로 장성되었다.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앞잡이들의 분렬책동을 물리치고 오늘 세계직업동맹은 五十六개국 七, 一五〇만의 맹원을 단결시킨 로동계급의 통일된 국제적단체로 그 조직을 공고화하고있다.

五十六개국 八천만 녀성들로 조직된 국제녀성동맹은 세계의 민주주의 [illegible] 인류의 [illegible] 새로운 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여 [illegible] 을 [illegible]. 그들은 [illegible]

위하여 인민들의 안전과 독립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녀와 가정을 위하여 더한층 용감하고 더한층 열성적으로 투쟁할것을 전세계에 호소하고있다.

五천만 민주청년을 망라한 국제민청은 근로인민의 민주주의적 단체로써 영원한 평화, 전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새전쟁을 반대하면서 五·一절을 맞이하는 전세계인민은 북대서양동맹과 새전쟁조발의 로골화를 계기로 궐기한 세계평화옹호운동에서 그 력량을 총결렬한다.

四월二十일에 파리에서 개최되는 세계평화옹호대회에 호응하여 四월五일현재 五억五천만 인민을 대표하는 대표들이 대회에 참가할것을 이미 희망하였고 二十여국가에서 준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벌써 지난 三월三十一일부터 미국에서 개최된 세계평화옹호문화인 과학인대회에서 평화세력의 위력은 시위되였다.

오늘 전세계인민은 민주, 인종,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여하를 불문하고 전쟁을 반대하여 일치단결하고있다. 평화를 옹호하는 민주세력의 가장 선구자이며 가장 헌신적인 각국 공산당은 쏘련과 세계인민을 옹호하여 새전쟁을 반대하여 강력히 투쟁할것을 성명하였다.

새전쟁을 극복할 가능성에 대하여 이태리 공산당 총비서 톨리앗티는 전쟁을 제지(制止)하는 요소로써 제국주의그루빠간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전쟁방화자들의 계획에 있어서 가장 큰 제지력이 되며 또 가장 엄중한 장애가 되는것은 평화를 희망하는 인민들의 지향이다. 인민들은 전쟁을 반대한다. 여기에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약점이 있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새전쟁조발을 분쇄하기위하여 「우리가 커다란 주의를 돌리고있는 파리평화옹호대회주위에 군중을 동원」할것을 호소하였다.

새 전쟁방화자들의 [illegible] 공포와 흥분은 [illegible]의 사실이다. 세계 인류는 한세기에 두번의 대전을 겪었다. 인민들의 앞에는 얼마전 전쟁의 공포가 너무나 생생하다. 평화를 고수하는 인민의 력량은 오늘 제국주의 전쟁조발자에 비하여 너무나 엄청나게 강대하다. 그러므로 인민의 이 력량은 한줌도 못되는 전쟁조발자의 온갖 공갈과 기만으로도 움직여내지 못할것이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의 광조한 전쟁조발에 대하하는 전세계평화옹호인민의 [illegible] 투쟁은 제국주의 전쟁조발자들의 계통을 분쇄하고야 말것이다.

◇

오늘 [illegible]

코관제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국토의 남반부에 미제국주의군대가 주둔하고있는 조건하에서 五·一절을 맞이한다。

그러하여 미제국주의자들과 그의 충복인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도당들의 망국행위는 더욱 로골화하여 가고있으며 단말마적 발악으로 변하였다。

이 매국도당들은 총칼로써 망국 五·十「단선」을 감행하여 친일과 민족반역자들의 집단인 괴뢰「국회」 괴뢰「정부」를 조작하여 내었을뿐만아니라「유·엔신조선위원단」이라는 허수아비집단을 조선땅에 끌어들여오는등 갖은 광태를 부리면서「한미군사협정」「미군남한주둔승인안」등으로 미침략군대의 계속주둔과 탐욕적 식민지예속화정책을 합리화시켜보려고 광분하고있다。

경제적 방면에 있어서 미제국주의자들은 고의적으로 남조선의 경제를 파탄시키며 민족공업의 부흥과 발전을 조해하여왔으며 하고있다。

그뿐만아니라 그들의 매국적죄악은 소위「재정급재산이양에 관한 한미협정」「한미 경제원조협정」「한일통상협정」등 경제적매국협정까지 체결하는데 이르렀다。

이와같은 조건하에서 남조선의 경제는 일로(一路) 피폐되어가고 있으며 인민들의 생활형편은 도탄의 극치에 달하고있다。

산업방면에 있어서 남조선서울지대에 있는 三천여개의 기업소중에서 현재조업능력이 있는 기업소는 전체기업소수의 불과 五%이며 그중에서 운영되고있는 기업소들은(二十三%밖에 되지않는다。례를들면 공업지대인 영등포지구에도 완전히 조업하는 공장은 하나도 없으며 생산력은 종전의 二十분의 一로 저하되고있다。

농촌경리부문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현상을 볼수있다。미군정 三년여에 남조선의 경작면적과 곡물수확고는 년년이 줄어가고 있다。경작면적은 미군주둔이래 매년 감소되어 三년동안에 九八만 五천여정보가 감소되었으며 계속 감소되고있다。

미곡 수확고에 있어서 해방전 남조선의 평균미곡생산량은 一六，五一一，八〇七석으로부터 해방후 三년간의 미곡 평균수확고는 一，一七九만석으로 저하되어 년평균 四七二만석이 감소되고있다。경작면적과 곡물수확고의 감소와함께 총칼로 감행되는 일제시대를 릉가하는 공출로 인하여 농민들은 미증유의 참경에 빠지고있다。一九四六년부터 一九四八년까지의 곡물공출량은 합계 一，八三九만三천석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배반의 공출량이 증가되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곡창이던 남조선은 적황이 전멸한 지대로 변하였다。방금 남조선에서는 三월이후 九개월간 량곡수요량은 최소한도 五九六만석이 있어야 할터인데 二월말현재 식량재고는 겨우 一六一만석밖에 없으니 이것으로써는 앞으로 二、三개월도 가지못하겠다고 대혼란을 일으키고있다。

경제적 파탄은 필연적으로 인민들을 빈궁과 기아선상에서 방황하지않을수없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작년十一월二十二일부 세계일보는 여기에 대하여 직업이 없이 방황하고 있는자가 전 남조선적으로 五백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산업의 황폐화와 함께 통화의 무제한적 람발은 미증유의 물가폭등을 초래하였다。그리하여 작년十월의 소매지수는 一九三六년보다 七二九배로 올라갔다。이에 반하여 로동자들의 실제임금은 一九三六년도에 비하여 二八% 심한부문은 一八%까지로 저하되었다。

매국도당들은 인민들을 도탄에 몰아넣고는 야만적 테로、학살로써 무고한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다。그들은 진보적이며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탄압하며、애국적인사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학살하며、진보적 언론 출판기관들을 파괴 폐간시키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매국반동도당들의 발악은 한층더 로골화되었다。그들은 소위「국가보안법」「지방행정조직법」이니 하는 악법들과 테로단체、민보단을 위시하여「사정국」이라는 리승만의 직계테로단을 조작하여 인민들을 무차별 검거 학살하고있다。더우기 인민무장폭동이 전개되자 망국노들의 살인마적 인민도살정책은 조국의 남반부땅을 피로 물들이고있다。례를들면 그들이 발표한 숫자에 의하며라도 제주도에서 二十五만인구중 약 四%에 해당한 九、五三九명의 인민을 도살하였으며 인가 五만호중 一三、二五〇호를 소각하였다한다。또한 고흥(高興)지구 한지방에서만도 반동「국군」「경찰」들은 一만八천二十三명의 인민을 살상하였으며 三백五十七호의 가옥을 불살라버렸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야합한 리승만도당들의 이와같은 야만적중세기적 학살을 무릅쓰고 남조선인민들은 맹렬한 구국투쟁을 계속전개하고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투쟁에서 조직되고 단결이 더욱 굳어졌으며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주의 사상이 튼튼히 뿌리잡힌 남반부로동계급을 선두로한 남반부인민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을 높이 들고 미군은 즉시 철거하라! 리승만 괴뢰정부를 타도하라!「유·엔신조선위원단」을 철퇴배격한다!고 외치면서 손에 무기를 잡고 직접 무장폭동의 길로 들어섰던것이다。

이리하여 작년 四월三일 제주도에서 봉화를 올린 무장폭동은 오늘 남조선전역에 전파 확대되어

가고있다. 제주도, 함양, 구례등지의 수개지구에는 일부위원회가 복구되고 토지개혁등에 착수하였다. 제이차구국투쟁을 군저초한 유격전은 三월十일현재로 八도 三시 八十一군 一도(島)에 퍼져가고 있다.

남반부인민들의 이와같은 영웅한 투쟁과 함께 북반부인민들의 경제건설을 위한 애국적 투쟁은 국제반동파 결탁한 괴뢰「정부」를 타도하고 국토 완정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 역량으로 되고있다.

북반부인민들은 쏘련군대의 아낌없는 방조와 김일성수상의 올바른 영도밑에서 이미 전취한 민주개혁의 재반 성과들을 공고발전시키면서 조국의 경제적 토대를 공고히 하기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일제가 파괴하여놓고간 수많은 공장 철도 광산들은 단시일내에 복구되었으며 一九四七년도인민경제계획은 一〇二·五%로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은 一〇二·九%로 초과달성하였다. 이는 총생산액에 있어서 一九四八년도에는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二·六배 이상이며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三九·一%에 해당되며 많은 산업부문에서 해방전 일제시대 최고생산수준에 도달하고있다. 또한 로동생산성에 있어서 一九四六년도의 三二배이상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三六·一%로 제고되어있다.

농업에 있어서는 경작면적과 수확고는 년년이 증가되어 일제시대의 최고수준을 증가하였다. 즉 一九四八년도에 이르러 일제시대의 최고수준인 一九三九년도에 비하여 파종면적에 있어서 一〇三·八%를 확장하였으며 수확고를 一一〇·四%로 증가시켰다. 이리하여 북반부는 식량이 결핍하던 지대로부터 식량이 여유있는 지대로 전환되었다.

인민경제계획의 초과실행은 공화국의 경제적 기초를 년년이 더욱 확고히 할뿐만아니라 근로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을 부단히 향상시키고있다. 물가는 끊임없이 저하되고 인민들의 구매력은 향상되고있다. 례를 들면 평양시내 물가지수는 一九四七년말에 비하여 지난 三월말현재 五二·三%로 저하되었다. 이리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날로 향상되고 있다.

로동자들의 자발적 호소 호응에 의하여 전북조선적으로 전개된 증산경쟁운동은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는 커다란 동력으로되어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대표하며 옹호하는 우리 북조선 로동당은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내에서 주도적 역활을 하면서 국토완정을 위한 투쟁의 선두에서 싸우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 있어서 굳게 결속된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은 인민정권의 시책을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지난 三월三十일에 진행된 지방주권기관 선거사

업의 승리적성과는 인민주권을 강화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적기초를 더욱 공고화하였다.

또한 조선인민에게는 조국강토와 민족의 리익을 보위할수있는 조선인민이 낳은 강력한 인민군대가 있다.

뿐만아니라 반동과의 투쟁에서 우리들은 국내적으로만 력량이 단결되고 강화되어가고있는것이 아니라 국제적 민주력량과 밀접히 련결되어있으며 그의 지지를 받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쏘련을 위수로한 제인민민주주의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전세계 민주진영의 선두에서 국제반동을 폭로 분쇄하고있는 쏘련과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조쏘량국간의 영구불멸의 친선을 강화하며 조국경제건설의, 튼튼한 담보로 될뿐만 아니라 극동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커다란 기여가 될것이다.

우리의 직업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은 각각 자기의 국제적 조직에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 로동자 사무원 청년 녀성들과 어깨를겯고 민주와 평화를 위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오늘 새전쟁방화자들을 반대하며 평화옹호의 목소리가 전지구를 뒤흔들고있는 이 마당에서 조선의 과학자 문학가 예술인 교육자 로동자 농민 청년 녀성 종교인들은 전세계 평화옹호인민들과 한대열에서 공고한 평화를 위하여 투쟁할 견결한 투지를 보이고있다.

국제반동과 결탁한 국내 파시스트매국도당들이 제 아무리 최후발악을 하고있더라도 우리 공화국 기치하에 집결된 조선인민들은 더욱 굳은 승리의 자신심을 가지고 미제국주의 군대를 우리 조국강토에서 철퇴시키고야 말것이며 한줌도 못되는 매국반역도당들을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야 말것이다.

우리 조선인민은 전세계인민들과함께 쏘련을 중심으로한 세계평화진영에 현재보다도 더 굳게 단결하여 민주와 평화를 위한 투쟁에 총궐기하여 승리를 향하여 전진하면서 五·一절을 맞이하자!

一九四九、四、二三 김 성 용

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연구자료 (十三)

쓰딸린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에 대하여

그·모·가크

쓰딸린동지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는 볼쉐위끼당과 모든 나라의 공산당의 위력한 리론적 무기이다。이 저서에서 쓰딸린동지는 맑쓰―레닌적 세계관을 더욱 발전시키였으며 그것을 새롭고 높은 단계로 제고시켰다。

맑쓰와 엥겔쓰에 의하여 수립된 세계관은 철학의 력사에 있어서 혁명을 의미하는것이였다。소수자의 리론이였고 「선발된 소수의 유산―정신의 귀족」(아·스다노브)이였던 과거의 철학적 리론과는 바대로 맑쓰주의적 세계관은 수백만의 근로자들의 학설과 기치(旗幟)로 되었다。맑쓰주의는 로동계급의 과학적 세계관이다。맑쓰주의적 철학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운동에 응(應)하였고 혁명운동의 도구로서 그들의 수중에 있었다。맑쓰와 엥겔쓰는 철학의 대상과 그의 과업에대한, 과학과 생활에대한, 그의 관계에대한, 그의 사명에대한 새로운 견해를 설정하였다。과거의 철학적리론은 「과학의 과학」의 역활을 참망(僭望)하였고 자연과학을 「자연철학」으로 대체(代替)하고 사회과학은 「력사철학」으로 바꾸어 놓으려고 시도하였고 철학은 절대적인 지식의 종결된 체계를 차지한 자로서 스스로 자만하고있었다。변증법적유물론은 원칙적으로 과학에대한 새로운 관계로써 특징지어지는것이다。그것은 자기를 과학위에 두지않으며 그것은 소여(所與)의 과학과 사회적 력사의 자료를 총화하는 토대위에서 발생하고 발전되며 혁명운동을 인식하는 방법으로된다。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은 공산주의의 리론적 토대이며 맑쓰주의당의 리론적기초이다。

이 위대한 세계관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맑쓰와 엥겔쓰의 천재적저술 특히 「공산당선언」「자본론」및 「반(反)듀링론」이 가지는 의의가 결코 상실되지않을것이다。이 책들에서 이미 수세대(世代)의 맑쓰주의자들이 교양받았고 미래의 세대도 그것으로 교양받을것이다。그러나 二〇세기초에 벌써 레닌이 볼쉐위끼당을 창건하고 당을 맑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였을때,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을 새로운 과학과 혁명운동의 자료에 적응되도록 더욱 발전시킬것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르렀던것이다。

엥겔쓰로부터 레닌에 이르는 기간에 있어서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부분에 있어서 가장 거대한 발견들이 있었다。이러한 새로운 과학자료를 총화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유물론을 끌어내는것이 필요하였다。이 총화가 없이는 당간부에게 필요되는 리론적 무장을 달성할수는 없었던것이다。이러한 발전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레닌은 一九〇九년 세상에 나온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라는 자기의 천재적 저서에서 해결을 주었던것이다。이 레닌의 저서는 로씨야와 외구라파 맑쓰주의자들에대한 비판이 있을뿐아니라 「……맑쓰주의의 리론적기초인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옹호인것이며, 력사의전(全)시기, 즉 엥겔쓰의 사거(死去)로부터 레닌의 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나오기까지에 이르는 전 시기를 통해서 과학 특히 자연과학이 수득한 모든것의 일체 중요하고 본질적인것을 유물론적으로 총화한것이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 로동당출판사판 一七九페지)

오늘날 맑쓰―레닌적 세계관은 쓰딸린동지의 저서「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서 발전된 새로운 사상으로 풍부히되었다。지금에 와서는 쓰딸린동지의 이 철학적 저서를 정통하지않고서는 철저하고 자각적인 공산주의자가 될수없다。왜냐하면 그것은 맑쓰―레닌철학을 더욱 발전시킨것이요, 그 철학의 새롭고 높은 단계이며 맑쓰―레닌사상의 진정한 최고봉인 까닭이다。

레닌의 저서 「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나온 시기로부터 쓰딸린동지의 저서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 이르는 시기는 자연과학발전에 있어서의 더욱 큰 성과와 사회발전부문에 있어서의 저명한 사건으로서 특징지어진다。이 기간의 모든 력사적 실천과 혁명적 로동운동의 모든 경험과 볼쉐위끼당의 가장 풍부한 투쟁경험은 쓰딸린동지의 천재적저서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 자기의 리론적, 철학적 총화를 얻은것이였다。

그와 동시에 쓰딸린동지가 맑쓰주의철학으로 일
(一八)한 새로운 현대 자연과학으로써 발생된 수
준에 가장 적합한것이다。쓰딸린의 저서에는 레닌
의 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의 출현시기로부터 우
리 시대에 이르는 자연과학의 그후 발전이 총화
되었고 모든것을 포함하는 그들의 결론들이 총화
되었다。

쓰딸린동지는 一九三八년에 자기의 저서「변증법
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를 저술하였다。
그것은 그해에 그가 창작한 천재적 저술「쏘련공산당
(볼쉐위끼)력사」의 일부분으로 되었으며 그책 제
四장 제二항에 수록되어있다。그 시기까지에 당은
자기 계획의 다수의 근본적 과업을 해결하였다。쏘
련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는 완전한 승리를 획득하였
다。당이 다년간 투쟁해오던 모든 당의 적들은
격파되었다。十八차당대회는 당이 경과한 행로를 총
결지었고 사회건설의 전부문에 있어서의 새롭고 거
대한 당의 과업을 결정하였다。

이 대회에서 쓰딸린동지는 가장 가까운 十—十
五년간에 주요 자본주의국가를 경제적으로 쫓아가
고 앞서나아가며 공산주의의 제一단계로부터 제二
단계로 전환하기위한 토대를 조성하는 과업을 내
세웠다。정치적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들을 공산주의
로 교양주고 사람들의 의식속에서 자본주의 잔재를
극복하는 과업이 전면으로 제기되게 되었다。볼쉐위
끼당과 쏘베트국가앞에 나섰던 새로운 과업을 위해
서는 당과 국가의 간부 문제와 그들의 사상적 훈련
과 리론적 무장이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졌던것
이다。

레닌의 저서「유물론과 경험비판론」이 짜리제
도를 전복시키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쟁취하기위
한 투쟁에 있어서 맑쓰주의 리론적 준비로 되었
던것과 마찬가지로 쓰딸린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시기에 있어서 볼쉐위끼당의 리론적 무기로
되었다。

× × ×

쓰딸린동지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
에 관하여」는 맑쓰주의세계관의 완전하고 계통적인
서술로 되었으며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것이다。쓰딸
린동지가 자기의 저서에서 확시한것은 다음과 같다。

一、변증법적 유물론에 고유(固有)한 과학적
혁명적 방법과 과학적 혁명적 리론의 통일。

二、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의 통일。

三、맑쓰—레닌적세계관과 과학적공산주의의 리론의 통일

四、볼쉐위끼당의 정책, 그의 실천적활동과 맑쓰
—레닌적 세계관사이의 분리할수없는 련결。

쓰딸린동지는 [illegible]「변증법적유물론은 맑쓰

—레닌주의적당의 세계관이다。이 세계관을 변증법적
유물론이라고 칭함은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견해,
자연현상에대한 연구방법, 자연현상을 인지하는 방법
이 변증법적인 까닭이며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해석, 자연현상에 대한 그의 리해, 그의 리
론이 유물론적인 까닭이다」라고 하였다。(「레닌주의
의 제문제」로동당출판사판 제二권 二六九페지。이하
동서에서 인용된것은 페지만을 기록하겠음—역자)

변증법적유물론의 이 정의에서 맑쓰—레닌주의적
세계관의 방법과 리론의 분리할수없는 통일이라는
것이 확증되어있다。쓰딸린동지는 이 통일을 일찌
기 자기의 저서「무정부주의나 사회주의나?」에서
천시하였다。「레닌주의의 기본에 관하여」라는 강연
에서 쓰딸린동지는 레닌주의에 있어서는 방법과 리
론이 분리할수없이 통일되어있으며, 레닌주의의 방
법은 맑쓰주의의 방법을 더욱 발전시킨것이며 맑
쓰주의적 세계관이 전진하면서 자기의 방법과 자
기의 리론도 발전한것이라는것을 표시하였다。변증
법적 유물론에 고유한 과학적 혁명적방법과 과
학적 혁명적 리론의 통일은 과거의 철학체계에대
한 맑쓰주의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상의 차이
점중의 하나인것이다。이것은 맑쓰의 변증법적방법
이 헤겔의 변증법과 차이되는 점과 맑쓰주의철
학이 포이엘바하의 유물론과 차이되는 점에서 어
설히 볼수 있는것이다。

헤겔변증법에대한 맑쓰주의적 변증법의 관계에
대해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맑
쓰와 엥겔쓰는 그들의 변증법적 방법을 론함에
있어서 헤겔을 통례로 변증법의 기본적 특징을 정
의한 철학자로써 빙거(憑據)하였다。그러나 이것
은 맑쓰와 엥겔쓰의 변증법이 헤겔의 변증법과 동
일하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사실 맑쓰와 엥
겔쓰는 헤겔의 변증법에서「합리적핵심」만을 취하
였고 헤겔의 유심론적 외각을 벗겨버리고 변증법
을 앞으로 발전시킴으로 그에 현대과학적 형모를
부여하였다」(三六九페지)

헤겔은 관념론자로서 자연과 인류력사에 대해서
「절대적인 리념」이 선행(先行)한다고 확인하였
다。이「절대적인 리념」을 그는 운동하는 상태에
있는것으로써 표현하였고 모든 실재적 세계는「절대
적인 리념」의 체현(体現)으로 생각하였다。헤겔
의 철학체계는 변증법적 방법과 모순되고있었다。
「그 자신이 추측은 하였으나 리해되지않았기 때문에
정당치않게 적용된것이었다」。(아·스다노브)—이것
이 형이상학적 철학체계이었다。헤겔의 철학은 칸
트로부터 시작하여 독일 관념론철학이 모두 그
런것과 같이 부르죠아적 불란서혁명에 대한 귀
족적 반동이었다。헤겔은 자기의 관념론적 체계를 때

또한 국한되[illegible] 군주정체(君主政体)가 절대적 정신의 발전에 있어서 최고의 권화(權化)이며 최후의 단계—라는 결론에 적응시키였다。 헤겔은 독일사람만이 권리를 가진 민족이고 모든 기타민족들은 그것을 완수하기위한 도구로 보아야한다고 즉 독일사람은「력사적 사명」을 가진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헤겔의 반동적인 사회—정치적견해는 범(汎)게르만주의의 관념론자들과 인종론 고안(考案)의 창시자들, 지어 파시스트 식인자(食人者)들에게까지 여리종류로 리용되었다。 진실로 제국주의시대의 도래(到來)와더부러—十九세기말—독일에 있어서는 신헤겔주의라고 칭하는 철학사조가 류행되었는데 그것은 헤겔의 보수적체계, 그의 민족주의와 배타주의, 그의 프로씨야 군주제도 찬양을 자기들의 목적에 적응시키였던 독일제국주의의 민족주의적 도배들의 철학적 기치로 되었던것이였다。 헤겔변증법에대한 직접적인 대립은 맑쓰와 엥겔쓰의 변증법적방법을 구성한다。

맑쓰주의적 변증법 이는 유물론적 토대위에서 발전된 변증법이다。 인류력사에대해서, 사회생활에대해서 철저히 적용된 맑쓰주의적 변증법은 세계의 혁명적개혁의 무기로 되었다。 맑쓰—레닌주의적 변증법은 사회의 본질에있어서 비판적이고 혁명적이다。

그것은 모든 혁명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프로레타리아트적 사회주의적혁명의 리론적 토대로 되였다。 헤겔의 변증법과 맑쓰주의적 변증법적방법과의 대립은 부르죠아적 세계관과 프로레타리아트적 세계관의 대립을 반영한다。 두개의 세계관의 계급적 성질의 대립은 또한 다음의 사실로도 설명된다。 즉 헤겔변증법은 전혀 과거에 향해지고있는데 그 과거는 그들의 편견적 관념론적 관점에서 밝힌반면에 맑쓰—레닌주의적변증법은 과거뿐만아니라 현재 및 미래의 인류발전에대해서 적용되는것이다。 관념론적 토대위에서 발전한 헤겔의 변증법적방법은 력사에대한 과학적 인식(認識)으로 인도하지않았으며 인도할수도 없는것이다。

맑쓰주의에 선행한 유물론적 리론도 바로 그와 같이 사회발전에 대한 과학적 견해를 주지못했다。 사회발전법칙에관한 과학적유물론적 리론은 맑쓰와 엥겔쓰가 창조한것이다。

「맑쓰와 엥겔쓰는—하고 쓰딸린동지는 기록하였다。—그들의 유물론을 론평함에있어서 유물론의 권위를 회복한 철학자로서의 포이엘바하에 빙거하는 것이 통례이였다。 그러나 이는 맑쓰와 엥겔쓰의 유물론이 포이엘바하의 유물론과 동일한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사실 맑쓰와 엥겔쓰는 포이엘바하

의 유물론에서 그의「기본적 핵심」을 취하여서 그것을 앞으로 유물론의 과학적—철학적 리론에로 발전시키고 또는 그의 관념론적 및 종교적 륜리적 잡질(雜質)을 제거하여 버렸다」。(三七)(페지)

유물론자와같이 포이엘바하는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정의를 사회생활 인식에 확장하지못하고 그는 인류력사의 토대에 인간의 공통적 본질로 상상한 도덕적 힘의 작용, 자기의 동류(同類)에게대한 동정과 사랑의 형식으로 변함없이 표현되는 인간천성의 천부(天賦)의 특성을 가정했던것이다。 포이엘바하는 이 사랑을「종교」라는 말로 신성화하였고 그것을 력사의 추진력으로 높이었다。

그러나 포이엘바하의 력사적 개념은 비과학적이다。 그것은 력사에대한 유물론적 견해와는 아무러한 공통점도 없으며 변증법과는 전혀 다른것이다。 력사에있어서 항상 사람들의 앙양된 도덕적 충동이 작용하였다는것은 옳지않다。 엥겔쓰는 강조하기를「……사회적 계급의 대립이 발생한 그때로부터 사람들의 비도덕(非道德)적인 정욕이 력사적 발전의 공간(槓杆)으로되었다。 즉 탐욕과 권세욕이 그것이다。 봉건주의와 부르죠아지의 력사는 이에대한 한개의 전면적인 증명이 된다」라고 하였다。 인민의 앙양된 도덕적 힘이 사회적발전의 공간으로 된 실례로써는 쏘베트사회를 들수있다。 이곳에서는 착취계급이 숙청되었으며 어떠한 사람들이 다른사람을 지배할수도 없으며 그들을 착취할수도 없는것이다。 쏘베트적 사회주의 사회제도는 계급적 적대와 사람에대한 사람의 착취가 없이 쏘베트사람들의 모든 정신적 도덕적 형모를 결정한다。 추상적인 도덕적 선(善)을 사회발전을 결정하는힘으로서 선포(宣布)한 포이엘바하의 확신에는 아무러한 과학적인것도 없을뿐만아니라 아무러한 혁명성도 없는것이다。 포이엘바하의 전도(傳道)는 다만 압박자와 피압박자간의「계급적 평화」라는 반동적 사상에 복무할수 있었을뿐이었다。 그 사상은 항상 근로자들의 계급적 자각성을 어둡게하며 그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착취계급과 그들 관념론자들의 총애를 받는 수단이었다。

맑쓰와 엥겔쓰의 위대한 공훈은 그들이 변증법으로써 유물론을 풍부히하였고 새로운 세계관—변증법적 유물론을 창조하였으며 그럼으로써 유물론을 사회력사 인식에로 확장하는 가능성을 준 점에 있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서 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과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기본적 특징을 밝히였으며 그 명제를 사회생활 연구에 확장하는것과

그것을 볼쉐위께당의 실천적 행동에 적용한것이 열마나 시대적 의의를 가졌는가를 표시하였다。

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의 기본 특징

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의 첫째특징을 특징지으면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변증법은 형이상학과 반대로 자연을 상호관련없는 서로 고립한 또는 서로 종속되지않은 사물 현상의 우연한 집적으로 보지않고 사물 현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였고 서로 종속되었으며 또는 서로 제약되여 관련되여있는 통일적 전체로 본다」。(三七一페지)

현상들은 상호간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의 복잡한 망(網)으로써 련결되어있다。 어떠한 현상이든지 공통성과 특수성의 통일체인것이다。 한 현상은 다른 현상과 류사한 특징과 특성으로, 내용의 공통성으로써 련결되었으며 동시에 자기의 특수한 개별적 특징을 가지고있는것이다。 례를 들면 쏘련의 十六개 공화국의 민족문화는 그들에게 공통된 사회주의적 내용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자기의 특수한 민족적 형식을 가지고있는것이다。

현상들은 인과관계로써 서로 관련되어있다。 한개의 현상은 그것의 필연적 결과로써 다른 현상을 가져오는것이다。 동일 파시스트 강점자들에 대해서 쏘베트군대와 쏘베트인민 승리는 결코 우연한 사실은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쏘베트제도와 우월성과, 쓰딸린적 정치적 및 군사적 전략, 승리에 대한 쏘베트인민의 견고한 의지의 필연적인 결과이었던 것이다。

자연에 있어서와 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현상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 법칙으로부터 쓰딸린동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다음의 결론을 끌어낼수있는것이다。—:

:자연계의 어떠한 현상이든지 만약 그를 고립되어있는, 형체로, 주위현상과 관련시키지않은 그대로 취급한다면 리해할수없는것이 되고 인정한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자연계 령역에서 어떠한 현상이나 그들 주위 제조건과 련락없이 이 조절에서 격리하여 관찰한다면 그는 무의미한것으로 화하여지는까닭이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어떠한 현상이든지 그를 만약 그의 주위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있고 또는 주위현상과 제약되는것으로 관찰한다면 리해할수있는것이며 론증할수있는것이다」。(三七一—二페지)

례를 들면 다수의 부르죠아 정객과 관념론자들이 민족적 독립권을 거부하는것을 선전하고 있는것은 어떻게 리해할것인가? 부르죠아 정객들과 그들의

호주들인 가짜 사회주의자들이 선전하는 민족적 허무주의가 민족적 배타주의와 인종주의의 다른 한편에 지나지않는다는것, 또한 지배적 제국주의국가들이 우선 미국이 세계통치를 꿈하고 있기때문에 민족적 독립권의 사상이 모욕을 당하게 되였다는 것들을 리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자본주의적 생산방법, 제국주의의 경제와 관련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그리고 사회적현상 뿐만아니라 자연현상도 그것을 정당히 리해하려면 그것의 내면적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관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질구조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물리학의 거대한 성과는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한다。 각종 화학원소의 원자를 고립하고 상호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는 형이상학적 관념은 형이상학적 세계관의 견지에서는 믿을수없었던 상호작용 및 상호변화, 례컨대 일부의 원자가 다른것으로 변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장 대담하게 탐구하는데 자리를 양보하였다。

모든 현상을 그들의 전체적 관계와 상호작용에서 관찰하는데 구성되는 변증법의 요구는 인식에서 뿐만아니라 실천적 행동에 있어서도 지도적원칙의 의의를 가진다。 레닌 쓰딸린적 전술의 가장 중요한 요구의 한가지는 주기하는 바와같이 현상의 련쇄에서 기본적인 고리를 찾고 그것을 잡고서 전체련쇄를 끌어내는데 대한 요구인것이다。 그래서 [illegible] 위끼당 [illegible] 있어서 「[illegible] 전로씨야 비합법적 신문을 [illegible]이 [illegible] 에 서로 [illegible]던 여러가지 [illegible] 중의 [illegible]되는 [illegible] 까닭이었던가? 그것은 당시의 [illegible]에 있어서는 다만 전로씨야 비합법적 신문을 통하여서만 [illegible]한 [illegible]와 [illegible]들을 한데어 [illegible] 그 [illegible] 당의 [illegible]을 조정하며 사상적 전술적 통[illegible]한 조건들을 준비하고 그리함으로써 [illegible] 당을 조직하는데 대한 [illegible]」。(「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一권 一二〇페지)

[illegible] 운동의 [illegible] 동지의 지시는 인식에 있어서나 [illegible] 의의를 가진다。 변증법의 이 명제는 [illegible] 동지가 [illegible] 형식으로 방식화(方式化)하였다。 「변증법은 형이상학과는 반대로 자연을 정지와 부동, 정체와 불변의 상태로 보지않고 부단의 운동과 변화, 부단의 갱신과 발전의 상태로 보며 이에서는 [illegible] 무엇이 발생되고 [illegible] 무엇이 붕괴되고 쇠망되는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변증법적 방법은 현상들을 그의 상호관련과 호상제약의 관점에서 뿐만아니라 그의 운동, 그의 변화, 그의 발전의 관점에서 또는 그의 발생과 [illegible]의 관점에서 [illegible]것을

요구한다.

「변증법적 방법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에 견고한듯이 보이나 그러나 벌써 사멸하기 시작하는것이 중요한것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비록 현재는 견고치못한것으로 보이더라도 생성되며 또는 발전되는 그것이 중요한것이다. 왜 그러냐하면 변증법적방법에 있어서는 생성되고 발전되는 그것만이 정복할수없는것이기때문이다」。(三七二페지)

자기자신에 미래를 지니고있고 상승운동, 저급한 형태로부터 고급한데로 향해가는 운동의 경향을 가지고 있는것만이 정복할수 없는것이요, 반대로 운동의 하강선(下降線)을 표시하는것은 충분히 정복할수있는것이다.

력사적 발전의 현계단은 이러한 변증법의 합법칙성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는 공산주의의 정복못할것에 관하여 공산주의의운동은 확고부동하게 상승선(上昇線)에따라 나아가고있는 반면에 자본주의는 경사(傾斜)아래로 자기의 피치못할 파멸에로 억제할수없이 가고있다는것을 증명한다。 이점에 관해서는 반제국주의적 진영을 구성하고있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모든 력량이 자기들의 선진적 력량이며, 평화와 인민민주주의의 가장 견고한 성벽으로써의 쏘베트동맹에게 자기들의 시선을 향하고 있는 사실이 말하여주고있으며, 그것은 공산주의적 영향의 장성과 공산주의 사상의 위신의, 장성을 의미하는것이다。 공산주의의 정복할수없는 점에, 관해서는 중앙 및 동남구라파 제국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명백히 증명한다。 그곳에서는 사회주의 발전의 토대를 닦고있는 새로운 공화국들, 새로운 민주주의 제 국가들이 출현한것이다。

전세계 근로자들은 현세기의 모든 성숙된 요구로써 공산주의 사상으로 가까이 가고있다。 견고한 평화를 위한, 침략자들과 새 전쟁선동자들의 계획을 꺾기위한 투쟁은 제국주의의 기반을 반대하는 인민대중의 투쟁으로 되었으며 그것은 대중을 혁명화하고있으며 그들을 제국주의의 토대자체를 반대하는 그들의 분개(憤慨)를 기르고있다。 평화를 위한 투쟁의 리해는 가장 광범한 인민대중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가장 철저한 투사이며 공산주의 사상의 기수(旗手)인 공산당주위에 더욱 단결시키고있다。 민족적 독립을위한, 민족적 주권을위한 투쟁, 식민지 및 예속국가에 있어서의 민족해방운동은 광범한 근로대중속에 공산당의 영향이 장성되기위한 유리한 토대로된다。 공산당은 대중을 파멸, 빈궁, 실업으로 몰아넣고 근로대중의 생활수준을 항상 저하시키게하는 독점자본가의 정권을 반대하는 투쟁에있어서 격려하며 령도하는 력량으로 되었다。 이 모든것은—몰로토브동지가 말한바와같이—현재에는 모든 길이 공산주의로 통하고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이렇게 실제적 력사에서 쓰딸린동지가 방식화한 새로운것의 정복못할것에 관한 변증법적 합법칙성이 해명된다。

쓰딸린동지는 운동이 수행되는 기준이되는 제법칙을 천명하였고 운동의 기구(機構), 그것의 일반적 방향과 원천을 표시하였다。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에는 량적변화가 그 물체의 본질상 특유한 일정한 한계에 도달하면서 그의 질적변화로 인도하며 비약적 방법으로써 한개의 질적상태가 다른 질적상태로 변하는데로 인도한다는데 관한 변증법의 명제에 대해서 발전된 특성을 주었다。 「변증법은—하고 쓰딸린동지는 기술하였다—형이상학과는 반대로 발전과정을 량적변화가 질적변화를 초래치않는 단순한 장성과정으로 관찰하는것이 아니라 미세(微細)한 엄폐된 량적변화로부터 현로(顯露)한 변화로, 근본적변화로, 질적변화로 전이(轉移)하는 그러한 발전으로 관찰한다。 여기에 있어서는 비약적 이행(移行)의 형태로써 일어나는것이며 우연적으로가 아니라 법칙적으로 일어나며, 미판연(未判然)한 점진적인 량적변화의 축척된 결과로써 나타나는것이다」(三七三페지)

한개의 질적상태에서 새로운 질적상태로 가는 비약적형태의 이전의 이 법칙은 자연 및 사회의 모든 현상과 과정에서 어데서나 일어나는것이다。

다음의 실례로써 질적변화는 우연적으로가아니라 법칙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간단없이 완수되는 부단의 변화가 집적한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를 볼수있다。 히틀러독일이 불시에 배신적으로 쏘베트동맹에 침공해 왔을때 쏘베트군대는 불시침공의 유리성을 리용하고있는 수적(數的)으로 우세한 적의 력량과 기재(機材)의 압력을 받았고 전투에서 깊은 후방으로 후퇴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 쏘베트동맹의 력량의 위대한 원천—레닌 쓰딸린당의 령도적 지도적 활동, 제 민족의 친선, 쏘베트적 사회주의적 제도—는 적에대한 승리를위한 필연적 조건의 조성을 보장하였고 장성해가는 후방의 견고성, 쏘베트적 사단(師團)의 수와 질적 장성, 그들에대한 현대식 무기로의 장비, 군대의 사상적 전투적 정신과 쏘베트 군대의 병사와 군관의 전투기술의 장성을 보장하였다。 나날이 쏘베트군대의 력량의 장성의 결과로, 그리고 쓰딸린적 군사기술에 의하여 전쟁에는 쏘련을 위한 급변(急變)이 발생하였다。 쏘베트군대는 쓰딸린대원수의 천재적 전략을 실현하면서 쏘베트강토에서 원쑤들을 격퇴하기 시작하였으며 독일—파시스트 강점자들을 완전히 격파해서 히틀리독일에 대한 력사상 그 례가

없는 승리를 장악하게된 것이었다

「쓰딸린동지는 교시하기를 「……발전과정을 순환운동으로、이미 지난것의 단순한 반복으로 리해하지않고 선진운동으로、상승 운동으로、낡은 질적상태로부터 새로운 질적상태로의 과도로、단순한것으로부터 복잡한것으로、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의 발전으로써 리해하여야 한다고인정한다」(三七三페지)

이 명제는 진정한 새로운 것이라는것은 다만 발전에있어서 높은 정도에 달성된 곳에만 있을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외면적으로 「새로운것」이 모두 다 전진운동은 아니다。또한 「복잡한것」은 무엇이나 선진적이고 진보적인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반동적인것이 「신기한것」으로 나타나는일이 드물지않은것이다。부르죠아 관념론의 력사는 그 사상을 가진자들이 새로운 문구상 문서로써、「복잡한」학술용어로써 자기의 낡은 반동적내용을 엄폐하면서 전면을 바꾸어놓으려고 애쓰고있는 모양을 표시하고있다。스다노브동지는 쏘베트음악에 있어서의 형식주의적 방향을 간파하면서 「혁신」과 「새로운 방법의 개척」의 기치밑에 나타난 이 방향은 사실에있어서 전혀 새로운것이 아니며 이 소위 「새로운것」으로부터는 구라파와 미국의、현대적 퇴폐적인 부르죠아 음악의 정신을 줄뿐이라는 것을 표시하였다。

진정한 새로운것은 자기자신속에 우수하고 선진적이고 진보적인것을 체현하고있는 그것이다。

맑쓰주의적 변증법은 사회의 선진적 혁명력량을 로서해가며 사멸해가며 과거에로 사라져가는것과의 투쟁에로 고무하면서 상승선으로 가고있는 진보와 발전의 리론을 창시한다。

대립성의 통일과 투쟁의 법칙에대한 쓰딸린적정의는 그 깊이가 심원한것이다。그것은 변화를 완수해가는 원천에 대해서、발전과정의 내재적 내용에대해서 지시하고있다。이 법칙을 쓰딸린동지는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서 발식화하였다。

「변증법은 형이상학과는 반대로 자연계의 사물과 자연계의 현상에는 내재적 모순이 고유하고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한다。왜 그러냐하면 그들은 모두가 그 부정적면과 긍정적면、그 과거와 장래를 가지고있으며、그 쇠망하고 있는것과 발전하고 있는것을 내포하고있는 까닭이며、이 대립성의 투쟁、낡은것과 새 것간의 투쟁、쇠멸하는것과 발전되는것간의 투쟁이 발전과정의 내재적내용、량적 변화로부터 질적변화에로 이행하는 내재적 내용을 구성하고있는까닭이다」(三七六페지)

맑쓰、엥겔쓰、레닌、쓰딸린의 업적에는 고유한 현 [illegible] 발전과정에서 내재적인 모순을 [illegible] 적으로 [illegible]

전한 고전적 전형(典型)이 다수로 포함되어있다 맑쓰와 엥겔쓰가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레닌과 쓰딸린이 제국주의에 고유한 새로운 모순을 어떻게 발견하였는가를 지적함으로써 충분할것이다。사건분석에 대해서 변증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한 전형은 쓰딸린동지가 一九四一년十一월六일에 라디오를 통해서 진술한 그의 연설에서 볼수있다。

쓰딸린동지는 쏘베트동맹에 대한 히틀러독일의 불의(不意)의 배신적 침공은 그에게 일시적인 군사상의 승리를 주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정치적 패배를 준것이라는것을 묘사하였다。히틀러도배들은 자기들의 일시적 군사적 성공에 눈이 어두워졌다。영국 미국의 다수의 정치적 및 군사적 활동가들은 불시공격에대한 동일한 평가에 동의하였다。그들은 다만 한가지 결과—독일인이 달성했던 군사적 승리、만을 보았고 히틀러 독일의 급속한 승리를 예언하는것이었다。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관찰자들이 보지못했던것이 쓰딸린이 자기의 천재적 예측을 맑쓰주의적 변증법의 견지에서 내리었을때 해명되었던것이다。쓰딸린동지는 독일의 불시침공이 오히려 그의 파멸의 근원이되는—진정한 정치적 승리를 천명하였고 쏘련측에있는 그 정치적 승리의 토대위에서 쏘베트군대의 결정적 승리가 발전될것이며 [illegible] 는 [illegible] 하는 것을 예언하였다。바로 [illegible] 하였다。쓰딸린 [illegible] 를 [illegible] 것이다。

모든 현상에게 내재적 모순이 고유한다는 사실 [illegible] 자연에 있어서나 [illegible] 현실에서 어 [illegible] 는것은 모순의 투쟁、발전은 새로운것의 투쟁、[illegible] 는것과 [illegible] 라는 결론이 나온다。[illegible] 자연에 있어서 어떠한 사회에 있어서라도 [illegible] 이다。그러나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을 [illegible] 은 모순의 본질과 특성에따라 새로 다르다。[illegible] 사회에 있어서의 낡은것을 반대하는 새것의 투쟁과정과 새것으로써 낡은것을 극복하는 회경은 [illegible] 주의사회에 있어서의 낡은것을 [illegible] 투쟁과정과 근본적으로 다른것이다。사회주의 사회의 모순、그 모순의 본질은 적대적 [illegible] 그들의 투쟁은 가장 첨예화한 충돌과 [illegible] 사회주의 [illegible] 까지 이르지않을수 없는것이다。[illegible] 없는 쏘베트사회에 있어서는 새로운것이 낡은것을 극복하는것은 비판과 자기비판 [illegible] 그것은 새로운 [illegible] 적 발전 [illegible] 것이다。[illegible]

며하고나서 쓰딸린동지는 사회생활 연구와 그것을 프로레타리아트의 실천적활동에 적용하는데로 변증법적 방법의 명제를 확장함으로써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다수의 결론을 형성한다。

쓰딸린동지는 교시하기를「세상에 고립된 현상이 없거나 또는 모든 현상이 서로 련락되였고 서로 제약되였다면 력사상에서의 각개 사회제도와 각개 사회운동을 력사가들이 흔히 해석하는것처럼「영원한 정의」의 견지로나 혹은 다른 모종(某種)의 선입관념의 견지로써 평가할것이 아니라 그 제도와 그 사회운동을 발생하였으며 또는 그것들과 관련되어있는 그러한 제 조건의 견지로써 평가하여야할 것은 명백하다」(三七七페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력사적으로 접근함으로써만이 과학적으로 력사적 과거를 장악하고 력사과학을 모든 종류의 주관적 미속화로부터, 력사적과학을 우연의 혼돈으로, 불합리한 과오의 집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는 가능성을 준다。

운동의 전체성에 관한 변증법의 명제를 사회적 현상과 동시에 실천적 활동을 인식하는데로 확장함으로부터 높은 정도의 중요한 제 결론이 나온다。

「만일 세계가, 부단의 운동과 발전에 처하여있고 만일 낡은것이 사멸하고 새것이 신생(新生)하는것이 발전법칙이라면「확고불변」한 사회질서, 사유재산과 착취의「영원한 원칙」, 농민은 지주에게, 로동자는 자본가에게 예속해야하는「영원한 사상」이 더는 없을것이 명료하다。

그런즉 자본주의제도가 한때에 봉건제도를 교체(交替)한것처럼 자본주의제도도 또한 사회주의제도로 교체할수있다。 그런즉 바로 현시에 우월한 힘은 가졌다하여도 더는 발전하지않는 그런 사회층에 립각할것이 아니라 비록 현시에 우월한 힘은 가지지못하였다하여도 발전하며 또한 장래성있는 그러한 사회층에 립각하여야 할것이다」(三七八페지)

량적변화가 근본적인 질적변화로 선환하는데관한 그리고 발전과정의 내재적 내용을 구성하는 대립성의 투쟁에관한 맑쓰주의적 변증법의 명제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맑쓰-레닌적 사회주의혁명의 리론을 창시하기위해서와 프로레타리아트의 혁명적실천을 위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기술하였다。「만일 완만한 량적변화가 급격하고도 돌발적인 질적변화에로 전환하는것이 발전법칙이라면 피압박계급이 수행하는 혁명적변혁은 아주 당연하며 또한 필연적인 현상인것이 명백하다。

그런즉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와 자본주의의 기반밑에서 로동계급을 해방하는일은 완만한 변화의 방식으로, 개량수단으로써 실현할수있

는것이아니라 오직 자본주의제도를 질적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즉 혁명적방식 만으로써 실현할수있는것이다。

그런즉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 아니하려면 혁명자가되어야할것이요, 개량주의자가 되지말아야할것이다。 다음으로 단일 발전이 내재적 모순이 발현(發現)되는 방법으로 이 모순을 극복하기위하여 이 모순의 토대위에서 대립세력간의 충돌의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은 아주 자연적이며 또한 필연적인 현상이라는것이 명백하다。

그런즉 자본주의적 질서의 모순을 은폐하여야할것이아니라 그 모순을 폭로시키고 타개하여야하며 계급투쟁을 식멸(熄滅)할것이 아니라 그를 끝까지 인도하여야 할것이다。

그런즉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아니하려면 무자비한 계급적 프로레타리아정책을 실현하여야 할것이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의 리해관계를 조화시키는 개량주의정책을 실현한다든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에로 전생(轉生)한다는 타협정책을 실시한다든가 하여서는 아니된다」。(三七九—三八〇페지)

쓰딸린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에서 주어진 맑쓰주의적 변증법의 제 법칙의 분석은 우리를 형이상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무장시킨다。 현대 부르죠아선전자들은 형이상학의 도움을 입어 과학적이요, 사회적인 진보를 반대하여 적대하면서 반동파를 방위하고있다。 사회발전의 법칙성의 거부, 력사적 진보의 거부는 현재 력사와 사회학 부문에있어서 부르죠아작가들의「탐구」의 주도적 요인으로되었다。 그들은 인류력사를 상호간에 아무러한 내부적 련결이없는 사실, 사건의 어떠한 무질서한 집적으로 생각하고있다。 현대 부르죠아력사가와 사회학자간에서는 사회발전에 있어서 순환 또는 회전의 리론이 가장 널리 전파되고있다。 그 사상은「래일도 어제날과 같을것이다」라는것을 확신하는데 결론되는것이다。 이 리론에 도움을 얻어 그들은 사회발전의 사상을 파괴하고 자본주의제도의 영구성과 불변성을「창시(創始)」하려고 애쓴다。

사회적 법칙성, 사회적 진화와 사회적 발전에 관한 맑쓰주의적 과학적 리론을 반대해서 싸우면서 현대 부르죠아 관념론자들은 더욱 명백히 부르죠아사회에 있어서의 적의(敵意)의 투쟁에 관한 맑쓰주의의 명제와 맑쓰주의적 계급투쟁 리론에 대[illegible]고있다。 이러한 부르죠아지의 피리소리에 각종 허위적 사회주의자들은 열심히 춤을추고있었다。 례를들면 불란서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자기의「정강」에서「계급투쟁」이라는 문구를 삭제할것을 특히 결정하였던것이다。

시상의 모든것을 보이어서 쓰딸린동지에 의해서 발전된 현상과 과정의 변증법적관점에 관한, 운동과 발전에 관한, 발전의 전진적 발전적 특성에 관한, 발전의 동력으로서의 모순의 투쟁에 관한 사상이 얼마나 정확한것인가를 알수있다。 이 사상이 반동적 부르조아 관념론자들을 반대하는 성공적 투쟁을 위해서 얼마나 거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도 또한 명백한것이다。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기본적 제 특징

맑쓰주의적 변증법적방법의 기본적특징을 특징짓고나서 쓰딸린동지는 그다음에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기본적 특징의 분석으로 넘어갔다。

철학적 유물론의 제一특징을 쓰딸린동지는 다음과 같이 특징지었다。

「맑쓰의 철학적 유물론은 세계를 「절대리념」「우주정신」「의식」의 체현으로 인정하는 유심론과는 반대로 세계라는것은 그 본질상으로 물질적이며 세계에서의 각종 현상이라는것은 운동하는 물질의 가종형태이며 변증법적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현상의 호상관련 및 호상제약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물질의 발전법칙이며 세계는 물질의 운동법칙에 의하여 발전되고 아무런 「우주정신」도 요구하지않는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三八〇—三八一페지)

철학적유물론이 관념론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견지(堅持)하는 세계의 물질성은 엥겔쓰가 지적한바와같이 철학과 자연과학의 발전에 기초하는것이다。 유물론은 정합한 형태의 물질로부터 효합한것이 력사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는가와 일정한 자연적형태의 조건하에서 무기적인 자연으로부터 유기적인 자연이 발생하였으며 식물계와 동물계의 발전이 어떻게 유래(由來)하는가를 표시하면서 우리에게 자연발전의 형태를 밝혀주는 자연과학의 자료를 총괄하는 토대위에서 자기의 결론을 세우는것이다。 사회에 관한 맑쓰주의적과학은 인간이 어떻게 동물계로부터 분리되였으며 자기의 력사적발전의 길로 나섰는가를 보여준다。

관념론은 유물론이나 과학과 통일할수도 없으며 결합할수도 없다。 만일 관념론자들이 세계는 반드시 어데로부터 나타난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유물론자는 자연, 물질은 영원한것이요, 어느 누구가 창조한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리고 유물론은 발전되어가는 과학적지식의 자료에 의거하면서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자연적과정에 의하여서 의식이 발생하였는가를 첨착 [illegible] 인지([illegible])한다。 그러면 관념론은 어떻게 하여서 정신이 자연을 창조하였는가를 증명할수없으며 결코 할수없을것이다。

「절대정신」이 현실의 데미우르그(창조자)라고 확인한 관념론자 헤겔에 관해서 엥겔쓰는 그에게는(즉 헤겔에게는) 세계창조가 세계창조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주관적 관념보다도 더욱 신비롭게 혼란하게 생각되는것이라는것을 특기하였다。

맑쓰주의적 유물론의 제二특징을 쓰딸린동지는 다음의 형식으로 특징지였다。

「우리의 의식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물질세계、실재、자연은 우리의 의식속에、우리의 감각、관념、개념속에만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관념론과는 반대로 맑쓰주의적유물론은 물질、자연、실재는 객관적 현실로서 의식밖에 또는 의식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것이며 물질은 감각、관념、의식의 근원이므로 물질이 본원(本源)이며 그리고 의식은 물질의 영상(映像)이며 실재의 영상이기때문에부치적이요、파생적이며 사유는 물질의 발전에있어서 고도의 완성의 역(域)에 달한 물질의 산물 즉 두뇌의 산물이요、따라서 두뇌는 사유의 기관(器官)인것、그러므로 중대한 오유를 범하지않으려면 사유를 물질에서 분리하여서는 안된다는 그것에서 출발한다」(三八一페지)

감각하고、상상하고、사유하는 능력은 두뇌의 능력이고 두뇌는 물질적인、육체적 기관、높은 완성단계의 발전을 말해준다。 물질이 라는것을 유물론은 증명한다。

의식의 내용으로되는것은 일정한 관념、개념、사유 ― 인간의 의식밖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의 영상인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외부적 감각(시각、청각、촉각、미각、후각) 기관으로 세계를 감득한다。 외부적 물체는 이 감각기관에 작용하면서 그 물체의 감득을 총체로 형성하는 적합한 감각을 환기한다。 물론 물체에 관한 관념과 감각되는 물체는 동열한것은 아니다。 그것은 원본(原本)과 사본(寫本)、사진기의 촬영물과 박혀진 사진과 동일하지않은것과 같다。 그러나 우리는 물체가 박힌 사진에 의해서 독립없이 그 물체를 인지한다。

관념론자들은 우리들의 사유에 있어서 우리들은 물체자체와 관계를 가진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감각과 관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감각하기전에는 그것이 무엇이였는가에 대해서 물체를 알수도 없으며 그 물체자체로 우리의 의식밖에 존재하는가 하는것 조차도 알수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의 감각기관에 작용하는 물체가 만일 없다면 어찌 감각이 발생할수있을것인가? 그것은 거울앞에 반영되는 물체가 없이는 거울속에 반영이 나타날수없는것과 꼭같은것이다。 우리의

계 감각을 환기시키는 외부적 물체의 존재를 거부하는 관념론자들은 감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갖은 종류의 신비와 광포(狂暴)에 의지하려고 하는것이다。 감각뿐만 아니라 개념, 사상도 그 기원은 물질적 세계에 있는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감각기관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과학의 발전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의 특성을 인식하는데 있어서의 점진적운동은 감각적 인식기관의 발전과 완성에, 관련된다는것을 알고있다。 망원경이 천문계(天文界)의 현상을 더욱 깊게 더욱 정확하게 인식할 가능성을 준것이다。 과학으로 무장되지않은 눈으로서는 무생물과 생물의 가장 섬세한 구조를 분별할수없지만·현미경은 그 가능성을 준다。 현대의 변광저항변경기(變光抵抗變更器)를「전기(電氣)의 눈(眼)」이라고 부르는것은 지당한일이다。

관찰을 총괄하고 그것의 합리적 수정을 가하면서 과학은 자연과 사회생활에서 작용하고있는 제법칙을 밝힌다。 많은 현상은 그것이 인간의 개념과 사유와 사상속에 반영되면서 우리의 의식밖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감각이 감득하는 물체가 아닐수도있다。 一초에 二七〇키로메―타의 속도를 가진 운동은 상상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사실 운동하는 전자(電子)는 그만한 속도를 가지고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속에 눈으로 보거나 촉각으로 느낄수있는 한 그란(〇·〇六9)의 물질도 포함하고 있지않다 하더라도 인간의 의식과는 독립한 객관적인 존재인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인식의 도구로되는것은 감각뿐만아니라 또한 리성이라는 결론이 나오는것이다。 이것은 리성이 감각에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물체를 인지한다는것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다。 유물론은 만일 전에 감각에 없었던것이면 리성에도 또한 아무것도 있을수없다는것을 확인한다。 리성은 감각이 그에게 주는 물질에 대해서 작용하며 자연과 력사의 제 법칙을 통찰하면서 관찰의자료를 리론적으로 총괄한다。

「맑쓰주의적 유물론의 제二특징을」 쓰딸린동지는 다음의 형식으로 특징짓는다。

「세계와 그의 합법칙성을 인식할수있는 가능성을 론박하며 우리들의 인식의 확실성을 믿지않으며 객관적 진리를 부인하며 그리고 세계에는 과학으로는 언제든지 인식할수없는「물자체」로써 충만되었다고 인정하는 관념론과는 반대로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은 세계와 그의 합법칙성을 완전히 인식할수있는것이며 경험과 실천에 의하여 검열된 자연의 합법칙성에대한 우리의 지식이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소유한 정확한 지식이며 세계에는 인식하지못할 사물이라고는 없고 다만 아직은 인식되지는 못하였으나 그러나 장차 과학과 실천의 힘에 의하여 발견되고 또는 인식될것이라는데에서 출발한다」。(三八三페지)

인류의 진보는 과학적 지식의 진보 즉 자연과 사회의 발전법칙에대한 지식의 진보에 관련된다。 물질적세계의 법칙에대한 지식은 인간에게 자연에대한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대한 지배력을 준다。 세계에 과한 우리의 인식이 객관적 진리 즉 현실에 적응하는 의의를 가졌다는것이 그것으로써 론박할수없이 증명된다。

과학의 발전은 그의 앞으로 나가는 새로운 거대한 한걸음 한걸음마다 이미 달성된 지식에대한 교정(修正)을 가져온다。「……우리는 하고 엥겔쓰는 강조한다― 확실히 아직 인류력사의 가장 시초에 서있다。 우리들·시정할 과업을 가진 세대는 우리가 그 인식을 때로는 멸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면서 시정할수있는 세대의 수효보다 굉장히 그 수효가 더 많을것이라고 추측해야한다」。(반듀링론―八八페지)

력사적한계에 제약되어 진리는 상대적인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계속되는 매개단계는 인간을 더욱더욱 절대적인 지식에로 접근시킨다。 상대적인 진리에서 절대적인 진리가 굳어지는것이다。 이와같이 하여서 우리의 지식은 매개의 순간에 있어서 자기의 성과에서는 상대적이나 그 가능성은 절대적인것이다。 즉 인간의 지식이 넘어갈수없는 그러한 한계는 없으며 인간의 지식은 항상 앞으로 행진하는것이다。 인식에 있어서의 이 과정은 과학과 실천의 힘으로써 완성된다。 인간의 실천적 활동―생산적, 사회적―은 인식의 가장 중요한 도구의 역활을 하고있다。 그것은 사유를 일정한, 인식방향으로 향하게하며 그앞에 일정한 과업을 세우며 연구와 총괄을 위한 자료를 준다。 인식활동에있어서 실천의 역활을 쓰딸린동지는 명료히 표현하여 말하기를

「……리론은 만일 그것이 혁명적 실천과 련결되지않는다면 목적없는것으로 된다」고하였다。(레닌주의의제문제 로동당출판사판 제一권 二二페지)

사회주의 건설은 인식에 있어서의 실천의 역활에 대한 명료한 실례인것이다。 사회주의건설의 실천은 맑쓰주의리론앞에 새로운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이 문제에대한 준비된 해명은 맑쓰주의리론에는 없었으며 있을수도 없었던것이다。 레닌과 쓰딸린은 이 새로운 정책을 천재적으로 총괄하면서 맑쓰―레닌의 리론을, 새로운 사상으로 풍부케하였다。 즉 그 새로운 사상은 사회주의 공업화에관한, 농촌경

제시민사에 관한, 자본주의 포위의 조건하에서 사회주의에서 그리고 공산주의에서의 국가에 관한, 쏘베트사회발전의 추동력(推動力)에 관한,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전환에 관한 사상들이다。

이 모든것은 인식발전에대해서 과학적진보를 위해서 실천이 어떠한 역활을 하고있는가를 밝하는것이다。

실천은 진리의 표준의 역활을 한다。

「진리는 하고 레닌은 기술하였다。…과정인것이다。인간은 실천 과「기술」을 통해서 주관적사상으로부터 객관적 진리로 가는것이다…… 생명은 두뇌로 낳는다 인간의 두뇌속에 자연이 반영된다。 시기의 실천에서와 기술에서 이 반영의 정확성을 검열하고 적용하면서 인간은 객관적 진리에 도달한다。」(브·이·레닌「철학수첩」一七四페지

쓰딸린동지에 의해서 발전된 맑쓰주의적 유물론의 명세는 현대 부르조아철학을 반대하는 투쟁에 있어서 첨예하고 예리한 무기로 되는것이다。 이 명제의 빛속에서 부르조아 철학은 과학의 가장 증오한 적으로, 극히 광포한 반동자의 수호자로 변화였다는것을 특히 여실히 볼수있다。 그와같은 정도로 그것은 더욱 좋은 미래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서 그들에게 적대(敵對)되는것이다。 부르조아철학은 현재 극심하게 반동적 역활을 놀고있다。 그것은 무사상성과 가장 저급한 정욕의 책원지로 되었다。 이 철학으로부터는 지적(知的) 사상적 발전을 위한 아무것도 찾아볼수없는 것이다。 누구나 그것에 접촉하기만하면 지적(知的)으로 타락되고 도덕적으로 유린될뿐인것이다。 현대 부르죠아철학은 스다노브동지의 명백한 표현에 의하면 「방랑자와 범죄인의 피난처」로 된것이다。 여러가지 새로운「주의(主義)」를 리용해서 모든 이음탕을 거부하려고하는 녹자(讀者)를 집아두기위해서 부르죠아철학이 새로운 짐표(貨物票)와 명칭을 부단히 붙이고있는 그 사실은 또한 지적 사상적 쇠퇴의 표현으로되는것이다。

이러한 다수의「주의(主義)론」이 있는것은 부르죠아철학이 과학과 아무러한 공통성이없고 그의 모든것은 주관적인 궁리에서 발생된것이라는 명백한 증명인것이다。 진정으로 과학적인 철학은 단 하나만이 있을수있으나 허위적이고 무질서한 철학적 구성은 서슴치않고 거짓말을 토하고 사기의 씨를 뿌리는 부르죠아치의 추직한 종(種)의 수효만큼 있을수있는것이다。 부르죠아철학의 무사상성과 무도덕성에, 그의 과학에 대한 무식과 적의(敵意)에 — 부르죠아철학이 자기의「사상적 청초」의 표시지로써 내여놓는 무수한 철학적「주의(主義)론」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뿌리가 썩어가는 부르죠아철학과는 반대로 맑쓰—레닌의 철학은 끊임없이 새롭고 고상한 사상적 고귀성을 집적(集積)하면서 부단히 자기의 발전을 수행하고있다。 맑쓰주의철학의 장구한 력사는 그의 발전의 위력에 관해서 명료하고 확실하게 말해준다。 가장 명백한 증명은 맑쓰주의철학을 새롭고 높은 단계로 제고시킨 쓰딸린동지의 천재적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이다。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세개의 기본적인 명제의 특징을 들고나서 쓰딸린동지는 철학적 유물론의 그 매개명제를 사회생활 연구에 그것을 프로레타리아트당의 실천적활동에 적용하는데로 확장하는것을 철저히 표시하였다。

자연발전의 법칙성에 관한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확인은 사회적 현상의 인식에로 확장되어 사회생활의 발전도 법칙적 과정이라는 결론으로 인도한다。 자연에있어서 그 존재의 한개의 형태로부터 자연적 방법으로 다른식이 발생하는것처럼 인류력사에 있어서도 한개의 사회형태는 다른사회형태를 낳는다。 그렇게해서 자본주의는 봉건주의의 태내(胎內)에서 나왔던것이다。 중세기는 력사과정에있어서 천년간의 전반적 야만의 원인이된 공허한 중단(中斷)이라고 오래동안 생각되었으나 그러나 사실에있어서는 중세기의 봉건사회는 노예소유제도의 페허에서 생겨날 필요성을 가진 완전히 합법칙적인 단계인것이다。 이것은 사회에 전혀 우연이라는것이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력사의 서술은 만일 그속에 전혀 우연의 역활이 인정되지않는다면 극히 신비로운 형태로 될것이다。 력사는 사람이 만드는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활동은 때로는 어느 정도 우연과 접하게되고 그것은 그 활동에 리익을 줄수도있고 그것을 방해할수도 있는것이다。 우연은 사건 진행에 대해서 현저한 영향을 줄수도있으며 또한 주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모든 우연을 통해서 필연적인 길이 개척되는것이며 인류력사는 자연에 그런것과도 같이 결코 우연의 집적이아니라 법칙적과정인것이다。 인류력사의 본질적인 법칙성은 또한 사회적발전에 관한 과학을 가능하게 하는것이다。

세계, 자연은 전부, 인식될수없으며 우리의 지연에관한 지식은 객관적 진리의 의의를 가진다는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확인—이 확인은 동일한 정도로 사회생활에도 적용된다。 사실에있어서 맑쓰주의 발생당시로부터 사회발전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현실에 적응하는 지식으로 되였다。 이것은 맑쓰—레닌적 력사적, 역추이 생활, 실천으

로 공산 실현되리라는것을 확인하는것이다。 맑쓰와 엥겔쓰는 사회적 발전의 분석에 변증법적 맑쓰주의를 적용하고서 자본주의의 불가피적 파산을 예언하였고 혁명적 시기—프로레타리아트독재의 시기에 관한 명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공산주의는 처음에 자기의 첫번단계인—사회주의로 도달하고 그후에 그의 제二의—높은 단계로 발전된다는 것을 예언하였다。 이 천재적예견은 쏘련에있어서의 로동계급독재의 승리와 사회주의의 승리로써 확증되었다。 위대한 사회주의 十월 혁명전에 벌써 레닌과 쓰딸린은 사회주의는 최초에는 일개국가에서 승리할수있으며 승리할것이라는 명제를 계출하였다。 사회발전에관한 맑쓰—레닌주의적 과학의 이 예견은 현실로써 확인되었다。

「즉 사회주의는 더욱 좋은 미래에관한 인류의 공상으로부터 과학으로 변하였다」—(이·쓰딸린)

다음으로 「만일—하고 쓰딸린동지는 교시한다—자연、실재、물질세계가 본원적이고 의식 사유는 파생적 부차적이라면 만일 물질세계가 사람의 의식에 종속되지아니한 객관적 현실이고 또한 의식은 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이라면 이로부터 사회의 물질적생활、그의 존재도 또한 본원적이되며 사회의 정신생활은 부차적、파생적이되며、사회의 물질생활은 사람의 의사에 종속되지아니한 객관적 현실이 되고 사회의 정신생활은 이 객관적 현실의 반영、존재의 반영이라는 결론이 나오게된다。

그런즉 사회의 정신적생활을 형성하는 원천 사회적사상、사회적리론、정치적견해、정치기구의 발생연천을 사상、리론、견해、정치기구자체에서 탐구할것이아니라 사회의 물질적 생활의 제조건가운데서、사회적 존재가운데서 탐구하여야할것이다。 사상、리론、견해 등등은 그 사회적 존재의 반영인 것이다」。(三八七페지)

이 명제는 사회적 발전의 모든 력사로써 확인된다。

정치적제도의 발생과 발전은 우리에게 사회생활의 물질적 경제적 조건、결국에있어서 물질적 부(富)의 생산조건의 일정한 역활을 표시한다。 맑쓰주의는 정치적 제도는 영원히 존재했던것이 아니라 일정한 경제적조건의 토대위에 발생한것이라는것을 증명하였다。 한대에 도처에 존재하던 생산수단의 공동적소유가 로동생산력의 장성을 토대로하고 사유재산으로 교환되었을때 사회는 착취자와 피착취자로 분리되었다。 그리고 이 분리가 완료되었을때 착취자들의 사유재산과 그들이 다른사람의 로동을 착취하는 조건을 보호하는 사명을 가진 정치제도가 발생되었다。 이 제도는 내면적(주요한) 기능이 피착취인민에대한 군자적 억압이었던 국가라는 것이었다。

국가는 발생하였을뿐만아니라 일정한 경제적 조건의 작용을 받아 발전되었다 경제의 발전은 (사회주의 경제 이전에관한 말이다) 착취의 형태、착취계급의 경제적통치형태의 교대로써 성립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가의 발전도 피착취계급의 정치적 압박형태의 교대를 제기한다。

그래서 만일 고대 노예시대의 고대국가에서 로동의 착취와 노예들의 정치적 무권리가 아무러한 보호도 받지 못했다면 자본주의에 있어서 특히 그의 발전 초시기에 특징이되는것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착취하고 억압하는 가장(假裝)된 방법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경제에있어서 이것은 로동자가 개인적으로 자유롭고 자기의 로동력의 소유자로되며 매매 계약에서 「평등한 권리를가진」 계약당사자로 되어있다는 점에 표현되어있다。 이것은 「상부구조」에있어서도 형식상의 정치적 평등권의 형태로써 적응되는 것을 가졌어야 하였던것이다。 그래서 부르죠아국가를 선행(先行)한 모든 국가와 부르죠아국가가 구별되는 특징은 공화국에 있어서나 군주국가에 있어서의 「의회정권」의 설정이었으며 전반적 선거권의 실시와 공민적 정치적 자유의 포고이었던것이다

그러나 경제에있어서 「평등권이있고」 「자유롭다」는 로동자의 상태는 노예소유제도나 농노제도에서보다도 착취률이 장성하고、잉여가치의 량이 증대하며、생산수단소유자가 부요해지고、재물이 소수자의 수중에 집중되는 출발점으로 되었으며 한편 정치에있어서 로동자의 「평등권」은 국가정권의 장성해가는 중앙집권과 그것을 소수의 자본의 귀인들의 수중에 집중하는 부르죠아의 정치적 통치의 강화와 「결부」되었던것이다。 왜 그런가하면 맑쓰주의의 창시자들이 표시한 바와같이 부르죠아국가의 발전법칙은 국가기구의 완성、정권수행의 력량과 독립성의 장성、그것을 자본가들의 온순한 도구로 변하는것이다。 맑쓰는 자기의 저서 「루이 보나바르트 브류멜 十八일—(불란서 공화력(共和歷) 二월)」에서 이 법칙을 방식화하였다。 그 저서는 자본주의경제의 특징에대해서 일반적 자본축적 법칙의 특징이 가지는 그러한 의의를 부르죠아국가의 특징에 대해서 가지는것이다。

변절자 까우쯔끼—가 제국주의제도의 보존과 옹호에대한、소위 부르죠아 민주주의 찬양에대한 자기의 정책을 정당화하기위해서 제국주의자들이 자기의 재화를 증대하는것도 내버려두고 로동계급이 빈궁해지는것도 방임하라、왜냐하면 프로레타리아트는 수효가 증대되면서 「자유로운」 선거에서 대의

원선거에 더욱 많은 투표수를 갖게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정치적 중력(重力)을 갖게된다고한 그의 반역성은 유명하다。 그는 이러한 자기의 확신을 다음과같이 「리론적」으로 표현하였다。 주 「부르죠아지ー는 경제에있어서 증강되나 프로레타리아트는 정치에있어서 증강된다」。 제국주의적 앞잡이의 이 허언(虛言)에대해서 최근 十년간의 사변의 전 행정은 대립적인 것이다。 이 시기동안에 쉐이데만、 노크쓰、 맥도날드 및 헨데르쏜류(類)의 사람들로써 내각이 조직된것이 한두번만이아니다。 이 모든 「사회주의적」 내각들은 로동계급에게 파멸과 자본의 정권에대한 더욱 큰 복종 이외에는 아무것도 주지못했다。 쓰딸린동지는 이들 사회적ー배신자의 기만을 폭로하면서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맥도날드일파와 쉐이데만일파는 말하자면 그들의 정부는 부르죠아지에게 복무하여주는 기관밖에는、 제국주의의 종처(腫處)를 가리우는것밖에는、 압박을 받으며 착취를 당하는 대중의 혁명운동을 반대하는 부르죠아지의ー수중에있는 무기밖에는 다른 아무것도 될수없는것이다。 그들 그 정부들은 자본에게 그가 병풍이 없이는 대중을 압박하기와 착취하기가 불편하고 불리하고 어려운때에 사용하는 병풍으로써 필요한 것이다」。(「레닌주의의 제문제 제一권五二페지」)

그러한 역할을 현재 자본가들의 수중에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내각을 지배하고있는 우익 사회주의자들 레이보당원들도 하고있는것이다。

「…경제적인 제국주의는ー레닌은 기술하였다ー… 자본주의 발전의 높은 단계이다。 생산이 대규모로되고 가장 대규모로되어 자유경쟁을 독점이 교체하는 바로 그때인것이다。 이점에 제국주의의 경제적 본질이 있다。

……새로운 경제、 독점적자본주의(제국주의는 독점적 자본주의이다)의 정치적 상부구조는 민주주의로부터 정치적반동으로의 전환이다。 자유경쟁은 민주주의에 상명한것이다。 독점은 정치적반동에 상당한것이다」。(브・이・레닌전집 一九권 二〇七페지)

우리는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국내정책에있어서 점점 심하게 로골적으로 근로자를 압박하며 대외정책에서는 민족적독립과 제민족의 민족적주권을 억압하는데로 나아가고있는것을 보고있다。

상술한바에 의해서 경제는 프리뮤스 아젠스(최초의 활동자)이라는것을 알수있다。 그것은 정책에 선행하며 그것을 낳는다。 경제적 형태의 교대는 정치적형태의 교대도 초래한다。 정책은 경제를 따른다。 그러나 정치적제도는 통치계급의 수중에서 그의 경제적 지위를 보호하는 도구로 되기때문에 새로운 생산방법의 승리를 위해서는 그것을 보호하고있는 정치적 력량을 강제로 퇴치함이 요구된다。 그래야 그것이 정치적력량으로도 극복될수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경제가 낳는 정책은 그 자체가 경제를 개혁하는 힘으로 되는것이다。

十월사회주의혁명의 경험은 새로운경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방법의 창건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역활을 여실히 보여준다。 례컨대 제二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제국주의 체계에서 벗어난 구라파의 여러나라들은 그 나라에서 창건된 새로운 민주주의에 의해서 사회주의로 전환하기위한 토대를 닦고있다는것을 우리는 보고있다。 이 모든것은 정책이 경제에대해서 우선적인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치적제도의 발생에관한 문제와 그것의 의의에관한 문제를 구별할 필요가있다。

정치적제도는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이 개혁하는 력량으로서의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것을 방해하는것은아니다。 그렇기때문에 프로레타리아트는 자기로동에 대한 착취를 숙청할 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정치적 정권을 장악해야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르죠아국가의 범위내에서 그 토대위에서는 이것을 달성할수없는 것이다。 프로레타리아트는 맑쓰ー레닌주의가 자르치는 바와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정권을 전복시키고 부르죠아국가기구를 분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여야 하는것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공산주의사회건설의 기초로된다。

사회주의국가에 관한 문제는 맑쓰ー레닌적 리론에 새로운 기여를 한 쓰딸린동지에 의해서 연구되었다。 쓰딸린에있어서 사회주의국가 존재의 경험을 총화하면서 쓰딸린동지는 사회주의국가 발전에 있어서의 발전단계 교체에 관한 명제를 제기하였다。 쓰딸린동지는 十월혁명시기로부터 쏘련사회주의국가는 자기 발전에 있어서 두개의 주요한 단계를 경과하였다는것을 표시하였다。 첫째단계는ー十월혁명으로부터 착취계급숙청까지이다。 둘째단계는ー도시와 농촌의 자본주의적 요소의 숙청으로부터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완전한 승리와 신헌법 채택까지이다。 이와같이 사회주의국가의 발전단계의 교체는 쏘베트적 경제의 발전으로 제약된것이다。

경제의 발전은 전국에있어서 사회적 의식의 발전도 결정한다。

사회적 의식의 제형태는 정치、 법률、 도덕、 종교、 예술、 과학 및 철학등이다。

이러한 의식형태는 그중에 어느것은 먼저발생하며 다른것은 늦게 발생한다。 그리하여 례를들면 철학은 종교보다 훨씬 늦게 발생하며 법률은 철학

보다 더욱 늦게 발생한다。법률관념은 그것이 발생함에는 경제부면에있어서 일정한 과정으로 제약된다는것이 특히 명백히 알수있다。국가가 사회에대한 관계에있어서 독립적인 력량으로 되었을때 그것은 새로운 관념—법률관념을 낳는것이였다。국가는 일정한 경제적조건의 산물이다。그리고 그것이 의식속에 반영된것이 법률인것이다。

사회적 의식의 발전에 관하여 언급한다면 일정한 의식형태는 해당한 매개 생산방법에 일치하는 것이다。쓰딸린동지는 교시하기를 「사회의 생산방식 여하에따라 기본상 사회자체도 달라지며 그 사상 및 리론 정치적견해 및 기구도 달라진다」고하였다。(「쏘련공산당(볼쉐위끼)력사」로동당 출판사판 二一○페지)

사회적 의식의 임의의 형태 특별히 도덕이 이점을 증명한다。부르죠아지는 착취하는 계급이여서 무제한적 개인주의와 인간증오의 잔악한 도덕을 공언(公言)하는것이다。

자기자신의 해방과 전체 근로자를 착취와 압박으로부터 해방하기위해서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트는 세계에 새로운 도덕—근로자들의 동지적 단결、상호 지지의 도덕을 가져왔다。

사회적존재에 의해서 사회적 의식이 어떻게 변화되는가에대한 명료한 광경을 쏘베트사회의 지적

(知的、도덕적 상태가 제시하여준다。쏘베트국가가 三十년동안 경과하는 동안에 쏘련에 있어서는 경제에있어서 뿐만아니라 사람의 의식에 있어서도 전변이 발생했다。이 기간에 선진적인 쏘베트적 세계관이 광범히 보급되었고 공산주의 도덕의 깊은 뿌리(根)를 퍼치게되었다。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 사회주의적 소유가 경제적 토대로 되는 쏘련에있어서는 집단주의(集團主義)적 의식과 사회와의 개인의 련관성에대한 의식이 지배하고있으며 더욱 공고히되고있다。「쏘베트사람들은—하고 스다노브동지는 말하였다—전체 인민적 국가적 리익을 무엇보다도 극히 높게 생각하는것이 습관적으로 되었다。그들은 전체적인 사업을 자기의 본질적 개인사업으로 생각하는것이 습관적으로 되었다」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자본주의와는 반대로 사회주의는 그들을 결합시킨다。사회주의는 처음으로 사회의 사상적—정치적통일을 창설하고 민족간의 우의적이고 형제적인 관계에대한 견고한 물질적 토대를 이룩한다。새로운 생활조건은 새로운 의식을 낳는것이다。

새로운 사회제도의 토대위에서 쏘련에서는 민족적 전통과 그들의 전체적 생활상의 리익을 조화있게 련합하는 쏘베트적 애국주의가 발전되였다。쏘베트적 애국주의、쏘베트적 민족적 자랑은—쏘베트사람들의 사상적 형모의 깨뜨릴수없는 특성이다。

그러나 사회의식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발생하고 그 작용을 받아 발전되지만 그후에는 자기편으로 부터 사회적 존재의 발전에 작용을 표시하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의식 사상의 발생에관한 문제와 사회발전에있어서의 사상의 역할과 의의에관한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는것이 필요한것을 지적한다。자기의 시대를 전부 경과해버리고 사회의 사멸해가는 력량의 도구로되는 그러한 사상과 리론도 있었다。이 사상들은 사회의 앞으로의 전진을 제지시킨다。사회의 선진적이고 진보적인 력량의 리익에 복무하는 새롭고 선진적인 사상과 리론은 사회가 앞으로 높은 단계로 향해서 전진하는 운동을 도와준다。새로운 사회적 사상과 리론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에서 발생한 제변화에 의해서 야기(惹起)된 새로운 력사적 요구의 표현으로써 발생하는것이다。즉 그것은 사회적 존재의 변화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되는것이다。「그러나 그가 발생된뒤에는—하고 쓰딸린동지는 교시한다—그는 사회의 물질적 생활발전이 내세운 새임무의 해결을 촉진시키며 또 사회의 전진을 촉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된다。실로 여기에서 새사상、새리론、새정치적 견해、새정치적 기구의 가장 위대한 조직적인 동원적인 및 변혁적인 의의

가 나타난다」(三八九페지)

쏘련공산당력사는 레닌주의의 창시자 레닌과 쓰딸린에 의해서 공고된 선진적 혁명적 사상이 어떻게 세계개조의 도구로되었으며 되고있는가에 대한 이 사상이 어떻게 자기의 길을 타개하였고 대중의 자산으로 되었으며 생활속에 체현되었는가에 대한 명료한 확증을 준다。

히틀러독일을 반대하는 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에 있어서 선진적 사상이 가지는 동원하고 조직하는 역활이 고도로 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히게 확증되었다。위대한 쓰딸린이 쏘베트인민에게 그들의 정의적 전쟁에서 길을 밝혀주었던 그 사상이 생명력있는 쏘베트애국심을 배양하였고 쏘베트사람들의 전쟁과 로동의 류례없는 위훈을 낳았던것이다。

사회발전에 있어서 선진적 사상 선진적 의식의 거대한 역활에 적응해서 볼쉐위끼당은 쏘베트사람들의 의식속에있는 자본주의의 잔재에대해서 결정적 공격을 수행하고 쏘베트인민을 공산주의사상 쏘베트적 애국주의의 정신으로 교양주면서 사상적 사업의 부단한 앙양에 끊임없는 주의를 돌리고있었다。이—교양적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되는것은 부르죠아적 사상적 영향을 반대하고 부르죠아 반동적 문화앞에 아부하는 모든 잔재에대해서도 그것

을 반대하는 투쟁인것이다。 사회주의의 장래 전체에 이어서와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물질적 및 사상적 전제를 조성함에 있어서의 성공은 사상전선에서의 투쟁의 성공과 인민들의 공산주의적 교양의 성공에 의존하는것이다。

쓰딸린동지는 맑쓰주의적 변증법적 방법과 맑쓰주의적 철학적 유물론의 명제를 해명하면서 항상 이 명제중에 매개가 사회적 현상을 인식하는데로 확장된다는것을 지지한다。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의 통일성과 분리못할 성질에대한 가장 깊고 전면적인 기초가 이점에서 주어지는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맑쓰주의의 적—베른슈따인、까우쯔끼—、마하 및 기타들 측으로부터 력사적유물론을 변증법적유물론에 대립시키려고하는 여러가지 기도가 나왔던것이다。 이 맑쓰주의의 적들은 「강제적 혁명의 공포」로 부르죠아지를 —위협하지않기위해서 맑쓰주의적 변증법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부르죠아지가 대중을 종교와 존승주의(尊僧主義)에 사로잡혀 있기에 절리하도록 맑쓰주의를 거절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소굴에서 인민과 그의 절실한 리익을 반대해서 싸우고있는 현대적 거짓사회주의자들은 지금까지도 그와같은 행동을 계속하고있다。 이 모든 적들은 사회생활에대한 변증법적 유물론의 「버화협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고 또한 지도하고 있다。

사회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리해하는데 변증법적 유물론을 전면적으로 적용한 쓰딸린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는 맑쓰—레닌주의의 적들의、파화적 사회주의의 적들의 헛된 생각을 반대하는 예리한 무기로써 우리를 무장하여준다。

력•사•적• 유•물•론•

쓰딸린동지의 저서에서 거대한 사상적 풍부성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회의 물질적 생활조건의 내용이 해명되고 사회의 물질적 발전과정이 표시된 부분이다。

력사적유물론의 리론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쓰딸린동지는 자기의 저서에서 사회발전에있어서 생산력의 결정적 역할과 아 발전에대한 지리적 환경과 인구밀도가 주는 영향의 차이를 특징짓고나서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에대한 각별히 심오한 분석을 하였다。

총체적으로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에 들어가는 지리적 환경이나 인구의 밀도는 사회발전에있어서 결정적역할을 노는것은 아니다。 사회생활의 물질적 조건의 체계에서 중요한 힘으로 되는것은 —…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획득방식 즉 사회의 생활과 발전에 필요한 물질적부(富)—식량、의복、신발、주택、연료、생산요구등등의 생산방식이라고 인정한다」(三九四페지)

쓰딸린동지는 「생산방식」의 정의에도 완전한 명료성을 가져왔고 그 개념을 「생산력」 「생산관계」의 개념과 같이 적절히 표현하였다。 력사적유물론의 기본개념을 정의하는것은 력사적유물론이라는 술어가 사용되는 과정에서 가졌던 불일치(不一致)에 종점(終点)을 두었기때문에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력사적유물론에관한 문헌에는 「생산력」이라는 술어의 잘못된 취급이 전파되고있었다。 그 립장에 의하면 생산력안에 로동도구와 로동력과함께 로동대상도 구성요소로써 포함되었던것이다。

쓰딸린의 저서 「변증법적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서는 생산력은 다음의 형식으로 정의되었다。 즉 「물질적 복리가 그 힘을 빌어서 생산되는 •생산•요구• 일정한 생산경험과 로동기능에 의하여 그 생산요구를 자용하며 물질적복리를 생산하는 인간—이 모든 요소가 전부 합쳐서 사회의 생산력을 구성하는것이다」(三九五페지)

이 정의에서 볼수있는바와같이 비록 로동대상이 생산을 위해 필요되는 조건이고 그것이 없이는 생산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산력의 부분으로 포함시키는것은 옳지않은것이다。 생산력안에 생산의 자연적조건을 포함시키는것은 —력사적 유물론의 본질자체를 외곡하는것이다。 력사적유물론은 사회현상과 관련을 가지지않지 자연현상과 관련을 가진것은 아닌것이다。

로동요구와 로동자체도 이에 적용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 력사적유물론으로써 관찰되는것이지 그것의 자연적 정의의 측면에서 관찰되는것은 아닌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이 생산경험과 로동에대한 습관을 획득하는 결과로써 생산력이 되는것이다。 이 생산경험은 자연의 선물로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것이아니라 그들의 사회생활의 과정에서 발생하고 발전되는것이다。 로동요구도 이와 동일한 리유로써 그것이 물질이고 자연력이기때문에 생산력의 요소로 되는것은 아닌것이다。 바퀴、못、전기의 힘을 잡은것으로써만은 생산력이 아닌것이다。 그것들은 그것이 적용되는 결과로 그것이 목적있는 인간의 로동활동에서 어떻게 리용되는가에 의하여서만 생산력으로 되는것이다。 인간의 목적에 적합한 로동활동과정에 있어서만 물질과 자연력이 로동요구로 변화되는것이다。 그 「자연적 재으로 집단화된 또는 로동의 주둥에 있을때 비롯소 기능을 다하는…」(맑쓰 「자본론」 一권 三六五페지)

로동과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로동은 로동수단—수 로동물체와 로동요구가 결합되어야한다。그러나 로동이 어떻게 로동수단과 결합되는가의 방식은 대립되는 사회에 있어서 서로 다르며 직접 대립되는것이다。자본주의하에서는 생산수단이 생산자에게서 분리되었고 로동자는 생산수단을 소유하고있는 자본가들의 허락이 있을때에만 일할수있다。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소유가 존재하는 사회주의하에서는 로동능력이있는 사람은 누구나 로동에대한 권리가 보증된다。생산수단에대한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의 이 차이는 사람들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도 조성한다。 자본주의하에서는 로동자를 착취하는 생산수단의 소유자들과 자기로동이 착취를 당하는 로동자들 사이에 화해할수없는 적대적 관계가 존재하지만 생산수단에대한 일반적、사회주의적 소유가 존재하고 어떤사람이 다른사람을 착취하는 일이없는 사회주의하에서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들 사이에 협조적 관계를 조성하는 로동과정에 있어서 그들의 상태에 평등한 동등관계가 존재하는것이다。

생산수단에대한 사람들의 관계에서 장성되는 사람들간의 관계의 상이(相異)한 형태가 생산관계인것이다。맑쓰에 대한 비판가들은「생산관계」의 개념에대한 의의、또한 력사적유물론의 기타의 개념에있어서 혼란케하였다。맑쓰에 대한 비판가들은 생산관계로써、례컨대 원료구입 상품판매 각종구여의 토지의 소전의 상호관계、각종농작물간의 로자 할당 등등을 가산하였다。이것은 력사적유물론의 근본적개념의 하나를 부명히 의곡(歪曲)한 것이다。

생산관계라는 말로써 무엇을 리해하여야 하는가에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하고 명백한 해답을 가지고있다。

쓰딸린동지는 력사적 유물론의 본질에서 출발하고 맑쓰와 엥겔쓰에 적용하는 의견에 의거하면서「생산관계」라는 술어의 정확한 정의를 나리었다。

「만일 생산력의 상태는 인간은 그 자체에 필요한 물질적 복리를 어떠한 생산요구로써 생산히는가하는 문제에 대답하게된다면 생산관계의 상태는 어느듯 다른문제 즉 생산수단이 (토지、삼림、수리(水利)、지하자원、원료、생산요구、생산건물、교통수단、통신수단등등) 누구의 소유로있느냐、생산수단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느냐、사회전체의 처분하에있느냐 그렇지아니하면 다른 개인、집단、계급을 착취하기 위하여 이 생산수단을 리용하는 일부의 개인、집단、계급의 처분하에 있는가에 대답한다」

(四〇〇폐지)

쓰딸린동지는「생산방식」이라는 술어에 대해서도 정확히 정의를 주어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생산、생산방식은 사회의 생산력과 인간의 생산관계를 함께 포함하여 이리하여 물질적복리를 생산하는 행정에있어서 이 량자의 통일을 체현하는것이다」(三九六페지)

쓰딸린동지가 자기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호상간의 관계를 변증법적으로 분석한것은 가장 중대한 의의를 가졌다。

쓰딸린동지는 한개의 생산방식이 다른것으로 어떻게 교대되는가를 알기위해서 고려할 필요가있는 생산의 세가지 특징을 지적하였다。

「생산의 첫째특징은—하고 쓰딸린은 교시한다。—그것이 결코 장기간에 걸쳐 일점(一點)에 머무어 있지않고 항상 변화발전의 상태에있으며 그리하여 생산방식의 변화는 불가피적으로 모든 사회제도、사회적사상、정치적견해、정치기구의 변화를 일으킨다는것、모든 사회적 정치적구조의 혁신을 일으킨다는것이다」。(三九六페지)

생산의 이 특징으로써 력사과학의 가장 첫번가는 과업중의 하나가 결정된다。 만일 모든 사회적 정치적생활의 변화의 토대에、사회적 사상의 변화의 토대에 생산방식의 변화가 놓여있다면 사회의 력사적발전은 무엇보다도 먼저 물질적복리의 생산의 력사이며 력사과학은 첫째로 인민대중의 력사로 되어야하며 왕이나 장군이나「정복자」의 력사이어서는 안된다는 등등인것이다。사회의 력사를 연구하는 열쇠는 경제에서 찾아야하며 그러므로 력사과학의 첫째가는 과업은 생산의 법칙、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법칙、사회의 경제적 발전법칙의 연구와 해명인것이다。

「그런즉 프로레타리아트당이 정치에서 오유를 범하지않으려면 그 강령작성에 있어서나 그 실천활동에서나 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의 발전법칙、사회의 경제적 발전법칙에서 출발하여야 할것이다」。(三九八페지)

다음으로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생산의 둘째특징은 생산의 변화와 발전은 항상 생산력의 변화와 발전으로부터、무엇보다도 먼저 생산요구의 변화와 발전으로부터 시작되는데있다」。

(三九八페지)

생산력의 변화에 의해서 이 변화에 적응하게 생산관계는 변경된다。생산력은 생산의 가장 기동적이고 혁명적인 요소이다。그러나 생산관계는 주동적 역할을 노는것은 아니다。생산관계가 비록 생산력에 의존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생산력의 발전에대해서 그것을 촉진하거나 또는 완만히 하면서 반작용을한다。

쓰딸린동지는 생산의 세째특징을 다음과같이 지

적하고있다。「……새로운 생산력과 그에 적응한 생산관계의 발생은 낡은 제도와 분리되어、발생되는것이아니라 낡은 제도가 소멸한 후에 발생되는것이아니라 낡은 제도의 내부에서 발생되는것이며 사람의 예기한 의식적 활동의 결과에、발생되는것이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의사에 전연 관계없이 발생되는것이다」。(四〇八페지)

그러나 쓰딸린동지가 지적한 바와같이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발전의 이 자연적 특성은 일정한 한계까지만 존재하는것이다。「……이는 다만 일정한 시기까지의 일이며 발생하고 발전하고있는 생산력이 마땅히 성숙되는 그 시기까지이다。 새 생산력이 성숙된 후에는―하고 쓰딸린은 지적하고있다。―현존 생산관계와 그 보지자(保持者)인 지배계급이 「극복할수없는」 장애물로 변하는바、이 장애물은 오직 신흥 제계급의 의식적활동으로써만、이들계급의 폭력적행동으로써만、혁명으로써만 제거할수있는것이다。……… 자연생장적 발전과정은 인간의 의식적 활동에 자리를 양보하며 평화적 발전은 폭력적변혁에 자리를 양보하며 진화는 혁명에 자리를 양보한다」。(四一一―四一二페지)

여기서 특히 명백히 낡은 생산관계를 폐지시키는 사명을 가진 새로운 사회적사상、새로운 정치기구、새로운 정치정권의 거대한 역활이 표현된다。

새로운 생산력과 낡은 생산관계간의 갈등을 토대로하고 사회의 새로운 경제적 요구를 토대로하고 새로운 사상은 대중을 조직하고 동원하며 대중은 새로운 정치적 군대로 단결되며 새로운 혁명적정권을 창설하고 그것을 생산관계부면에 있어서의 낡은 질서를 폐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리용한다。

생산의 이 세가지 특징을 전부 쓰딸린동지는 생산관계의 五개기본특징을 살피면서 풍부한 실제적 자료로써 해설하고있다。 즉 원시 공산제도、노예소유제도、봉건제도、자본주의제도、사회주의제도이다。 五개사회형태의 이 분석은 력사과학에 있어서의 새로운 창조적 기여이며 우리를 력사적유물론의 기초에 대한 더욱 깊은 지식으로 무장한다。 사회발전형태의 력사적 분석은 쓰딸린동지에 의해서 발전된 사회주의하에서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련관성의 새로운 법칙에 관한 학설에 토대로 되어있다。

생산이 생산수단의 사유를 토대로 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이 자연생장적으로 발전되면서 생산력의 발전에 대해서 철쇄로된 로쇠한 생산관계를 새로운 생산관계로 교대하는 목적에서 혁명적으로 통치계급을 전복시킬 필요성이 발생하는 그러한 생산관계와 갈등하게되는 일정한 발전단계에 이르게된다。

생산수단의 사유가 숙청되고 그것이 사회적 소유로 교체되었으며、적대적계급들이 없으며、계획을 수립하는 사회주의국가가 쏘베트경제의 진행과발전의 원천으로되어있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생산력과 생산관계간의대립과 갈등이 있을곳이 없으며 사회적혁명이 있을곳이 없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생산력의 특징에대한 완전히 일치된 생산관계가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맑쓰가 가르친바와같이 사회주의시대에는 「사회적진화는 정치적 혁명으로는 아니될것이다」。 쓰딸린동지는 다음과같이 지적하였다。 「……생산관계가 생산력의 성격에 완전히 적응한 실례는 쏘련의 사회주의적 인민경제가 그것이다。 쏘련에서는 생산수단에대한 사회적소유가 생산행정의 사회적 성격에 전적으로 적응하는때문에 쏘련에서는 경제공황도 생산력의 파괴도 없는것이다」。(三九九―四〇〇페지)

× × ×

변증법적 유물론을 사회생활을 인식하는데로 확장한 력사적유물론은 볼쉐위끼당의 실천적 활동에있어서 확실한 무기의 역활을한다。

력사의 유물론적 인식에 따라 실천적활동은 그것이 정세에 대립하지않고 그것과 결합되는때에 비로소 성공된것으로 예산할수있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면으로부터 말하면 사람이 정세의 노예로 되어야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모든것은 그것이 사실로 되기보다 먼저 다만 가능성으로써 존재한다。 그러나 가능성은 자체의 힘으로써 사실로 변화되는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변화되는것이다。 진실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방법과 수단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사실로 변화시키기위해서 실천적 힘을 적용하는데서 표현되는 인간의 창조적 적극성의 토대는 바로 이곳에 부여되는것이다。 이 점에 적응해서 볼쉐위끼당은 엄격한 의미에서 실제적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창조적 주도적 용감성을 자기의 실천적 활동에 결합한다。 볼쉐위끼적 정책은 소위 의사의 절대적 자유에 관해서론하며、모든 실제적인 토대에서 사람들의 활동을 분리시키는 주의설(主意說)과는 관계가없는것이다。 그와 동시에 볼쉐위끼적 정책은 현실에대한 사변적 관계를 설교하며、사람을 무활동으로 운명짓는 숙명론과도 관계가없는것이다。 볼쉐위끼당의 [illegible]에서 우리는 당이 가장 위대한 혁명적정력(精力)과 불굴(不屈)의 의지를 요구하면 간절한 위훈을 세운것이 한두번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다。 볼쉐위끼당은 중대한 력사적 시변에 [illegible]가며 스스로 가장 거대한 력사적과업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용감성과 결단성이 있는것이다。 이것의 훌륭한 증

명이되는것은 十월 사회주의혁명의 승리인것이다。

그러나 볼쉐위끼의、당은 그의 용감성과 결단성으로 특징이 될뿐만아니라 그의 창조적 혁명적 활동성으로도 특징이 되는것이다。 볼쉐위끼가 자기의 투쟁력사에서 장악한 승리들은 이러한 성질중의 한가지로만은 설명할수없는것이다。 볼쉐위끼당은 항상 현실에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때문에 승리하였다。 이것은 또한 볼쉐위끼당에게 령도되는 쏘베트인민이 독일강점자를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전쟁에서 장악한 승리의 조건중의 하나이었다。 전쟁첫날에 쓰딸린동지는 히틀러독일에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예정했던 천재적 력사적 예측을 하였다。 이 예측은 모든 력량、경향、가능성의 총체를 전、면적으로 고려한데 기초되었었다。 그대에 그 모든것은 정지한 부동의 상태에서가 아니라 동적(動的)인 발전에서 관찰되었던것이다。 쓰딸린동지는 현명하게도 당과 쏘베트인민의 노력을 승리를 위해서 허용된 사회주의적 생산방법과 쏘베트제도의、우월성의 모든 가능성을 발견하고 최대한도로 리용하는데로 향하게하였다。

력사적유물론의 근본적 전제와 엄격히 일치한 가운데 볼쉐위끼당의 다른 특징이 있는것이다。 그것은 볼쉐위끼당이 자기의 모든 정치적 활동에있어서 대중과의 분리되지않은 련결에 의거하고있다는 점으로 특징되는것이다。

맑쓰와 엥겔쓰가 력사적 유물론을 창시한때로부터 모든 인류의 력사는 새로운 빛속에 나타나게되었다。 레닌의 말에 의한다면 「……과거의 리론은 인민대중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지않았으나 력사적 유물론은 처음으로 자연—력사적 정확성을 가지고 대중의 사회적 생활조건과 그 조건의 변화를 연구할 가능성을 주었다」 (브·이·레닌 전집 十八권 十三폐지) 력사적유물론은 력사에 있어서의 대중의 역할을 해명하였고 진실로 대중이 력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것을 증명하였다。 맑쓰주의의 이 리론적명제는 항상 대중을 이끌어가는것을 자기의 가장 선차적인 과업으로 보고있는 볼쉐위끼적 정책의 초석을 구성한다。 볼쉐위즘의 창시자인 레닌과 쓰딸린이 아무어 놓은 첫째되는 위대한 사업은 과학적 사회주의를 로씨야에 있어서의 로동운동과 결합한것이었다。 볼쉐위끼당은 그후의 모든 력사를 통해서 대중을 위한 간단없는 투쟁으로 시종일관하고있는 것이다。 대중의 역할과 그들의 조직에관한 문제는 레닌—쓰딸린적 정책의 근본적 문제이다。 이 문제에대한 대답으로된것이 새로운 형태의 당—「……첫째로 프로레타리아의 가장 광범한 근로대중과 그뿐아니라 또한 비프로레타리아 근로대중과 련결되고 접근되고 일정한 단계까지 융합되는것을 사명으로하는 「레닌주의의 당」을 창설한것이었다。 이 문제에대한 대답이 된것은 대중을 파악하고 로동자—농민의 정권을 쟁취하기위해서 그들을 조직하는 방법과 수단을 결정한 레닌의 천재적인 「四월 론강」이었다。

볼쉐위끼당은 력사의 진정한 영웅을 인민대중속에서 보고있다。 왜냐하면 레닌이 지적한 바와같이 그들에게 「……수효의 힘、대중의 힘、모든 현실적이고 사상적이고 정절하고 장래를 열망하고 새로운 것을 건설하는데로 각성하였고 정력과 재능의 모든 거인적 예비의 끊임없는 원천이되는 힘이 있기때문이다」(브·이·레닌 전집 二十二권 一五七폐지) 볼쉐위끼당은 대중을 국가관리에 가장 광범히 끌어넣고、그들로하여금 국가관리의 사업을 배우게하고、대중을 전문대의 수준까지 제고하고、대중속에 영웅성의 모범과 전형을 가장 광범히 보급시키는 정책을 수행하고있다。 당과 인민의 이러한 깊은 련계는 그에게 승리를 가져왔던것이다。

위대한 十월 사회주의혁명은 그 기치밑에 수十만 수백만의 대중이 있었기때문에 완성된것이었다。 쏘베트정권이 외국간섭자들과 국내 반혁명세력을 극복할수 있었던것은 쏘베트정권을 방위하기위해서 수백만의 근로자들이 궐기하였기 때문이었다。 쏘련에서 사회주의 건설이 승리한것은 그것이 수천만 근로자들의 사업으로 되었던까닭이었다。 쏘베트동맹이 전대미문으로 잔혹하고 간악한 적에대한 승리를 장악한것은 사회주의 조국을 독일 략탈자들에게서 방위하기위해서 전체 쏘베트인민이 총궐기해서 전선과 후방에서 대중적으로되는 영웅성으로써 적에게 대적했기때문인것이다。 조국앞에서의 볼쉐위끼당의 불멸의 공훈은 당이 가장 곤난한 조건하에서 능히 수백만 대중을 조직할수있었으며 파시스트강점자를 반대해서 전인민적 투쟁을 조직할수있었던 점이다。 「당의 조직자로서의 공작은 모든 우리의 힘과 수단을 적을 격파하는 사업에 종속시키고서 쏘베트사람들의 모든 로력을 한뭉치로 통합하였고 공통된 목적으로 향하게하였다」。 (이·쓰딸린「쏘베트동맹의 위대한 조국전쟁에관하여」 一一九폐지)

볼쉐위끼당의 정당한 정책을 작성하는데있어서 력사적 유물론이 가지는 의의는 상술한 바로써 다 말한것은아니다。 력사적 유물론은 과학적으로 사건의 력사적내용에 투입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견하고 정당한 력사적 예측을 하는데 향한 길을 지시한다。 력사적 유물론은 어떠한 사회현상이든지 그 발생과 발전에서 관찰되어야하며 어떠한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든지 결국에 있어서

일정한 사회계급이나 사회위 그루파의 물질적 경제적 리익의 반영으로서만 리해될수있다는것을 지시한다. 현상에 대한 어떠한 정책, 이데올로기의 실제적 내용을 분별하고 그것의 계급적 본질, 그것의 진정한 복무상의 사명을 밝히기위해서 볼쉐위끼당은 이러한 유물론적 설명으로 성과있게 령도된다. 능숙한 정치적 판단도 이에 기초되는것이다.

그 실례는 각종의 적들과 볼쉐위끼당이 싸워온 투쟁력사에서 수다히 찾을수있다. 레닌과 쓰딸린에 의한 멘쉐위끼의 모든 표현에 대한 정치적 식별, 모든 형태의 우익 또는 「좌익」기회주의의 정치적 식별, 이 모든것은 인민의 리익에 적대되는 각종의 정강, 강령, 표어들의 본질을 폭로하는데 력사적 유물론을 적용한 명료한 해설인것이다. 레닌은 볼쉐위끼당에게 가르치기를 「사람들은 그들이 어떠한 도덕적,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문구나 선언이나 서약에 대해서 어떠한 계급의 리익을 발견하는것을 습득하지못한 동안까지는 정책에있어서 항상 기만과 자기기만의 어리석은 희생이 되였으며 항상 그렇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브·이·레닌전집 十六권 三五三페지)

레닌은 가르치기를 진보의 옹호자들은 모든 반동분자들이 쓰고있는 허위와 기만의 마스크를 벗、기어버리기를 배우기 까지는 항상 기만될것이라고 하였다. 히틀러도배들과같은 그러한 방자하고 광포한 살인자와 유린자들까지도 자기의 략탈과 만행에 「합법적인 형태와 해석」을 붙이려고 시도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민족—사회주의자」라고 불렀고 그들이 「구라파문명의 보지자(保持者)」이라고 외쳤다. 이러한 까마귀들도 공작의 날개털로 장식을 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볼쉐위끼당은 파시즘의 정체를 옳게 식별하였고 그것이 사회적 무대에 나타나자마자 그의 진정한 본성을 결정하였다. 이 결정의 토대에는 제국주의에대한 레닌—쓰딸린적 유물론적 분석이 놓여있는것이다.

유물론적분석이 어떠한 력사적 정세하에서 대중을 어떻게 인도할것인가를 예견하기위한 볼쉐위끼당의 진정한 무기로 된것은 한두번만이 아니다. 그 실례를 들면 一九一七년二월—十월 기간에 볼쉐위끼들이 대중을 장악하기위해서 멘쉐위끼와 에쓰에르들과 투쟁한것을 상기하자. 멘쉐위끼와 에쓰에르들에게 기만된 대중은 처음에는 그들을 따라갔다. 그러나 레닌, 쓰딸린, 볼쉐위끼들은 시간이 경과하면 반드시 대중이 볼쉐위끼들 쪽으로 돌아올것을 확신하고있었다. 왜 그러냐하면 대중의 진실하고 절실한 리익을 그들이 의식하기만하면 자기들 자신의 계급적 본성에 의해서 인민의 리익에 복무할수없었던 멘쉐위끼와 에쓰에르들에게서 대중은 당장에 떨어져 나갈것이기때문이였다. 레닌과 쓰딸린은 로동계급의 적들이 대중앞에서 자체를 폭로하고 로동운동으로써 전복될것이라는 것을 천재적으로 예견하였다. 一九四一—一九四五년의 조국전쟁 초기에 쓰딸린동지는 인민대중의 절실한 리익의 유물론적 고려에서 출발해서 히틀러도배들은 전쟁과정에서 자유애호인민들의 략탈자로서 자기자신을 폭로할것과 전체 자유애호인민들로부터의 치명적인 증오를 환기하리라는것을 천재적으로 예견하였다. 사실은 그대로 되었다. 파시즘을 완전히 숙청하는것이 전체 진보적 인류의 부르짖음으로되었다.

× × ×

쓰딸린동지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는 그의 전술과 전략으로서 맑쓰주의 당의 세계관의 토대를 함께 련결한다. 쓰딸린동지는 볼쉐위끼당의 가장 풍부한 경험을 변증법적 및 력사적 유물론의 견지에서 천재적으로 총화하고나서 매개 볼쉐위끼에게 계률(戒律)로되는 결론을 형성하였다.

그 결론은 다음과같다. 「그렇다면 프로레타리아트당이 그 실제활동에서 어떤 우연적 동기에 의해 지도될것이 아니라 사회발전법칙에 이 법칙으로부터의 실제적 결론에 의해서 지도되어야할때는 것이다. ……………그런즉 과학과 실제활동과의 관련, 리론과 실천과의 관련, 이들의 통일은 프로레타리아트당의 향도성이 반드시 되어야할것이다」(三八六—三八七페지)

쓰딸린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유물론에 관하여」는 맑쓰—레닌적 학설은 생명이 있으며 새로운 관련과 관계를 발견하고 자기 발전에 있어서 더욱더욱 풍부해지는 발전되는 학설이라는 것을 표시한다.

쓰딸린의 저서 「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는—볼쉐위끼당원들에게 사회발전법칙의 지식, 정치투쟁의 지식, 혁명의 동력, 사회주의 건설, 공산주의 건설의 법칙에대한 지식을 주는 위력한 리론적 무기인것이다. 쓰딸린의 저서「변증법적 유물론과 력사적 유물론에 관하여」는—쓰련에 있어서의 공산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위한, 전세계에있어서 공산주의의 승리를위한 투쟁의 기치를 들고있는 당의 리론적 무기이다.

당사업경험에서

로동자 농민들의 물질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당단체의 역할 (五)

북조선로동당 청진시당부 부위원장 리 두 진

우리의 해방자인 쏘련군대는 일제가 강점하였던 중요산업 운수 체신 은행기관등을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겨주었으며 파괴된 공장 기업소를 복구함에 있어서 물질적 기술적원조를 아끼지않았다。 그리하여 공장기업소의 주인으로된 로동자 사무원들은 조국통일의 경제적기초를 구축하는 인민경제계획의 초과완수를 위하여 온갖 창의 창안과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며 원가저하를 위한 투쟁을 조직전개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투쟁에 있어서 특히 우리당원들의 선봉적인 고귀한 투쟁은 로동자 농민들의 물질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 사업에 기여한바 역할은 실로 막대한것이 있다。

우리민족의 위대한 령도자인 김일성수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정강을 발표하면서 「조선인민의 물질적복리를 부단히 향상」 시킬것을 명시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내각 제六차회의는 「로동자 사무원들의 생활 향상대책에 관한 결정」 을 채택하여 식량증배、 로동보호 물자 및 의화류의 무상 급여、 주택보장등 획기적인 개선을 보게되었다。 이는 우리당의 경제정책과 전체 당원들의 진지한 투쟁으로 말미암아 인민공화국정부의 경제적 기초를 반석같은 토대위에 구축하고 생활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효를 만족시킬수있는 조건들이 지어진데 기인된다。 이 기초위에서 우리당중앙위원회 제三차회의는 우리당과 우리조국의 지주(支柱)로 되는 로동계급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청진시당단체는 국가와 당의 옳은 시책을 광범한 해설 선전사업을 통하여 매개 로동자 농민들로 하여금 국가의 주인다운 립장에서 조국건설의 선두에서 자기의 사명을 다하도록 조직지도하였으며 특히 우리당원들을 그들의 선두에서 모범적 핵심적 역활을 다하도록 고무 동원하였다。

인민정권이 실시한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정확한 시책은 그들의 증산의욕을 고도로 앙양시켰다。 一九四七년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완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얻은 고귀한 경험을 토대로 一九四八년도의 계획을 초과실행하였는바 一九四八년八월二十五일 청진제철소의 년간계획실행을 필두로 시내각 기업소들에서 자기의 계획을 초과완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경리발전에 있어서도 一九四八년도 인민경제계획의 예정숫자를 초과실행하였다。

인민경제계획의 승리적완수는 공화국 북반부 산업발전에 비약적전변을 가져왔으며 계획적생산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으며 근로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초로 되었다。

청진시당단체는 국가시책을 옳게협조하는 동시에 도급제의 정확한 실시、 로동생산성의 제고、 원가저하、 물자절약등에 대하여 각방면으로 검토하며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도로 앙양시킴으로써 그들의 수입제고를 위한 대책들을 수립함에 대하여 협조하고 있다。 다른방면으로 합숙과 사택들에서 로동자들의 가정경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랑비현상을 퇴치하고 지출에 대한 효용을 높이도록하는데까지 관심을 돌리고 있다。

구체적실례로서 청진조선소에서는 년간계획을 도저히 완수할수없다고 일부일군들이 동요하였으나 쏘련기술자들의 기술적방조와 도급제의 정확한 실시 및 로력조직의 재검토 밑에 당원들의 선봉적투쟁의 결과 이를 기한전에 초과완수하였다。 이러한 생산의 결과는 그들의 수입이 一九四七년도말에 비하여 평균 七〇%가 제고되어 많은 가장도구및 가축을 사육케되어 그들의 가정경리는 날로 윤택하여 가고 있다。 또한 청진방적공장은 생산원가를 광범히 축소함으로써 로동자들의 수입 증가를 도모하는한편 부속채소원등을 합리적으로 경영케하며 기타 가축을 사육하여 합숙로동자들에게는 三、〇〇〇칼로리이상의 영양을보장할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청진시당단체는 로동자들의 생활향상과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문제를 제때에 해결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협조한 결과 一九四七년 一월에 비하여 三〇〇%의 신축 수리등 사업을 완료하도록하였다。 특히 제철소초급당부는 이 사업을 옳게 협조하였음으로 생산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즉 종저직후에는 전쟁으로 파괴된까닭에 로동자들의 주택난은

극식하였으며 생산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것이다。그러나 시당제五차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초급당부는 구체적대책을 수립하고 당원을 선두로 전체 종업원들의 애국적운동의 결과 一九四七년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도에는 二二○%의 주택을 보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택부근의 문화시설로 구락부、성인학교 및 도서실등을 설치하고 그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있다。

로동자들의 생활향상과 아울러、세기적숙망이던 토지개혁의 결과 토지의 주인으로된 농민들의 생활도 급격한 향상을 가져왔다。특히 농촌당단체들과 당원들의 모범적역활로 다수확 영농방법으로 농촌경리를 발전시킨 결과 농민들의 물질적 생활은 급속도로 개선되였다。또한 농촌에 전기를 사용할수있게 하는 문제에 당단체들이 각별한 협조를 다한 결과 一、二八一호에 二、四三八등의 전기등을 사용하게 되였다。문화적시설에 있어서 라디오、민주선전실등이 활발히 리용되고 있으며 각종 동호회、농악대들이 생기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로동자들의 생산의욕을 고무하여 그들의 앙양된 문화적욕망을 충족시키는 직장문화사업은 일부 전문가들에게 편중되는경향과 투쟁하면서 전개되고 있다。구락부 도서실들은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위안장소로、교양장소로되며 생산증강에 무전장한 협을 북돋아 주고 있다。

직장 의료시설에 있어서는 방적공장을 비롯하여 제강소 제철소등에 의료시설이 완비된 사회보험진료소 기타 타아소 휴계실등이 설치되어 직장의 제반 문화시설들은 완비되어 가고 있다。

청진시당단체는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류통을 위한 대책을 수립키 위한 강력한 당적협조로써 시내 중요직장四개소를 비롯하여 소비조합 직장상점이 설치되어 로동자들이 헐값으로 생활필수품을 공급받고 있으며 四개소의 농촌소비조합상점이 설치되어 농촌과 도시간의 직접적인 물자교류로 농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있다。이외에도 우리당단체들은 로동자 농민들의 물질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로동자 농민들의 수입은 날로 제고되며 그들의 생활에 급진적발전을 가져왔다。이는 근로인민의 앙양된 애국심을 국가에 보답하는 사업에로 조직하며 그들의 정치경제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리당의 활발한 투쟁속에서 얻어진것이다。

이와 같은 물질 문화적 조건하에서 로동자 농민들은 조국창건을 위하여 해방당시 여지없이 파괴되었던 공장을 복구하였으며 새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총체적완수를 위하여 주야 분투하고 있다。

우리당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써 로동자 농민들의 생활형질향상에서 기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 일부당단체들에서는 당앞에 제기된 이 중요한 과업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가시책에 대한 협조、를 원만히 하지 못하고 있다。례로써 청진제철공장은 도급미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합숙식사는 질적으로 향상되지못하고 있다。또한 청진제강소는 후생자금을 옳게 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후생자금을 다만 배급물자대금에 융통하는데 그치거나 또는 후생자금의 三○%는 전연 리용되지 못하고있었다。

다른 결점의 하나로써 물질 문화생활 향상에 대하여 전체적인 인식이 부족하므로 다만 사택준비、후생사업조직에만 치중하고 문화 생활향상에 대해서 고려를 돌리지 않은 그것이다。로동자 사무원들의 문화향상은 또한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는 요인의 하나임을 인식치 못하고 문화사업을 지도하는 일군들은 차요(次要)의 간부를 배치하므로 앙양된 로동자들의 정치적 의욕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이다。

또한 군중문화사업비가 각공장에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획적으로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랑비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단체들의 당적주의가 부족한것을 볼수 있다。

청진시당관하 일부당단체에서 범하고 있는 이러한 결점들을 시급히 퇴치하며 새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함에 있어서 더욱 이 사업의 중요성을 당지도간부로부터 재인식하고 로동자 농민들의 물질 문화생활 향상을 계속 발전 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제기하고 있다。

첫째、로동자 농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계속 향상시키는 가장 기본요인은 새 二개년 인민경제계획의 승리적달성을 보장함에 있다。그러므로 당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의 정치적 경제적 의의를 널리 해석선전하며 당원이 솔선모범을 보여야할것이다。또한 이 승리를 달성하기위한 조직에 있어서 로동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며 로동생산성을 제고하며 기계 및 물자를 애호 절약하여야 할것이다。원가를 저하하며 생산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기계기술의 창의 고안과 낡은시설을 새로운 과학적시설로 전환함으로써 생산행정을 단축함에 있다。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경지면적의 확장 및 토지리용률 제고와 종자개량사업동을 기초로 하여 다수확 영농방법에 의해서 농산물생산을 증가하는데서만이 자기들의 물질 문화생활이 제고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생산의욕을 고무할것이다。

둘째、로동자 농민들의 물질 문화생활 향상을 위한 대책을 협조함에 있어서 국가의 혜택을 제때에 로동자 농민들이 받도록함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감과 위신을 제고하여야 할것이다。
즉 법적으로 혜택받은 로동보호물자 및 후생사업과 로동자들의 임금 또는 상금및 필수물자들을 제때에 공급되도록 협조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주택신축 보수사업을 더욱 광범히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가 예산에 승인된 자금을 사장시키는 경향과 형식적인 주택수리사업 경향과는 강한 투쟁을 전개해야 할것이다。

셋째, 직장복리시설을 문화적으로 설비하며 특히 독신로동자들의 합숙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합숙생활에 취미를 가지게할것이다。 또 국가에서 승인된 후생자금을 효과 있게 리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당적으로 보장할것이며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축을 사육하여 유해작업로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육류를 공급하는 사업을 조직 지도할것이다。

넷째, 국가 및 소비조합 상점망이 옳게 사업하도록 협조지도하는 동시에 직장에 군중문화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해야할것이다。

문화사업지도에 있어서는 문화부문을 책임지고 지도하고 있는 일군들의 정치 사상적 수준을 제고함에 각별한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들의 문화사업을 보다높은 수준에로 제고시켜야 할것이다。

당생활보도

함남도당학교 사업경험에서

제二차전당대회에서 김일성동지는 당간부양성사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하면서 상설적 당교육기관들의 사업을 일층 개선 강화할것을 강조하였다。

함남도당학교는 당중앙이 제시한 방향에서 자기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조직 전개하기에 적지않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제 당학교내에서 강사들과 학생들과의 사업경험에서 얻은 몇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당학교사업에 있어서 강사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은 직접 학생들의·학습실적의 제고를 보장할수 있는 조건으로 되는것이다。 그러므로 강사들은 강의제강에 의한 전문적 과목의 연구, 강의초안작성, 교수진도계획수립, 그 집행등을 철저히 조직함이 가장 중요하였다。 지난 시기의 경험에 의하면 부분적 강사들은 강의초안을 항상 새로운 자료로써 보충하는 사업이 미약하였으며 자기과목에 대한 깊은 연구가 부족하였다。 이와같은 현상을 퇴치하기 위한 우리들의 대책은 매강사들의 원고작성의 철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계획적인 호상 검토회를 가짐으로써 강의제강의 질을 높일수 있었다。

또 강사들의 강의방법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강의 참관조직을 집행함도 역시 필요하였다。

둘째로, 강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일상적인 학습방조사업이 철저히 진행될때 학생들의 학습수준 향상을 충분히 보장할수있었다。 지난시기에 있어서의 학습지도사업의 큰 결함의 하나는 부분적 강사들은 교수시간 이외는 학생들과의 학습원조사업이 없이 다만 일률적으로 학습을 독촉하기나 시험에서만 학습을 평정하는 정도에서 그치고 학생들에 대한 학습의 방법적 지도 및 수준향상을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홀시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토론조직, 학습반 및 학습호조반의 지도, 수준이 낮은 동무들에 대한 특별지도등의 방법으로 학습을 보장하기에 노력하였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선 토론시간의 활용에 생활성을 부여하는데 있으며 토론에는 전체인원이 참가하게 하는 방법적 지도가 특히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일정한 학과 진도내에서 제때에 토론제목을 제시하여 주며 학습방법과 요령을 알려주면서 지도하였다。

다음 학습반지도에 대한 강사들의 일상적, 공작이다。 강사들이 자기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리해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며 옳은 방조를 주기 위하여 몇개 학습반을 계획적으로 순회지도하는 공작을 전개한다。 이에 있어서는 학생들이 하루 강의받은 과목중에서 중심점을 설정하여 그를 완전히 소화하도록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강사들의 학습지도에 있어서 다른 방법의 하나는 학생들과의 정기적 학습담화조직이다。 학생들과의 개별적 학습담화조직은 학생들의 준비정도를 일상적으로 점검하며 그의학습을 보장하는데 큰 성과를 얻을수 있었다。

셋째로, 학생들의 학습열을 제고시키며 강의받은 과목에 대한 깊은 리해를 주며 수강생들이 일반적으로 노트에만 사로잡혀있는 경향을 퇴치하고 자기학습을 중점적으로 파악하게 하기위하여 도서실과 참고서적의 많은 리용을

보장하도록 하고있다。

넷째로, 제반사업의 진행과정에 대한 총화를 통하여 새로운 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강사들은 집단적 토의를 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반 학습책임자 회의도 제때에 가지도록하고 있다。

만약 강사들의 방법적학습지도가 민활성이 결여되고 제때에 집체적 대책들을 수립하지않는다면 학생들의 실력을 더 높이지 못하고 졸업시키게 되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게 될것이다。 그렇기때문에 학습지도에 대한 강사들의 일상적 긴장성과 민활성이 특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만 강사들이 학습지도를 작구한 일상적 공작으로 전개하게 될때 우리는 학습지도에 숙달하게 될것이며 항상 당의 요구에 수응할수 있게 될것이다。

이상 지적한 몇가지 학습지도 방법은 항상 고정된 것은 아닐것이니 함남도당학교는 이 경험의 기초 위에 사업지도 방법을 앞으로 더욱 향상하기에 노력하고 있다。

(함남도당학교 한표엽)

평양기관구당부 사업에서

조국경제 건설에 있어서 동맥의 역할을 노는 철도운수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평양기관구 당단체는 현실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곳 초급당부는 경제건설에서 부과된 자기과업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 당원들의 당에 대한 충실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교양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또한 당을 공고히 하는 부면에 있어서 당내조직규률을 강화하며 당의 순결성을 위한 투쟁을 강경히 전개하고 있다。 당장성사업에 있어서 一九四七년에 비하면 현재 열성적이며 선봉적인 로동자들 속에서 二〇八%의 장성을 보고있으며 그들은 모두 사업의 각분야에서 선봉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실례를 들어보면 당원인 기관사 장일록동무는 연료를 확보하기위한 五十일경쟁운동주간에있어서 군중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었다。 그는 경쟁주간에 있어서 주행키로를 자기책임에 대하여 一三八%로 초과실행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기관사들을 이 운동에 호소하여 각각 一〇〇%이상의 성적을 획득하게하였다。

초급당부는 이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낸 모범적당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당회의를 통하여 경험을 소개하였으며 락후한 동무들에 대한 비판과 교훈으로써 사업을 지도한데서 점차 당원들의 기술적 창의는 발전되어간다。

철도수송사업을 보장함에있어서 당은 물자절약에 대한 문제에 당적주목을 돌리였다。 결과에 석탄절약에 있어서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九四八년에는 二一%를 절약하였으며 유지(油脂)에 있어서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一〇〇키로당에 二二%를 절약하게되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우리당이 군중들속에서 옳게 교양사업을 조직하였기때문에 철도일군들의 기술적장성과 국가재산애호에 대한 열성이 제고된 까닭인것이다。 더우기 기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초급당부는 직장기술강습 기술전습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기에 협조한 결과 一九四八년도에 기관사 一八명과 기관조수二六명을 양성하였다。 기술적장성은 원가를 저하시키는데서와 기관차수리사업을 제때에 보장할수 있게하였으며 一九四六년에 비하여 로동능률은 二〇〇%로동생산성은 三〇〇%의 향상으로 국가에 대한 막대한 리익을 주게되였다。

초급당부는 철도수송사업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를 반드시 당회의에서 토론하며 당원들에게 그의 정치경제적 의의를 철저히 인식시키는 기초위에서 자기사업을 조직하고있으며 二개년인민경제계획의 결정적승리를 보장하기에 전체당원들은 선두에서 분투하고 있다。

一九四九년四월 十일 인쇄
一九四九년四월十五일 발행

「근로자」 제七호
【정가 三〇원】

책임주필 기 석 복
편 집 인 김 성 윤
인 쇄 인 최 만 엽
평양특별시문수리三〇〇번지
발 행 소 로 동 신 문 사
인 쇄 소 로동신문출판인쇄소

제 ㄱ—10454

「근로자」 편집국 전화, 국장실 二五七六번
편집실 三八〇二(二〇번)